

한국고대사학회 제192회 정기발표회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일시: 2024년 11월 9일(토) 13:20~18:00

장소: 충주세계무술박물관 2층 다목적강당

주최: 한국고대사학회

후원: 국사편찬위원회 · 국원문화유산연구원

7세기 전반 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변화

-推古朝를 중심으로-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머리말
2. 한반도 정세변화와 왜국의 대외교통로 확보
3. 고구려·백제의 승려외교와 왜국의 지배체제 정비
4. 왜국의 對隋외교와 백제의 '國書' 탈취 사건
5. 신라의 送使외교와 왜국의 대외관계 변화
6. 신라의 '任那使' 파견과 왜국의 '任那의 調' 인식
7. 맺음말

1. 머리말

7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국과 전쟁·외교를 반복했다. 한반도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왜국 역시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왜국 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推古朝(593~628)였다. 이 시기 왜국은 한반도 삼국은 물론 중국 수·당과도 직접적인 교섭을 가지면서 국제적으로 한층 부각된다. 따라서 왜국의 국내외 정세를 다루는 연구는 일본고대사를 넘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초기연구는 『일본서기』 천황중심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¹⁾ 1970~80년대 들어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일본서기』 기사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 관점의 차이가 있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당 및 삼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왜국의 인식과 대응, 그리고 이미 멸망한 任那²⁾가 다시 언급되는 문제 등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정세변화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1)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世界」 『岩波講座 日本歴史』 2, 岩波書店;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2) 『일본서기』에서 임나는 금관국 등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 가야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 그리고 멸망시 백제왕의 통치지역 등을 가리킨다(김은숙, 1992 「『일본서기』의 '任那'기사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 시민강좌』11, 일조각, pp.20~23).

풀려고 노력했지만,³⁾ 관련 기사의 구성 및 성격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료비판과 해석을 토대로 왜국의 국내정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대외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재조명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서기』는 천왕중심사관에 입각해 편찬되는 과정에서 많은 윤색과 개변이 가해졌다. 따라서 왜국과 한반도제국의 관계기록은 왜국의 우월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나 중국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무엇보다 7세기 전반 대 왜국의 대외관계 기사는 당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섭국들의 국내외적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각 기사의 성립 과정부터 그 성격과 의미까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왜국의 대외관계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7세기 전반 동아시아 격동기 속에서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해 노력하던 여러 국가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한반도 정세변화와 왜국의 대외교통로 확보

7세기 전반 왜국은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당시 왜국은 최초의 여제인 推古王이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국내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신라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에 따라 관계변화를 모색하면서 隋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120여 년만에 중국과 교섭을 재개했다. 이때 왜국의 국내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질적인 주체는 蘇我氏였다.

소아씨는 5~6세기 이래 대왕가의 외척으로서 성장한 신흥 유력씨족이었다. 645년 乙巳의 변으로 멸망할 때까지 蘇我稻目-馬子-蝦夷-入鹿은 왜국의 왕위계승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⁴⁾ 소아마자가 大臣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아씨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推古朝이다.

추고의 즉위 후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왜국과 교섭을 시도한 나라는 고구려였다. 595년 (추고3) 5월 惠慈를 파견했는데, 같은 해 백제에서도 惠聰을 보내 불교의 선진사상과 문화를 제공했다. 혜자와 혜종의 도왜는 法興寺(飛鳥寺) 창건과 관련이 깊으며,⁵⁾ 이후 많은 사찰 조영과 승려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⁶⁾ 백제는 597년 4월 아좌왕자까지 파견했고,⁷⁾ 599년 9월에는 낙타, 양 등의 선물을 보내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3) 1960~70년대까지는 일본학계에서는 왜국의 任那 지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진척 결과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조공-지배를 주장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반도남부 지역에 대한 왜국의 우위 의식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학계에서는 임나지배를 전제로 왜국의 국내외적 위치를 설명하는 연구자는 없다.

4) 志田淳一, 1971 『古代氏族の性格と傳承』, 熊山閣; 黛弘道, 2012 『古代を考える蘇我氏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박재용, 2017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참조.

5) 『일본서기』 추고 4년 동11월조. 坂元義種, 1979 「推古朝の外交」 『歴史と人物』 100, pp.49~50.

6) 백미선, 2010 「사비시대 백제의 대외 불교 교류와 惠聰」 『한국사상사학』 34, pp.13~26.

7) 阿佐의 파견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국 내 친백제노선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pp.443~444; 김현구·박현숙·우재

<『일본서기』 추고기 대외관계표>(점선 박스는 임나 관련 기사)

	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수·당
593<추고1>	1. 추고 즉위 4. 성덕태자 황태자 즉위	<영양왕 4년>	<위덕왕 40년>	<진평왕 15년>	<隋 문제 13년>
594	2. 三寶 흥륜시킴				
595		5. ← 慧慈 도왜 (황태자 스승)	← 慧聰 도왜 (삼보의 동량)		
596	4. 法興寺 창건				
597<추고5>			4. ← 왕자 阿佐 파견	11. → 吉士磐金 파견	
598	4. 吉士磐金 귀국			8. ← 공작 보냄	
599			9. ← 낙타, 당나귀 보냄		
600			<5. 무왕 즉위>	2. 신라와 임나가 싸움 → 境部臣과 穗積臣을 임나를 위해 신라 5성 공략 → 難波吉士神 신라 파견 難波吉士木蓮子 임나 파견	*『隋書』 왜국전 開皇 20년 1차 견수사
601	2. 斑鳩宮 착공	3. → 大伴連嚙 파견 (임나 구원)	3. → 坂本臣糠手 파견 (임나 구원)	9. ← 간첩 迦摩多 도왜	
602<추고10>	2. 來目황자 신라 공격 장군 임명 6. 大伴連嚙과 坂本臣糠手 백제로부터 귀국	운10. ← 隆과 雲聰 도왜	10. ← 觀勒 도왜		
603	2. 來目황자 사망 4. 當摩황자 신라 정토장군 (부인 사망으로 정토×) 10. 小墾田宮으로 천도 11. 蜂岡寺 창건 12. 官位 12계 시행				
604	4. 황태자 憲法17條 제정 9. 조정의 예법 개정 黃書·山背畫師 지정				<8. 양제 즉위>

605	4. 鞍作鳥 장육불상 제작	← 大興王 황금 3백냥			
606	4. 장육불 元興寺 안치 7. 황태자 勝鬘經과 法華經 강의				
607<추고15>					7. → 小野臣妹子 大唐(隋)에 파견 *『隋書』 외국전 大業 3년 ‘日出處天子. 日沒處天子’ 국서 문제
608	4. 小野臣妹子 귀국 6. 掌客을 難波津에 보냄 ‘백제가 國書를 탈취’ 8. 裴世淸의 국서 전달 9. 裴世淸 귀국				4. ← 裴世淸 도왜 9. → 小野臣妹子 파견 ‘東天皇敬白西皇帝’ 국서 高向玄理 등 유학생 파견
609	9. 小野臣妹子 귀국		4. 승려 道欣과 惠彌 표착		
610	10. 신라와 임나 사인 영접	3. ← 曇徴과 法定 파견		7. ← 사탁부 奈末 竹世士. 任那 탁부 首智貫 파견	
611				8. ← 사탁부 奈末 北叱智. 任那 습부 親智周智 파견	
612<추고20>	2. 堅鹽媛 대릉에 개장		← 路子工과 味摩之 도왜		
613	12. 황태자의 片岡 행차				
614	8. 병이 든 大臣을 위해 남녀 1천명 출가시킴				6. → 犬上君御田鍬 파견
615	9. 犬上君御田鍬 귀국	11. 혜자 귀국	9. ← 왜의 견수사와 함께 사신 파견		
616	3. 掖玖人 귀화			7. ← 奈末 竹世士 파견 (불상)	
617<추고25>					
618		8. ← 사신 파견 (수양제의 고구려원정 대패 소식 전함) <9. 영류왕 즉위>			<6. 唐 고조 즉위>

619					
620	12. 『天皇記』, 『國記』 편찬				
621	2. 聖德太子 사망			← 나말 伊彌買 파견	
622<추고30>					
623	7. 신라 사신을 따라 惠齊와 惠光, 惠日 등 귀국 (대당교섭의 중요성 강조) · 신라 토벌을 두고 田中臣과 中臣連國 논의 (백제를 비난) 11. 磐金과 倉下가 귀국 (경부신 등이 뇌물을 받고 大臣을 현혹했다고 비난)			7. ← 대사 奈末 지세이 任那 達率 智 파견 (불상 및 금탑, 관정번) · → 吉士磐金 파견 → 임나에 吉士倉下 파견 · ⇒ 견신라사가 귀국 전 境部臣 雄摩侶 등 신라 공격 (신라가 '임나의 조' 바침)	
624	4. 觀勒 승정 임명 9. 사찰과 승니 조사 천황이 소아씨와 친연관계 강조				
625		1. ← 惠灌 파견. 승정임명			
626	5. 蘇我馬子 사망				
627<추고35>					
628	3. 推古 사망				

왜국에서도 수의 출현에 따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동과 한반도 삼국의 정치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때 주변 정세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들에 의해 입수되었을 것이다. 특히 혜자는 성덕태자의 스승이었고, 왜국의 정치·외교분야 고문 역할을 담당했다.⁸⁾ 이들의 왜국 내 활동은 불교문화를 발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왜국 지배층의 대외인식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 사이 왜국에서는 597년 11월 吉士磐金을 신라로 파견했고, 신라로부터 공작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600년(추고8) 2월에는 왜국이 신라와 ‘임나’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임나를 구하기 위해 그해 境部臣과 穗積臣을 보내 신라의 5성을 공취했다고 한다. 이어서 難波吉士神과 難波吉士木蓮子を 신라와 임나에 각각 파견하여 사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후 신라와 임나왕이 사신을 보내 調를 바쳤다고 한다.

<A-1> 8년 2월,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新羅與任那相攻). 천황이 임나를 구하고자 하였다.

<A-2> 이해 境部臣을 대장군으로 삼고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삼았다[모두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치려하였다. 즉시 신라를 목표로 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그리고 신라에 이르러 5성을 공략하였다. 이에 신라왕은 두려워하여 백기를 들고 장군의 휘하에 이르렀다. 그리고 多多羅, 素奈羅, 弗知鬼, 委陀, 南迦羅, 阿羅羅의 6성을 할양하고 항복을 청하였다. 이때 장군은 함께 의논하여 “신라는 죄를 깨닫고 항복하였다. 구태여 공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사유를 주상하였다. 천황은 다시 難波吉士神을 신라에 파견하고 難波吉士木蓮子を 임나에 파견하여 각각 사정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와 임나왕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調를 바쳤다(新羅任那王二國遣使貢調). (중략) 곧 사자를 보내어 장군을 소환하였다. 장군들이 신라에서 돌아오자 곧 신라는 또 임나를 침공하였다.

(『일본서기』 추고 8년 2월조 및 시세조)

위 기사들의 결론은 신라와 임나가 이른바 ‘任那의 調’를 헌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나는 562년에 대가야를 끝으로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임나가 조를 바쳤거나 왜국이 신라를 공격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일찍이 『일본서기』 편찬자의 조작이고,⁹⁾ 계체 23년 4월조의 近江毛野臣 전승을 모티브로 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성이 부정되고 있다.¹⁰⁾ 확실히 왜군이 신라의 성들을 공략해서 할양받았다는 내용은

병·이재석 공저,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p.43).

8)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pp.35~36.

9) 三品彰英, 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pp.43~44; 金鉉球, 1985 『大和政權對の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pp.146~152. 西本昌弘, 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 129, pp.18~19; 延敏洙, 1994 「日本古代國家形成期の對外關係研究」, 九州大學 博士學位論文, pp.279~280(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檢討」 『九州史學』 105).

계체기에서 왜군이 신라를 공격하는 장면과 거의 같다. 게다가 경부신과 수적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고, ‘貢調’란 용어를 쓰고 있는 점도 위 기사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왜국이 연이어 難波吉士氏 인물들을 신라와 임나에 파견한 것은 600년에 제1차 견수사를 파견하는 것¹¹⁾과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불교 등 선진문화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안전한 항로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왜국이 중국이나 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야만 했다. 서남해 연안항로는 왜국이 漢과 통교할 때부터 이용해 오던 가장 안전한 항로였다. 이 항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이 일본열도로 건너갈 때도 주로 이용되었다.¹²⁾ 그런데 6세기 중반이 되면 한반도 남부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서남해 연안항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백제와 관계가 악화되고, 급기야 양국 사이에 554년 관산성 전투가 발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백제가 서남해 연안항로를 대신하여 남해 사단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³⁾ 사단항로는 백제가 웅진기 대부터 개척한 항로로서 영산강 하구와 해남·강진, 그리고 여수·고흥반도 등에서 출항하여 對馬島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열도에 도착하는 항로였다.¹⁴⁾ 중국의 경우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천문관측을 이용한 장거리 항해가 성행하고 있었다. 백제 역시 602년에 승려 觀勒이 왜국에 천문과 지리관련 서적을 전한 사실과 『수서』 왜국조의 隋使인 裴世清의 항로¹⁵⁾를 통해 미루어 보면, 사비기 백제의 선단이 전남 해안지역에서 일본열도로 사단항해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국은 안전을 담보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받을 수 있는 서남해 연안항로를 선호했을 것이다. 왜국이 597년에 신라에 길사반금을 보낸 것은 대외교섭을 위해 가장 안전한 서남해 연안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왜국의 요청에 신라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듯하다. 고구려와 백제가 왜국과 교섭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신라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왜국은 601년(추고9) 3월 고구려와 백제에 각각 大伴連嚙와 坂本臣糠手を 보내서,¹⁶⁾ 양국과 함께 공동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교통로를 회복하고자 했다.¹⁷⁾ 『일본서기』에는 이들의 파견

10) 정효운, 1995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學研文化社, pp.123~124; 연민수, 1998 앞의 책, pp.323~324.

11)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 왜국조.

12) 당시 잦은 기항이 필수였다는 전제를 두고 최대한 연안항로를 활용하였다고 보는 연구가 많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동민의 논문(2022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56~257) 참조.

13) 박재용, 2017 「백제의 對倭교섭과 항로」 『백제학보』 19, p.172.

14) 정효운, 2007 「왜국으로의 문화전파」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0 『백제의 문물교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p.305 ; 임영진, 2017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왜계 고분과 왜5왕의 중국 견사」 『백제문화』 56 ; 문안식, 2015 「백제의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사학연구』 119.

15) “文林郎 裴清이 백제로 건너가 竹島에 이르러 남쪽으로 羅國을 바라보며 都斯麻國을 거쳐 큰바다로 나갔다.”는 기록이 보인다(『수서』 권81 열전 동이 왜국조).

16) 『일본서기』 추고 9년 3월조.

17)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목적이 임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왜국이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수와 교섭하기 위한 교통로 확보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사신단이 통과하는 주요루트를 신라가 장하고 있는 한 항해의 안전은 보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602년 6월 大伴連嚙과 坂本臣糠手이 백제로부터 귀국한 이후, 백제는 602년 8월부터 신라와 아막성 전투를 시작하고, 고구려는 603년 8월에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상대로 왜국까지 끌어들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음을 말해준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왜국에서도 來目왕자를 필두로 왕족 사이에는 對신라 강경책이 거론되었다.¹⁸⁾

왜국은 왕족 등의 사망으로 ‘신라원정’을 중지했다고 하지만,¹⁹⁾ 당시 왜국은 隋와 신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隋書』에 의하면 신라는 594년에 진평왕이 수에게 책봉을 받은 후, 605년부터 615년까지 매년 조공사절을 보냈다. 수는 598년 고구려와의 전쟁 이후,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신라의 접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라가 이처럼 대수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바로 7세기 전반 한반도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²⁰⁾ 이러한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왜국은 수라는 새로운 교섭대상을 중시하면서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한다.

3. 고구려·백제의 승려외교와 왜국의 지배체제 정비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602(추고10)년 10월에 고구려는 승려 隆과 雲聰을 파견했고, 백제는 관륙을 왜국에 보내 역법과 천문지리 등을 전했다. 관륙은 왜국에 장기 체재하면서 왜국 지배층의 고문으로 활약하다가 624년에 승정으로 임명되었다.²¹⁾ 625년 1월 고구려는 승려 惠灌을 왜국에 보냈다. 혜관은 수에서 三論宗의 祖師인 吉藏에게 삼론학을 배운 인재였다. 혜관은 法興寺에서 왕족과 귀족을 상대로 삼론을 강의했고,²²⁾ 이후 관륙을 대신해서 승정에 임명되었다.²³⁾ 고구려 영류왕은 혜관을 보내 왜국에 선진문화를 전해주면서 그가 혜자처럼 왜국의 지배층에 인맥을 만들어 고구려를 위해 활약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렇듯 추고조에 들어와 대외관계에서 눈에 띄는 것이 고구려와 백제의 이른바 ‘승려(불교)외교’이다.²⁴⁾ 6세기 대 고구려와 백제가 관료나 장군을 파견한 것과는 달리 승려를 보내

26, p.55.

18) 『일본서기』 추고 10년 2월조; 同 추고 3년 2월조와 4월조.

19) 왜국의 이른바 ‘신라원정계획’의 목적은 처음부터 對신라정책을 실제로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배층 공통의 정치적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敏達 말부터 단속적으로 생긴 왕권의 내부의 항쟁·내란에 의한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여 성덕태자와 소아마자하에서 권력의 집중 및 안정을 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정효운, 1994 『『日本書紀』 批判序說 I』 『한일관계사연구』 2, p.93).

20) 박윤선, 2009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53, p.249·261.

21) 『일본서기』 추고 32년 하4월조.

22) 『本朝高僧傳』 卷之一 高麗國沙門惠灌傳.

23) 『일본서기』 추고 33년 춘정월조.

24) 흔히 5~6세기 대 백제와 왜국 간 외교에 나타난 특징을 왕족외교나 승려외교 등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승려외교는 6세기 후반기에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동아시아의 불교의 대유행이라는 풍조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⁵⁾ 고구려와 백제가 승려들을 파견한 것은 신라의 의심을 피하고, 왜국의 선진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신라를 압박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²⁶⁾

당시 왜국에서 한반도 승려들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주체는 蘇我馬子였다. 603(추고11)년 왜국에서는 왕궁이 豐浦宮에서 小墾田宮으로 이전된다. 豐浦宮은 飛鳥지역 최초의 궁이다. 592년 12월 推古가 이곳에서 즉위했다. 飛鳥寺(法興寺)와 함께 아스카시대를 여는 상징물이자 이 지역에 왕궁이 조영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풍포는 추고의 외조부인 蘇我稻目の 向原家가 있었던 곳으로 소아씨의 본거지였다.²⁷⁾ 도목의 아들인 마자는 588년 아스카의 중심지에 飛鳥寺를 세우는 한편 왕궁을 磐余에서 자신들의 본거지로 옮겼다. 603년 추고가 飛鳥寺 북쪽의 小墾田宮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풍포궁은 豐浦寺가 되었다. 이러한 풍포궁과 소간전궁의 건립은 소아마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추고는 628년에 사망할 때까지 소간전궁에서 소아마자와 성덕태자 등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다.

소간전궁은 왕의 공간이자 儀禮행위의 공간으로서 이전의 왕궁들과는 달리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일본서기』 추고 11년(603) 11월조에는 大楯과 靱을 만들고 채색한 旗幟를 세웠다. 왕궁의례를 장엄하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 賓禮의식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추고는 참석하지 않았다.²⁹⁾ 이듬해 9월에는 朝禮를 바꾸어 궁문을 출입할 때의 跪禮·匍匐禮를 정했다고 한다. 특히 소간전궁에서는 새로운 신분제도인 관위 12계제 제정(603년), 헌법 17조 찬술(604년), 「천황기」·「국기」의 편찬 개시 등 여러 시책이 단행되었다. 이처럼 헌법 17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추고 대에 이르러 왜국은 왕권과 국가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들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소간전궁이 건립되기 전에 고구려로부터 승려 惠慈와 隆·雲聰, 그리고 백제로부터 惠聰과 觀勒이 파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도왜 후 飛鳥寺에서 머물면서³⁰⁾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일본서기』와 『本朝高僧傳』에 의하면 관륙의 제자들은 대부분 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이재석, 2014 「5~6세기 백제의 對왜국 외교의 추이과 그 유형」 『백제문화』 50).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推古 17년(609) 하4월조에 의하면 백제승 道欣과 惠彌를 우두머리로 한 10명과 속인 75명이 중국 수나라에서 백제로 귀국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葦北津(현재 葦北郡)에 겨우 도착한 일이 있었다. 이때 백제의 對중국 교류에서 승려가 사절단 대표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백제의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왜국에 불교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시기의 對倭교류 또한 비슷한 사절단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한다.

25) 『수서』 등 중국문헌에 의하면 신라의 對隋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승려가 사신 일행과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대수외교의 특징이 이 시기 對倭외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26) 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對倭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pp.22~23.

27) 木下正史, 1987 「地中に眠る宮と寺」 『古代を考える飛鳥』, 吉川弘文館, pp.150~151.

28) 풍포궁에서 소간전궁으로 천궁한 목적은 궁실을 외교의례의 장소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仁藤敦史, 1998 「古代における宮の成立と發展」 『古代王權と都城』, 吉川弘文館). 612년에는 백제에서 건너 온 路子工에게 명하여 南庭에 須彌山과 吳橋를 세우도록 했다고 한다.

29) 『일본서기』에는 추고 16년(608) 8월에 唐客이 王京에 도착하여 조정에서 국서 전달의식과 향응을 개최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때 당객은 추고와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중국 황제의 국서만 阿倍臣이 대신 받아 大門 앞에 두고 물러났다고 한다. 이는 3세기 이래 왜국의 외교의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용, 2024 「고대 일본의 왕궁과 공산성」 『고대 왕성의 공간과 공산성』, 공주대박물관, p.188).

30)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에는 관륙이 혜관 등과 함께 法興寺의 승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씨와 관계가 깊은 씨족의 일원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이후 수에 파견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관륵은 혜자와 함께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다.³¹⁾ 성덕태자는 603년 원흥사에 앉힐 장육불상의 서원을 발했는데, 605년 고구려에서 황금 300냥을 보내 완성할 수 있었다. 장육불상이 안치되고 열린 재회에서는 『勝鬘經』과 『法華經』 강설되었다. 이는 관륵을 비롯한 고구려 승려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추고조에는 왜국의 본격적인 사원건축인 飛鳥寺를 시작으로 藥草伽藍(斑鳩寺), 法輪寺 등이 조영되고, 이밖에 河內지역에는 四天王寺가 건립되었다. 『일본서기』와 『扶桑略記』에 의하면 이 시기畿內를 중심으로 46곳의 사찰이 있었고, 僧尼 합쳐 1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氏寺도 포함되었겠지만, 불교를 통해 국가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추고조정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³²⁾ 특히 蘇我馬子가 발원한 飛鳥寺는 고구려·백제 승려들이 머물면서 불교흥륭과 문화의 센터로서 기능했고, 동시에 추고조정의 정치·외교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608년 왜국에 온 隋使 裴世清이 飛鳥寺를 방문했다는 기록³³⁾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추고조의 사찰 조영은 왕궁의 건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조사-소간전궁, 若草伽藍(法隆寺·斑鳩寺)-斑鳩宮, 四天王寺-후대 難波長柄豊碕宮 등 사찰 건립과 함께 왕궁이 본격적으로 조영되었다.³⁴⁾ 앞서 언급했듯이 소간전궁에서는 여러 국가의례와 시책이 새롭게 행해졌는데, 隋의 거대한 왕궁과 장엄한 의례를 경험했던 고구려·백제 승려들의 견문이나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 소간전궁에 불당이나 후대의 內裏佛殿과 같은 시설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³⁵⁾ 하지만 현재 고고학적 결과를 따르면 소간전궁 내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시설 조영 또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³⁶⁾ 중요한 것은 왕궁과 사찰에서 왜왕과 신하들의 統合儀禮-賓禮와 節日의례 포함-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왕궁이나 사찰이 군신 간 맹약을 하는 무대로서 국가의 질서 및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³⁷⁾ 이전 시기에 고분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행해지던 의례가 이제는 왕궁과 사찰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³⁸⁾

이렇게 보면 601년 왜국이 고구려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신라에 대한 입장을 전

31)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成實宗; 『元亨釋書』 卷第16 力遊9

32) 網伸也, 2024 「古代日本の王宮空間と佛教受容」 『東アジア都城と宗教空間』, 京都大學學術出版會.

33) 『元興寺伽藍緣起並流記資財帳』 丈六光背銘

34) 佐藤信, 1998 「古代宮都と寺院」 『年報都市史研究』 6, 都市史研究會, pp.44~53.

35) 『일본서기』 추고 18년 10월조~추고 36년 3월조에 의하면, 小墾田宮은 ‘禁省(大殿)-庭(前庭)-閤門(大門)-朝庭·廳-南門-南庭’이라는 구조로 복원해 볼 수 있다.

36) 堀裕, 2024 「東アジア王宮内佛教施設の比較研究」 『東アジアの王宮・王都と佛教』, 勉誠社, pp.175~178.

37) 백제와 왜국의 불교에 보이는 孝사상은 양무제의 『孝思傳』와 관계가 깊고, 양국의 사원조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추고조의 왕궁과 사찰에서 이루어진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灌佛會와 조상제사를 행하는 우란분절(『일본서기』 추고 14년 4월조) 때는 君臣 간의 단결을 의미하는 盟約의식도 거행되었다고 한다(近藤浩一, 2013 「百濟·威德王の寺院建立と孝思想」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18; 古市晃, 2009 「君臣統合における佛教の意義」 『日本古代王權の支配原理』, 塙書房).

38) 고분시대에는 여러 금석문에서 ‘在○宮時’라고 하듯이 한 명의 대왕이 사정에 따라 복수의 궁을 경영했다(歷代遷宮). 그런데 6세기 중후반이 되면 法隆寺의 약사여려상광배명에 ‘池邊大宮治天下天皇’(用明), ‘小治田大宮治天下大王天潢’(推古)와 같이 ‘○宮治天下大王(天皇)’의 이름이 왜왕의 자칭으로서 정착한다. 이것은 대왕과 궁이 1대 1로 대응한 표기로서 ‘천하’의 중심에 왕과 궁이 위치한다는 관념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이후 대왕의 정체성을 궁의 존재에서 찾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간다(박재용, 2024 앞의 논문, 182~183).

하는 한편, 불교진흥과 함께 왕궁운영을 위해 각각 승려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추고는 국가의례는 물론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불교의 鎮護사상 등 고도의 정신문화를 지배체제의 원리로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듬해 서명 11년(639) 왜국 최초의 勅願寺(國家寺院)인 百濟大寺가 건립되고, 大化 원년(645) 孝德王은 佛教尊崇을 선언하며, 왕족 및 호족의 사원조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7세기 후반 白鳳寺院의 폭발적 증가는 추고조 불교정책과 고구려·백제의 지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왜국의 對隋외교와 백제의 ‘國書’ 탈취 사건

왜국은 607년(추고15) 7월에 수에 사신과 승려 수십 명을 파견했다. 제2차 견수사의 파견이다.³⁹⁾ 견수사 小野臣妹子는 이듬해 4월에 수의 사신 裴世清과 함께 귀국했다. 그해 9월 배세청이 수로 돌아갈 때 왜국은 소야신매자를 제3차 견수사의 대사로 임명하여 동행시켰다. 왜국의 견수사 및 수의 배세청 파견과 관련하여 『일본서기』와 『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B-1> 15년(607) 가을 7월, 大禮 小野臣妹子를 大唐에 파견하였다.

<B-2> 16년(608) 여름 4월, 소야신매자가 대당에서 귀국하였다. 唐國에서는 매자신을 蘇因高라 불렀다. 대당의 사인 裴世清과 下客 12명이 매자신을 따라서 筑紫에 도착하였다. 천황은 難波吉士雄成을 보내 대당의 객 배세청 등을 부르고, 당의 객을 위해 새로운 관을 難波의 고구려관 옆에 지었다.

6월, 매자신이 “신이 귀국할 때에 唐帝가 書を 신에게 주었습니다(唐帝以書授臣). 그런데 백제국을 지날 때 백제인이 찾아내서 탈취하여 갔기 때문에 이를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군신이 의논하여 “무릇 사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번 사자는 어찌 태만하여 대국의 서(大國之書)를 잃었는가.”라고 말하고, 매자를 즉시 流刑에 처하였다. 이때 천황은 “매자가 비록 書を 잃는 죄를 범하였으나 경솔하게 단죄할 수는 없다. 저 대국의 객들이 이것을 들으면 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사면되어 단죄되지 않았다.

가을 8월, 당객이 왕경에 들어왔다. (중략) 使主 배세청은 직접 서를 가지고(親持書) 두 번 재배한 뒤 사자의 취지를 말하였다. 그 서에서는(其書曰) “皇帝가 倭皇에게 묻는다(皇帝問倭皇). 사자인 長吏 大禮 소인고 등이 와서 왕의 마음을 전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鴻臚寺의 장객 배세청 등을 보내 방문하는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별도로 선물을 보낸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阿倍臣이 나아가서 그 書を 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중략) 唐客들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39) 『일본서기』에는 추고 15년(607) 추7월조에서 처음 수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보인다.

9월, 객들을 난파의 大郡에서 향응하였다. 당의 객인 배세청이 돌아갔다. 즉시 다시 소야매자신을 대사로 하고 길사웅성을 소사로, 복리를 통사로 삼아 당객을 수행시켰다. 이에 천황이 당의 황제에게 안부를 물었다(天皇聘唐帝). “동쪽의 天皇이 삼가 서쪽의 皇帝에게 아뢰입니다(東天皇敬白西皇帝). 사신인 홍려시의 장객 배세청 일행이 오게 되어 오랜 기간의 회포가 풀렸습니다. 가을도 점차 저물어 가고 청량해졌는데 황제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평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평안합니다. 지금 대례 소인고와 대례 웅성 등을 보내어 삼가 아뢰입니다(謹白不具).”라고 말하였다. 이때 당국으로 보낸 학생은 倭漢直福因, 高向漢人玄理 등 모두 8명이었다.

(『일본서기』 추고 15년 추7월조 및 同 16년 하4월~9월조)

<C-1> 開皇 20년(600), 倭王 성은 阿每, 字는 多利思北孤, 阿輩雞弥라 부르며, 사자를 보내어 대궐로 왔다. 上이 소사를 시켜 그 풍속을 물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倭王은 하늘을 형으로 하고 태양을 동생으로 한다. 날이 밝기 전에 나아가 정사를 듣고자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해가 떠오르면 곧 다스리는 일을 정지하고 나의 동생에게 말긴다고 한다 하였다. 高祖가 말하기를 “이는 크게 의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해서 훈시하고 이를 고치도록 하였다(此太無義理於是訓令改之).

(중략-왜국의 제도와 풍습-)

<C-2> 新羅와 百濟는 모두 왜를 大國으로 여기면서 진귀한 물건을 많이 보내고 敬仰하였다. 항상 사신이 왕래하였다.

<C-3> 大業 3년(607), 그 왕 多利思比孤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듣자오니 바다 서쪽 菩薩天子께서 佛法을 다시 일으키신다 하니 사신을 보내 朝拜드립니다. 아울러 沙門 수십 명이 이곳에 와서 불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 國書에는 “해 뜨는 곳 天子가 해 지는 곳 천자에게 글을 보냅니다(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 별 탈이 없으신지?” 운운하였다. 황제가 글을 보고 몹시 언짢아 鴻臚卿에게 “蠻夷가 보낸 글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C-4> 이듬해(608), 上이 文林郎 裴清을 왜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중략) 이 일이 있은 뒤 결국 왕래가 끊어졌다.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 왜국조)

먼저 『일본서기』에는 수를 당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견수사 소야신매자가 수의 사신 배세청과 함께 귀국하던 도중에 백제에게 수 황제(양제)의 국서(書)를 빼앗겼다는 내용을 특기하고 있다. 이후 조정에서 배세청 일행에 대한 빈례행사와 함께 황제의 국서를 받는 의식을 거행했다. 모든 일정을 끝마친 배세청이 귀국할 때 다시 소야신매자를 수에 보내 왜왕의 국서를 황제에게 전했다고 한다. 608년에 배세청이 왜국에 파견된 사실에 대해서는 『수서』와 『일본서기』가 일치한다. 하지만, 황제가 배세청을 통해 왜국왕에게 보낸 ‘皇帝問倭

皇’ 국서와 배세칭의 귀국과 함께 제3차 견수사가 지참했을 ‘東天皇敬白西皇帝’ 국서는 『수서』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 황제가 보낸 국서를 『일본서기』에는 ‘書’로 표기한 점이다. 중국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황제가 주고 받던 국서를 ‘서’로 표현했다. 양조 모두 주변국으로 보내는 국서는 ‘詔書’ 형식을 취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수의 국서가 ‘皇帝問倭皇’이라고 시작되는데, ‘皇帝敬問’을 冒頭로 쓴 문서는 주로 황제가 신료를 대상으로 내린 慰勞詔書였다.⁴⁰⁾ 따라서 수 황제가 왜왕에게 보낸 국서는 원래 ‘조서’였는데, 『일본서기』 편찬자는 이를 단순히 ‘서’라고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倭皇’과 ‘天皇’이라는 용어도 원래 ‘왜왕’ 또는 ‘대왕’이었던 것을 『일본서기』 편찬자가 수정한 표기로 볼 수 있다.⁴¹⁾

한편 『수서』에서는 왜국이 ‘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로 시작되는 국서를 보내서 수 양제가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 국서에 대해 종래 일본학계에서는 수에 대한 왜국의 대등외교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했지만,⁴²⁾ 최근에는 왜국이 자국의 논리로 당시의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국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³⁾

왜국이 수에 보낸 ‘天子致書天子’ 형식의 국서는 584년 돌궐 沙鉢略可汗이 수 문제에게 보낸 국서의 형식과 같다.⁴⁴⁾ 고구려는 돌궐과 교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서형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왜국의 국서 작성에 고구려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국은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백제 승려인 관륵과도 논의했을 것이다.⁴⁵⁾ 日出이나 日沒이란 『大般若經』의 주석서인 「大智度論」에 ‘日出處是東方. 日沒處是西方’이라고 되어 있는 등, 단순히 동서의 방향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이다.⁴⁶⁾ 서두에 수 양제를 ‘보살천자’라고 칭하면서 국서를 보내고 있어,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 국서 작성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크다.⁴⁷⁾

40) 양진성, 2015 「南朝時期의 文書行政에 관한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pp.161~165·171.

41) 『善鄰國寶記』에서도 ‘皇帝問倭王’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 추고 16년 9월조의 ‘聘’이란 글자 또한 편찬단계에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42) 西嶋定生, 1987 「遣隋使國書問題」 『學士會會報』 776; 2002 「遣隋使と國書」 『西嶋定生東アジア論集』 3, 岩波書店, pp.241~242; 堀敏一, 1998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契」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p.143.

43) 森公章, 1998 『白村江以後-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講談社, p.33;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pp.216~217.

44)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p.113.

45) 李成市는 왜국을 日出處, 수를 日沒處로 보는 지리관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고구려승 혜자가 이 국서를 기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1990 앞의 논문). 그러나 이러한 지리관은 백제에도 있을 수 있다. 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혜자와 함께 성덕태자의 고문으로 활약했던 혜총, 그리고 관륵 등을 고려한다면 백제가 이 국서의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은숙, 2007 앞의 논문, p.57). 이와 비슷한 견해로서 淸武雄二는 백제승과 고구려승이 이 국서의 집필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았고(1995 「ヤマト王權の佛教受容と外交政策」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 27), 高寛敏 또한 백제승이 집필에 참가했을 것으로 추측했다(2000 「倭隋外交をめぐる諸問題」 『東アジア研究』 29).

46) 東野治之, 1992 「日出處・日本・ワークワーク」 『遣隋使と正倉院』, 岩波書店, pp.98~101; 2020 「ヤマトから日本へ-古代國家の成立」 『出雲と大和』, 東京國立博物館, p.49.

47)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 왜국조에 ‘無文字唯刻木結繩敬佛法. 於百濟求得佛經. 始有文字知ト菴’라 했듯이 백제로부터 불교문화의 수입과 함께 문자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그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致書’는 『수서』의 사례를 보면 본래 개인 사이에 주고받던 書狀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⁴⁸⁾ 게다가 왜국이 배세청의 귀국 시에 보낸 국서는 ‘某敬白某’로 시작하여 ‘謹白不具’로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어구가 왕희지·왕헌지의 尺牘 어구와 많은 부분 공통된다는 점을 참조한다면, 당시 7세기 전반 왜국은 중국 중심의 정형화된 외교문서보다는 서장형식의 외교문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⁴⁹⁾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인물은 중국을 오고가며 중국식 한문에 익숙한 한반도 승려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수 양제가 왜국의 국서에서 불쾌하게 여긴 것은 ‘上表’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과 왜국왕이 ‘天子’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남북조 이래 주변국이 황제에게 문서를 보내 의사표명을 할 때는 한결같이 表文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에서도 주변국 통치자들이 보내는 문서의 격식은 표문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주변국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⁵⁰⁾ 그럼에도 왜국이 稱臣하지 않고 스스로 ‘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유교식 군신관계와 관계없는 단순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劉宋의 황제에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올린 문서는 중국식 표문체제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불교세계의 지도자로서 남조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고 함께 우호를 맺자는 취지였다.⁵¹⁾ 다시 말해 왜국의 국서에 보이는 천자란 자국과 수 모두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통치자를 불교군주라는 종교적 귀의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어쨌든 수 양제는 왜국의 국서를 보고 강한 분노를 표했으나, 그 다음해에 文林郎 裴世清을 파견했다. 수가 배세청을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⁵²⁾ 아마도 왜국에 대한 수의 관심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는 잘 모르던 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신라와 백제는 왜를 大國으로 여긴다’고 한 말<사료 C-2>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즉 왜국이 백제와 신라에 대해 대국으로 행동하고 빈번한 교섭을 하고 있다면, 수가 고구려를 목표로 동방경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국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⁵³⁾

결국 수 양제는 小野臣妹子가 귀국할 때 배세청을 왜국에 파견하여 왜국의 사정을 살피게 했다. 배세청은 왜국 조정에서 접대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가 수로 돌아갈 때 왜국은 소야신매자를 다시 대사로 임명하여 유학생과 학문승을 각각 4명씩 파견했다. 이때 파견된 유학생과 유학승 중에는 高向漢人玄理와 僧旻과 같이 수의 멸망과 당 건국기의 혼란을 체험하고 귀국하여 改新정권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48) 中村裕一, 1991, 「慰勞詔書と‘致書’文書」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p.46.

49) 강은영, 2017 「고대 일본의 對新羅關係와 신라의 국서문제」 『한국사연구』 179, 한국사연구회, pp.42~43.

50) 수 대에는 이전 시대의 예를 집대성하여 『江都集禮』를 편찬했다. 이에 따라 빈례의 정착과 함께 국서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田島公, 1986 「外交と儀禮」 『日本の古代』 7, 中央公論社, p.207).

51) 동남아 제국의 상표문에 반영된 국가들의 불교관과 대중국관에 대한 분석은 鈴木中正의 논문(1964 「南海諸國から南朝の諸帝に送られた國書について」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p.336) 참조.

52) 배세청의 파견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왜국의 대외교가 성공한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거나, 수 양제가 고구려 정벌을 눈앞에 두고 일본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포섭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파견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 왕조의 전통적 外蕃 招撫策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연구사 검토는 박민경의 논문(2014 「6~7세기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pp.147~148) 참조.

53) 李成市, 198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p.299; 박민경, 2014 앞의 논문, pp.147~148.

한편 수와 왜국의 사신 파견 과정에서 일대 사건이 있었다. 『일본서기』에만 보이는⁵⁴⁾ 이른바 수 황제가 왜국에 보내는 ‘國書’를 백제가 탈취한 사건이다<사료 B-2 6월조>. 기존 연구에서는 왜국의 대수외교에 관심을 기울이던 백제의 소행 즉 실제 사건으로 보고, 대체로 백제와 왜국의 관계변화 측면에서 추정하고 있다.⁵⁵⁾ 과연 백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서를 탈취할 필요가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만약 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킨 이유를 들어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나 왜국에서 백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하지 않은 점 등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백제와 왜국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추고는 소야신매자를 유형에 처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그를 용서했다.

따라서 백제의 국서 탈취 사건은 다른 시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단 백제가 수의 국서를 탈취했다는 『일본서기』 기사 내용 자체가 모순이다. 왜냐하면 왜국에 도착한 배세청이 수 양제가 보낸 국서(조서)를 낭독하는 의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백제가 탈취했다고 한다면 수 양제가 두 개의 국서를 왜국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거나, 탈취된 것은 국서가 아니라 별도의 문서로 보거나 두 경우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 양제가 국서 외에도 소야신매자를 통해 왜국왕에게 별도의 문서를 보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전 사례이기는 하지만, 『宋書』나 『太平御覽』 등에 의하면 황제는 주변국의 조공사절단이 귀국할 때 문서행정이나 관행에 따라 국서와 별도로 ‘策書’ 또는 ‘勅書’를 내렸다.⁵⁶⁾ 책서·칙서는 조서 형식의 국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각각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의도하는 바도 달랐다.⁵⁷⁾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조서 형식의 의례적 용도의 국서(조서)는 배세청이 보관하고, 왜왕이나 신하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서가 별도로 왜국 사신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607년 수 황제가 ‘天子致書天子’ 국서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외교관례상 황제의 의지를 전하는 책서를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사료 C-1> 『수서』에 의하면 왜국은 600년에 처음으로 견수사를 파견했는데,⁵⁸⁾ 이때 수 황제는 왜국의 풍속과 정치운영

54)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9년 3월조에는 배세청이 백제의 南路를 통해 왜국으로 갔다는 내용만 나온다.

55) 任那복건 문제가 수와 왜국 간에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백제가 탈취했다는 견해(三品彰英, 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全集』, 平樂寺書店, pp.22~26), 왜국의 대수외교가 고구려의 전략하에 이루어졌으며, 백제는 그러한 왜국의 태도를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서를 탈취했다는 견해(이성시, 1990 「고구려와 일수외교」 『이우성정년기념논총』, pp.156~157; 박민경, 2014 앞의 논문, p.149), 왜의 독자적 대수외교 정책에 대한 백제의 강력한 경고의 표시(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pp.160~162; 박운선, 2009 앞의 논문, p.264)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제가 倭使國書を 탈취한 이유는 백제와 신라의 아막성전투 때 왜국이 약속과 다르게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시 수와 왜국은 각각의 실리를 위해 백제의 무례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서영교, 2013 「백제의 倭使國書 탈취사건」 『軍史』 86).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왜의 대등외교’를 인정하지 않는 수의 입장이 국서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 한 소야매자가 호도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라는 견해(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p.92)가 제기된 바 있다.

56) 『송서』 권97 열전 제57 夷蠻 呵羅單國條.

57) 양진성, 2015 앞의 논문, pp.18~23.

58) 『수서』 帝紀에는 왜국의 사신 파견에 관해 보이지 않지만, 『수서』 열전 동이 왜국조에서는 왜국이 600년에

방식을 듣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 고치도록 ‘訓諭’을 내렸다고 한다.⁵⁹⁾ 즉 황제의 훈령이 608년 책서의 내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내용은 추고의 입장에서 굴욕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⁶⁰⁾ 소문이 왜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蘇我馬子 등은 우려했을 것이다. 이후 소야신매자는 황제의 국서를 빼앗긴 죄를 범했음에도 배세청이 귀국할 때 제3차 견수사의 대사로 임명된다. 이를 보더라도 백제가 수의 국서를 탈취했다는 것은 왜국의 자작극에 불과하며, 왜국 지배층 차원에서 조용히 무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왜국은 120여 년만에 중국 통일왕조인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제도·지식·문물을 도입하고자 했다. 추고 대는 이전보다 정비된 빈례를 갖춰 수의 사신을 맞이했고, 왕궁에서 국서(조서)와 信物의 수납, 이후 향연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외교형식상 큰 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들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 황제로부터 받은 국서는 사실상 위로조서이고, 왜국이 수로 보낸 국서가 표문이 아닌 서장형식을 띤 문서라는 점, 국서 전달과정에서 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은 중국 및 삼국의 외교의례와 왜국의 기존 의례가 섞여 있었음을 말해준다. 즉 왜국이 수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안에 포함되어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신라의 送使외교와 왜국의 대외관계 변화

고구려와 수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던 610년 7월에 신라는 ‘임나사’와 함께 왜국에 사신을 파견했다.

<D> 18년(610) 가을 7월, 新羅의 사인 沙喙部 奈末 竹世士와 任那의 사인 喙部 大舍 首智 置가 筑紫에 도착하였다.

겨울 10월 기축삭 병신(8일)에 신라와 임나의 사인이 王京에 도착하였다. (중략) 이때에 大伴咋連과 蘇我豐浦蝦夷臣, 坂本糠手臣, 阿倍鳥子臣 등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뜰에 앉드렸다. 이에 양국의 객들이 각각 재배하고 사신의 취지를 주상하였다. (중략) 객이 영접하는 의례를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처음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왜국에 관한 내용 중에 왜국에서 603년이나 시작된 관위 12계제에 관한 설명이 보인다는 점에서 『수서』 왜국조의 600년 기사는 607년의 것을 나누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정효운, 1995 「推古時代와 遣隋使」 『日本歴史研究』 6; 1999 「遣隋使の派遣回数の再検討」 『立命館文學』 559). 이 시기 왜국의 견수사 파견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이해되고 있다(坂元義種, 1979 앞의 논문; 佐伯有清, 1986 「推古朝の對外政策と文化」 『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 雄山閣; 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외정책」 『신라문화』 24).

59) 600년 1차 견수사 파견 내용이 후대 『일본서기』에 실리지 않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서기』 편찬국에서 『송서』를 참고했음에도 왜국전의 이른바 ‘왜5왕’ 책봉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60)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 9월조에 의하면 신라가 당에 사신을 파견해서 對고구려·백제 전쟁을 위한 원군을 요청했을 때 황제는 선덕왕이 여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일본서기』 추고 18년 추7월 및 同 동10월조)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도착하자 왜국은 의례를 갖춰 맞이했는데, 당시 권력자인 蘇我馬子の 아들인 蝦夷가 주재했다.⁶¹⁾ 왜국의 對신라 외교노선이 우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⁶²⁾ 왜국은 대수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확인하고 또한 수에 유학생 등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의 폭을 확산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왜국은 국제정세의 동향에 따라 신라까지 포함한 다국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왜국은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신라와 610년에 우호관계를 수립한 후 선진문물의 창구를 신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611년 8월에도 ‘임나사’와 함께 사신을 파견해서⁶³⁾ 대외관계에 집중했다.

한편 614(추고22)년 6월에 왜국은 제4차 견수사인 犬上君御田鍬 등을 파견했다.⁶⁴⁾ 이들은 수와 고구려의 전쟁상황을 확인하고, 다음해 9월 백제를 거쳐 백제 사신과 함께 왜국으로 돌아갔다.⁶⁵⁾ 당시 왜국의 견수사 파견은 백제의 중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⁶⁶⁾ 그 목적은 왜국이 신라와 관계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한 견제책으로 여겨진다.⁶⁷⁾ 이 백제사신이 615년 11월 다시 백제로 돌아갈 때에 고구려 승려 혜자도 함께 돌아갔다. 『上宮聖德法王帝說』 등의 성덕태자 관련 전기에는 성덕태자가 쓴 經疏를 고구려에 널리 알리기 위해 귀국했다고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수의 침공을 막아낸 영양왕이 혜자에게 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귀국하도록 했을 것이다.⁶⁸⁾

616년(추고24) 7월 신라는 다시 奈末 竹世士를 파견하여 불상을 왜국에 보냈다.⁶⁹⁾ 신라 역시 왜국이 가장 관심을 갖던 불교문화의 전수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618년 8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를 물리친 사실을 알리면

61) 『일본서기』 추고 18년 7월조. 소야하이 이외에 大伴咋連과 阿部鳥子臣도 賓禮에 관여했는데, 이들은 수사 배세청으로부터 국서를 넘겨받은 인물들이다.

62) 平野邦雄, 1985 「倭と朝鮮三國の外交形式」 『大和前代政治過程の研究』, 吉川弘文館; 田島公, 1986 앞의 논문.

63) 『일본서기』 추고 19년 8월조.

64) 『일본서기』 추고 22년 6월조. 이때 견수사 파견기사는 중국측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국 사신이 隋末 혼란기에 파견되어 도성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측 기록에 남지 않게 됐거나 大業년간에 있었던 전란 중에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榎本淳一, 2011 『『隋書』倭國傳について』, 大山誠一編 『日本書紀の謎と聖德太子』, 平凡社, p.127). 한편 犬上君御田鍬가 수에 가지 못하고 백제에 머물다 귀국했다고 보기도 한다(氣賀澤保規, 2008 「遣隋使の見た隋の風景-開皇二十年の遣隋使の理解をめぐって」, 王維坤·宇野隆夫編 『古代東アジア交流の総合的研究』,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왜국의 견수사 파견 횟수와 연대에 대해서는 鄭孝雲의 논문(1999 앞의 논문)과 篠川賢의 논문(2001 「遣隋使の派遣回数とその年代」 『日本古代の王權と王統』, 吉川弘文館) 참조.

65) 『일본서기』 추고 23년 추9월조.

66) 이 시기 왜국의 견수사 파견 경로는 백제 경유의 복로로 추정되며, 『수서』 왜국조에서 배세청의 향로가 ‘백제로’(박현숙, 2018 「백제 사비시기 對倭外交와 使臣」 『신라사학보』 44, pp.123~12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왜국이나 수에서는 서남해 연안항로보다는 남해 사단항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67) 왜국의 견수사가 백제를 경유해서 귀국한 것에 대해서 國書 탈취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회복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노중국, 1994 앞의 논문, pp.162~167)와 왜국과 수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백제가 사신을 함께 보냈다는 견해(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2, pp.66~67)가 있다.

68) 김은숙, 2007, 앞의 논문, p.60. 견수사 파견을 계기로 왜국이 백제, 고구려 중심의 외교에서 신라와 수를 포함한 다면외교로 변화하여 혜자도 고구려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연민수, 1998 앞의 책, p.226).

69) 『일본서기』 추고 24년 추7월조.

서 포로 2명과 鼓吹, 弩 등의 무기 10종, 토산물과 낙타 1필을 보냈다.⁷⁰⁾ 수가 고구려에게 패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사실은 백제와 왜국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워 66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고구려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618년 수가 멸망하고 唐이 건국되자 삼국은 당에 사신을 파견했다. 신라는 621년 7월 처음 당에 사신을 파견했는데,⁷¹⁾ 신라의 견당사는 수에서 유학하던 왜국 학문승 惠齋, 惠光과 의사 惠日, 福因 등과 함께 귀국했다. 신라는 곧바로 奈末 伊彌買를 왜국으로 보내⁷²⁾ 진평왕의 국서를 전달하면서⁷³⁾ 당과 왜국과의 교류를 중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듯하다.

<E> 31년⁷⁴⁾(623) 가을 7월, 新羅가 대사 奈末 智洗爾를, 任那가 達率奈末 智를 파견하여 함께 내조하였다. 그리고 불상 1구 및 금탑과 사리를 바쳤다. 또 큰 觀頂幡 1구와 작은 번 12개를 바쳤다. 곧 불상은 葛野의 秦寺에 안치시켰다. 그 외 사리와 금탑·관정번 등은 모두 四天王寺에 봉납하였다. 이때 대당에 있던 학문승인 惠齋와 惠光 및 醫 惠日과 福因들이 모두 智洗爾를 따라 귀국하였다. 그리고 혜일 등이 함께 “당나라에 유학한 자들은 다 학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소환함이 좋을 것입니다. 또 大唐國은 법전과 의식이 정비된 훌륭한 나라입니다. 항상 통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일본서기』 추고 31년 추7월조)

왜국의 학문승과 유학생들은 2년간 신라에서 체류하다가 623년 7월이 되어서야 신라의 奈末 智洗爾와 임나의 奈末 智 등을 동반해서 귀국했다. 이때 신라는 불상과 金塔·舍利·幡·旗를 별도로 보내면서 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듯 당의 성립 후의 신라와 왜국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送使외교이다.⁷⁵⁾ 신라가 왜국의 학문승들을 신라배에 태워 귀국시킨 것은 이후 왜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7세기 전반 신라는 고구려·백제와 대립관계에 있었고, 대수외교를 통해 타개해 보고자 했다.⁷⁶⁾ 이때 신라는 왜국 사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삼국의 대립과 견제 속에서 왜국은 신라·당을 잇는 안전한 서남해 연안항로를 확보하게 되고, 신라와 당으로부터 선진문물의 수입도 용이하게 되었다.

신라의 송사외교는 舒明 때까지 이어진다. 630년에 왜국은 犬上君三田耜와 藥師惠日을 1차 견당사로 파견했다. 632년에는 학문승 靈雲 등이 신라의 송사를 따라 귀국했는데 이때

70) 『일본서기』 추고 26년 추8월조.

71)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43년 7월조.

72) 『일본서기』 추고 29년 시세조.

73) 『일본서기』(각주 72)에는 신라가 이때부터 ‘上表’를 보냈다는 편찬자의 의견이 추가되어 있다.

74) 岩崎本 『推古天皇紀』와 『書紀集解』의 고증에 따라 31년조를 30년조로 보기도 한다(정효운, 1994 앞의 논문, p.82).

75)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 90, p.86.

76) 594년 신라 진평왕이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된 후, 605년부터 615년까지 매년 사절을 보내고 있다(『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 신라조).

당은 高票仁도 함께 파견했다. 수의 배세청에 이은 두 번째 중국 사절이었다. 이러한 왜국의 견당사 파견은 623년 수에서 귀국한 학문승 惠日 등이 법식이 두루 정비된 당과 직접 교류를 가질 것과 당에 체재하고 있는 유학생과 학문승을 귀국시킬 것을 추고조정에 건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의하면 추고조정은 아직 신라와 어떻게 교섭해야 할지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 623년(추고31) 7월 수에서 유학했던 학문승들이 귀국한 직후, 조정 내에서는 임나를 빼앗아 백제에 속하게 하자는 강경파와 사신을 파견하여 사정을 알아보자는 온건파가 대립했다. 결국 온건파의 의견에 따라 신라와 임나에 吉士磐金과 倉下를 파견하여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F> 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이때 천황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대신들과 의논하고 군경들에게도 의견을 들었다. 田中臣은 “급하게 정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정을 살펴 반역인지 확인하고 난 후에 쳐도 늦지 않습니다. 청컨대 한 번 사자를 파견하여 그 사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中臣連國은 “임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內宦家입니다. 지금 신라인이 쳐서 소유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세를 정비하여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부속시켜야 합니다. 어찌 신라가 영유하게 할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전중신이 “옳지 않습니다. 백제는 반복이 많은 나라이고, 잠깐 사이에도 항상 속입니다. 무릇 저쪽이 청하는 바를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제에 부속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토는 중지하였다.

이에 吉士磐金を 신라에 파견하고, 吉士倉下를 임나에 파견하여 임나의 일(任那之事)에 대하여 묻게 하였다. 그때 신라국주가 8명의 대부를 파견하여 신라국의 사정을 반금에게 알리고, 또 임나국의 사정을 창하에게 알렸다. 그리고 “임나는 소국이지만 천황에 의탁한 나라이다. 어찌 신라가 경솔하게 영유하겠는가. 지금과 같이 내관가로 정하고 걱정말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奈末 智洗爾를 보내어 길사 반금을 따라가게 하고, 또 임나인 達率奈末 智에게 길사창하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의 調를 바쳤다.

그런데 반금 등이 아직 돌아가기도 전인 같은 해 大德 境部臣雄摩侶와 小德 中臣連國을 대장군으로 삼고, 소덕 河邊臣禰受와 소덕 物部依網連乙等, 소덕 波多臣廣庭, 소덕 近江脚身臣飯蓋, 소덕 平群臣宇志, 소덕 大伴連, 소덕 大宅臣軍 등을 부장군으로 삼아 수만의 군을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게 하였다. 그때 반금 등이 함께 항구에 모여서 배를 출발하려고 풍파의 형편을 살폈다. 이에 배와 군사가 바다에 가득 차게 들어오고 있었다. 양국의 사인은 멀리에서 바라보고 겁이 나서 되돌아가서 머물렀다. 한 번 더 堪遲大舍를 대신하여 任那의 調의 사자로 하여금 공상하였다. 이에 반금 등이 서로 “이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전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래서는 임나의 일은 이번에도 또한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배를 출발시켜 귀국하였다. 다만 장군들이 처음 임나에 도착해서 상의하여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국주는 군사가 많이 왔다는 말을 듣고 미리 겁이 나서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때에 장군들은 함께 의논하여 상표하였고, 천황도 허락하였다.

(『일본서기』 추고 31년 시세조)

위 기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신라가 임나를 병합한 것에 대해서 왜국 내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중반부는 왜국이 길사씨를 파견하여 사정을 조사하자 신라가 지세이 등을 파견하여 신라·임나의 조를 바쳤다고 한다. 앞의 추고 31년 추7월조 내용과 겹친다. 마지막 후반부는 사신이 돌아오기 전에 왜국에서 갑자기 군대를 파견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境部臣雄摩侶는 600년에도 신라공격의 장군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소아씨의 동족이며, 中臣連國은 <中臣氏系圖>에 의하면 中臣連鎌足(藤原鎌足)의 숙부이다. 이외의 河邊臣, 波多臣, 近江脚身臣, 平群臣氏도 武内宿禰의 후예씨족으로 소아씨와 동족이다. 物部連과 大伴連씨는 계체·흙명기에서 백제와 가야 관계에서 활약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듯 위 기사의 내용구성은 추고 8년(600) 춘2월조 및 同 시세조의 이른바 ‘신라원정’ 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사료 A-1~2>. 추고 8년 춘2월조는 ‘신라원정’의 발단을 이루는 부분으로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우기에 천황이 임나를 도우려고 했다는 것이며, 이 기사와 연결되는 시세조에는 경부신·수적신을 대·부장군으로 삼아 단행되는 신라 공격, 신라왕의 항복 및 다다라~아라라 등 6성의 할양, 難波吉士씨의 신라·임나파견, 신라·임나의 조공 및 복속맹세, 원정군의 귀환, 신라의 임나 공격 재연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원정의 발단이 신라의 임나 공격에 있는 점, 경부신을 필두로 한 원정군의 편성, 길사 집단의 신라·임나 파견과 양국의 복속 맹세 등 전체 줄거리는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위 기사에서는 소아씨와 동족 인물들과 계체·흙명기에 활약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신라의 임나 침략에 대한 왜국의 ‘신라원정’의 단행이라는 위의 내용이 조작 또는 干支의 소급 문제로 인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⁷⁷⁾ 두 기사 모두 ‘신라원정’의 발단이 되는 내용이 6세기 중반의 사실과 흡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소아씨 관련 인물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후술하겠지만 기사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서기』 신공~흙명기에 보이는 대외관계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⁷⁸⁾ 특히 두 기사가 모두 ‘是歲條’로 연결되고 있는데, 『일본서기』의 시세조 기사 가운데는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여러 전승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사료-F>에서 신라의 임나병합을 두고 왜국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위 기사에서 역사적 사실로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은 신라와 왜국이 서로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도로 파악된다.

77) 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pp.96~99; 정효운, 1995 『日本書紀』 批判序說 Ⅲ, 『부산사학』 29, p17.

78) 『일본서기』 신공~흙명기에 왜국 왕 및 유력씨족들의 활약상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른바 百濟三書가 이용된 것과 같은 편찬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박재용, 2009 『일본서기』의 편찬과 百濟 관련 문헌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이렇듯 왜국은 7세기 전반 수당의 출현과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교방침을 전환하여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추고조의 외교는 동아시아라는 문명세계로 향하고 있었고, 국내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국가와 교섭을 전개해 갔다. 이때 신라는 송사외교를 통해 이전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왜국과의 관계를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6. 신라의 ‘任那使’ 파견과 왜국의 ‘任那의 調’ 인식

『일본서기』 추고기에는 신라와 임나가 대립하는가 하면, 신라사와 ‘임나사’가 함께 왜국에 파견되기도 한다. 이때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멸망한 임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신라사와 함께 왜국에 파견된 임나사의 경우는 추고 18년(610) 7월 喙部 大舍 首智 賈, 추고 19년 8월 翳部 大舍 親智周智, 그리고 추고 31년(623) 7월 奈末 智와 같이 부명이나 관등, 인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듯 신라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이미 멸망한 임나의 사신을 대동하고, 그것도 그들이 모두 신라 왕경인이라는 점⁷⁹⁾을 보면, 임나사 관련 기록을 단순히 『일본서기』 편찬자의 조작으로 보기에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일본서기』 편찬자가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몇 차례에 걸쳐 신라 왕경인을 임나사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라의 임나사 파견이란 對倭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당시 왜국의 입장에서는 선진문물 수입을 위한 대외교통로 확보가 가장 큰 목표였고, 더불어 옛 금관가야 나아가 안라지역과 교역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이에 신라는 왜국과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나사, 즉 금관가야 출신 또는 그 후손들을 함께 외국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에서 승려 審希가 ‘任那의 왕족’이라고 한 기록과 『삼국사기』 強首列傳에서 沙梁部の 사람인 강수가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자신을 ‘任那加良人’이라고 강조한 사실은 비록 임나는 멸망했지만 임나 출신⁸¹⁾ 인물들이 신라의 부에 편적되고 관등을 부여받아 지배세력에 편입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관가야가 있었던 김해는 532년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이후 신라의 지방이었다.⁸²⁾ 김

79) 平野邦雄, 1972 「日本書紀にあらわれた古代朝鮮人名」 『續日本古代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pp.93~94; 金鉉球, 1985 앞의 책, p.251; 연민수, 1992 앞의 논문, p.13. 왜국에 온 임나사가 신라인(왕경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부명과 관등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80) 『일본서기』 민달 4년(575) 4월조와 추고 8년(600) 2월조 기사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왜국이 원하는 대상이 모두 대가야가 아닌 금관가야 혹은 안라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1) 승려 심희의 출신지가 금관가야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강수의 경우는 금관가야(김태식,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한국고대사논총』 6, pp.65~66) 혹은 대가야(신가영, 2013 「대가야 멸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72, pp.179~180)로 나뉘고 있다.

82) 김해는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병합된 이후 金官郡, 문무왕 20년(680)에 金海小京, 경덕왕 11년(752)에 金海京으로 행정명이 변경되었다.

구해(구형왕)가 신라에 항복한 이후에도 6세기 중후반까지는 금관가야의 유력세력들이 식읍 체제하에서 잔존해 있었다.⁸³⁾ 그러나 7세기에 들어와 김해지역은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의 변화로 인해 중앙의 직접지배를 받게 된다.⁸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해지역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신라사와 대등하게 왜국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김해지역 출신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신라 중앙이 이들을 대외외교에 적극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서기』에는 임나사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天武 2년(674) 추8월조에는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의 고구려는 익산 금마저에 있던 報德國을 가리킨다. 보덕국 사신이 筑紫까지 가는데 신라 韓奈末 김이익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또한 신라의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⁸⁵⁾ 이후 『일본서기』에는 보덕국의 사신 파견을 ‘고구려의 調’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고, 天智朝에 웅진도독부에서 사신을 보낸 경우는 ‘백제의 조’라고 표현하고 있다.⁸⁶⁾ 보덕국과 웅진도독부의 사신 파견 주체는 다르지만, 파견방식과 목적은 신라가 임나사를 보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일본서기』 임나사 기록은 편찬자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실제로 임나사를 표방한 인물들을 왜국에 파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백제의 옛 가야지역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신라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이해된다.⁸⁷⁾ 신라는 과거 금관가야와 왜국의 친연관계를 이용하여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백제나 고구려의 군사행동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신라의 외교방식이 왜국에 임나합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임나가 정치·외교의 주체로서 ‘임나의 조’를 바쳤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조’라는 용어는 『일본서기』의 주관적인 표현이며, 임나사와 ‘임나의 조’가 같은 기사에 나오는 경우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임나의 조’는 민달 4년(575) 6월 신라가 옛 금관가야 지역의 調를 바치는 것을 시작으로 大化 2년(646) 폐지되기 전까지 왜국이 계속 요구한다. ‘임나의 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가야 멸망 후 신라와 왜국관계 속에서 이해해 왔다.⁸⁸⁾ 이와

83) 이종욱, 1987 「신라시대 혈족집단」 『역사학보』 115.

84) 노중국, 1999 「신라시대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실시」 『한국고대사연구』 15. 고고학적으로는 7세기에 들어와 대금구를 통해 김해지역이 보다 더 체계화된 구조로 통치되었다는 견해(박성천, 2011 「6~7세기 신라의 김해지역에 대한 통치양상 -帶金具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8)가 참고된다.

85) 신라는 과거 고구려와 왜국의 친선 관계를 안승의 고구려국 즉 보덕국을 통하여 과거의 고구려-왜 관계를 親신라 노선을 토대로 한 신라-고구려-왜국관계로 전화시켜 신라에게 유리한 국제관계가 조성되도록 하였고 이해한 연구(이재석, 2010 「7세기 후반 報德國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pp.37~41)가 참조된다.

86) 『일본서기』 천지 10년(671) 2월조; 同 6월조.

87) 신라가 임나사와 함께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백제는 옛 가야지역의 신라성들을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결국 624년 백제는 속함성과 왕재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진주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pp.68~69). 신라는 이러한 백제의 진출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 왜국에 임나사를 대동한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88) 鬼頭清明, 1976 「推古朝の外交的特質」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本位田菊士, 1976 「吉土と任那の調」 『日本史研究』 168; 山尾幸久, 1977 「任那の調」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新書;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金鉉球, 1985 앞의 책; 西本昌弘, 1990 앞의 논문; 高寬敏, 1994 「任那の滅亡と任那の調」 『東アジア研究』 7.

는 다르게 관련 사료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통해 ‘임나의 조’ 기사 자체의 허구성을 입증하고자 했다.⁸⁹⁾ 최근에는 ‘임나의 조’의 실체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듯이,⁹⁰⁾ 그동안 ‘임나의 조’에 대한 인식과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사실 ‘임나의 조’를 둘러싼 왜국의 대응은 설화적이고, 이전 繼體 欽明紀의 임나 관련 내용과 유사하여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추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소아씨와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한반도의 사정을 사실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냥 무시하기가 어렵다. 기사의 사료적 성격이나 구성면을 보면 민달·송준기와 함께 難波吉士氏가 부각되고, 왕족이나 씨족들의 활동 또한 구체적이다. 天武紀와 같이 거의 인용자료에 대한 언급 없이 기사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⁹¹⁾ 이는 천무조 역사서 편찬 때 추고기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서기』 추고 28년(620) 시세조에는 “皇太子嶋大臣共議之 錄天皇記及國記 臣連伴造 國造百八十部并公民等本記”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성덕태자와 蘇我馬子가 일본 최초로 修史사업을 진행했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天皇記」는 「帝紀」와 같은 것으로 계보를 중심으로 한 역대 천황에 대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國記」는 각 씨족이 가지고 있는 家傳을 정리하여 통합한 것으로 氏族志나 姓氏錄과 같은 체재의 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⁹²⁾ 소아씨와 관련된 武內宿禰 전승 및 동족, 그리고 推古紀까지 보이는 많은 왜국내 씨족들에 대한 내용이 이 시기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고기에서 신라의 외교정책에 대응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왜국의 難波吉士氏 파견이다.⁹³⁾ 難波吉士氏는 草壁吉士氏 등으로도 불리웠고, 원래 출신은 일반적으로 가야로 보고 있다.⁹⁴⁾ 7세기 전후한 시기에 난파길사씨 인물들이 신라·임나와의 관계 속에서 활약하는 것은 그 출신지와 관계가 깊다. 민달 4년(575) 4월 吉士金子·吉士木蓮子·吉士譯語彦, 송준 4년(591) 11월 吉士金과 吉士木蓮子, 추고 8년(600) 難波吉士神과 難波吉士木蓮子, 추고 31년(623) 吉士磐金과 吉士倉下란 인물들이 보이는데, 이 시기는 소아마자가 大臣으로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난파길사씨가 대외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소

89) 연민수, 1992 앞의 논문; 정효운, 1994 앞의 논문.

90) 나행주, 2008 「‘임나의 조’의 실체와 의미」 『일본역사연구』 27; 2011 「왜국의 對한반도 정책」 『한일관계사연구』 40.

91) 佐佐木一紀는 推古·舒明紀의 대외관계사에 나오는 용어 등의 분석을 통해서 推古·舒明紀와 天武紀의 편찬자가 동일인 일 것으로 추정하였다(1983 「『日本書紀』の編纂過程に関する一試論 -推古·舒明紀の検討を通じて」 『日本歴史』 419).

92) 榎英一, 1972 「推古朝の『國記』について」 『日本史論叢』5, 日本史論叢會; 김은숙, 2002 「『古事記』·『日本書紀』의 편찬과정」 『강좌한국고대사』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편 「國記」를 臣連~本記와 별개로 국가적 차원의 기록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재석, 2019 「7세기 초 推古朝 修史의 제문제」 『한일관계사연구』 63).

93) 부여에서 쌍북리에서 발견된 ‘那余波連公’명 목간은 7세기 경 난파길사씨가 백제에도 파견되었음을 말해준다.

94) 本田田菊士, 1976 앞의 논문; 加藤謙吉, 2001, 『吉士と西漢氏』, 白水社, pp.84~87. 한편 三浦圭一(1957 「吉士について」 『日本史研究』 34)과 吉田晶(1982 『古代の難波』, 教育社, p.100)은 길사라는 명칭이 신라의 관위명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그 출신지를 신라로 추정했다. 그런데 吉士 중에는 백제계를 주장하는 씨족도 있었다.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右京條에는 백제사람 德率 吳伎側의 후예라는 ‘吳氏’가 보이는데, 이 오씨는 7세기 중엽에 건당대사로 활약하였던 吉士長丹에게 사성한 성씨이므로(『일본서기』 백지 5년 7월조) 길사 장단은 백제인 오기측의 후예가 된다. 따라서 길사 집단 중에는 백제 출신 씨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국은 한반도로부터 문물을 유입하던 창구였던 가야지역이 신라에 점령되자 교섭대상을 신라로 바꿔 문물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소아마자는 왜국 내에서 ‘임나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신라정책을 우호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라가 ‘임나사’를 파견한 사실이나 난파길사씨가 외교적으로 활약했던 사실이 추고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왜국의 무력에 의해 신라가 ‘임나의 조’를 바쳤다가, 마치 신라의 배신으로 원할하게 받지 못한 듯이 윤색되어 있다. 임나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난파길사씨 후손 가운데 천무 10년(681) ‘記定’사업에 참여한 難波連大形이 주목된다.⁹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정사업은 『일본서기』를 본격적으로 편찬하는 단계이다. 난파련대형은 上毛野君三千 등과 한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했다.⁹⁶⁾ 따라서 ‘임나의 조’ 관련기사는 난파련대형이 추고 대 소아마자 휘하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난파길사씨의 활약담을 추가하여 정리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서기』 편찬에 함께 참여했던 上毛野君三千이 신공기에서 자기 조상인 荒田別·鹿我別の 활동을 강조했듯이 난파련대형 또한 민달~추고기에 자기 씨족의 家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동국 지방의 蝦夷정벌군 씨족으로도 활약했던 상모야군씨가 ‘東國之調’⁹⁷⁾에 관여한 사실은 난파련대형이 ‘任那之調’를 특별히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서기』에서 ‘調’는 천황가의 사유민인 名代·子代에서 바치는 물품 즉 정치·군사적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바치는 조공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임나의 조’란 결국 천황의 지배하에 있던 임나지역에서 바치는 물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7세기 후반~8세기 대 일본이 大國이며, 한반도제국을 蕃國인 內官家로 간주하는 율령기 일본의 對韓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따라서 7세기 전반에 한반도제국이 외교의례상 보낸 물품을 『일본서기』에서는 상대 국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調로 위치지었던 것이다.⁹⁸⁾

난파련대형은 이러한 대외의식⁹⁹⁾에 기초해서 민달~추고기에 신라로부터 임나를 부흥시켜 ‘임나의 조’를 받음으로써 諸蕃을 통치했다는 천황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일본서기』에서 왜국이 임나부흥이나 ‘임나의 조’를 집요하게 요구한 시기는 흠명계 왕들과 그 외적인 소아씨 시대였다. 또한 난파길사씨의 활약상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요컨대 추고기 修史과정에서 임나의 부흥이 흠명계 왕들의 하나의 계승원리인 것처럼 자리잡았

95) 『일본서기』, 천무 10년 3월조.

96) 천무10년 ‘記定’ 사업에는 황족과 신하들 각각 6명씩 12명이 참여하였다. 황족으로는 川嶋皇子, 忍壁皇子, 廣瀨王, 竹田王, 桑田王, 三野王이며, 신하들은 大錦下上毛野君三千, 小錦中忌部連首, 小錦下阿曇連稻敷, 難波連大形, 大山下中臣連大嶋, 大山下平群臣子首가 참여하였다(『일본서기』 천무 10년 3월조).

97) ‘東國之調’라는 말은 『일본서기』 승준 5년 11월조도 보인다. 소아마자가 ‘오늘 東國之調를 올린다’고 여러 신하들을 속이고 승준을 살해한 사건이다.

98) 大町健, 2004 「東アジアの中の日本律令國家」 『日本史講座 2 律令國家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pp.231~238; 이재석, 2006 「日本古代國家의 自畫像과 他者像-『日本書紀』의 對韓觀을 소재로 하여-」 『일본역사연구』 24, pp.10~11.

99) 大寶令의 주석서인 ‘古記’에 의하면 “隣國은 唐이고, 蕃國은 신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8세기 『일본서기』 편찬단계의 인식이 7세기 대 對신라·임나관에도 투영되어 있다.

고, 『일본서기』 편찬과정에서 임나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부정관념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나의 조’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서기』에서 왜국이 그토록 한반도제국에 요구했던 ‘調’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서기』가 편찬되기 시작한 天武紀의 기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무 8년(679) 10월부터 同 10년에 걸쳐 신라가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가져온 것은 금, 은, 철, 정, 금, 견, 포, 불상 등 다양했다. 이러한 물품은 당시 왜국 중앙이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¹⁰⁰⁾ 즉 율령시기 조는 租庸과 함께 율령제하에서의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조용조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천황의 정치·군사적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이었다. 결국 한반도 삼국에서 오는 선진물품을 調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은·옥·비단 등은 관인들의 복식 및 장신구에 사용되었다. 금이나 철 등은 예전부터 가야나 신라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외에 추고조에 이르러 왕궁과 많은 불사가 조영된 사실을 주목하면 신라로부터 건축과 관련된 기술·재료 또는 불교관계 물품¹⁰¹⁾ 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천황 권력의 상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이 『일본서기』에서 이른바 ‘임나의 조’로 표현된 신라의 ‘信物’¹⁰²⁾과 같은 선진문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7. 맺음말

7세기 전반 왜국은 수의 출현에 따른 한반도 삼국의 정치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왜국을 상대로 신라를 견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왜국 또한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의 교섭에 적극 대응하면서 신라로부터 안전한 향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승려가 파견된 이후 왜국에서는 飛鳥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 조영은 물론 왕궁이 건립되었다. 특히 小墾田宮은 왕의 공간이자 儀禮행위의 공간으로서 이전의 왕궁들과는 달리 획기적이었다. 소간전궁에서는 여러 국가의례와 시책이 새롭게 행해졌는데, 隋의 거대한 왕궁과 장엄한 의례를 경험했던 고구려·백제 승려들의 견문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 변화였다.

이 시기 왕궁과 사찰에서는 대왕과 신하들의 統合儀禮가 이루어졌다. 왕궁과 사찰은 군신 간 맹약을 하는 무대로서 국가의 질서 및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

100) 『養老令』 賦役令의 調絹絶條에 의하면 “무릇 調라는 것은 絹, 系, 錦, 布 및 향토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향토의 특산물로는 금은, 주옥, 동철, 장막, 소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101) 新川登龜男, 1990 「新羅進調の思想像」 『日本史研究』 333; 나행주, 2020 「7세기 일본 견수 학문승의 활동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71, pp.72~73.

102) 『일본서기』에는 수와 당에서 사신과 함께 보내는 선물을 ‘信物’로 표기하고 있다(추고 16년 추8월조; 천무 원년 춘3월조).

올려 왜국은 여러 의례와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한편 왜국은 120여 년만에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고자 했다. 추고 대는 이전과는 다른 외교의례를 갖춰 수의 사신을 맞이했다. 그러나 수 황제로부터 받은 國書는 사실상 慰勞詔書였고, 이외에 별도로 ‘策書’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백제의 수 황제 국서 탈취 사건의 전말은 책서의 내용을 둘러싼 왜국 내 자작극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왜국이 수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안에 포함되어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왜국은 對隋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확인하고 대외관계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신라와 우호관계를 수립했다. 618년 당이 건국하자 신라는 送使외교를 통해 왜국과 당의 교류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당시 신라가 임나를 병합한 일에 대해서 왜국의 강경한 입장(신라 원정)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조작과 내용의 허구성은 사료비판을 통해 입증되며, 신라와 왜국이 서로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신라가 이미 멸망한 임나의 사신과 ‘임나의 조’를 보낸 기록이 보인다. 신라의 ‘임나사’는 부명과 관등을 통해서 볼 때 실제로 금관가야 출신 인물들을 신라사와 함께 왜국에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과거 금관가야와 왜국의 친연관계를 이용하여 대왜관계를 개선하고, 백제나 고구려의 군사행동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나의 조’는 『일본서기』 편찬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윤색되었다. 신라와 왜국의 대외교섭에서 활약한 難波吉士氏は 가야지역 출신으로 그 후손인 難波連大形이 『일본서기』 편찬에 참여했다. 난파련대형은 ‘추고 대 蘇我氏 휘하에서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기 씨족의 활약담을 추가하여 임나의 조’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7세기 후반~8세기 대 일본이 大國이며, 한반도제국을 蕃國인 內官家로 간주하는 율령기 일본의 對韓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결국 ‘임나의 조’란 『일본서기』에서 만들어 낸 산물이며, 그 실체는 신라의 ‘信物’과 같은 선진문물이었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17 「고대 일본의 對新羅關係와 신라의 국서문제」 『한국사연구』 179, 한국사연구회
-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 김은숙, 1992 「『일본서기』의 ‘任那’기사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 시민강좌』11, 일조각
- 2002 「『古事記』·『日本書紀』의 편찬과정」 『강좌한국고대사』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 김태식,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한국고대사논총』 6
- 金鉉球, 1985 『大和政權對の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 나행주, 2008 「‘임나의 조’의 실체와 의미」 『일본역사연구』 27; 2011 「왜국의 對한반도 정책」 『한일관계사연구』 40
- 나행주, 2020 「7세기 일본 견수 학문승의 활동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71
-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 1999 「신라시대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실시」 『한국고대사연구』 15
- 문안식, 2015 「백제의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사학연구』 119
- 박민경, 2014 「6~7세기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박성천, 2011 「6~7세기 신라의 김해지역에 대한 통치양상 -帶金具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8
- 박윤선, 2009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53
- 박재용, 2017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 2017 「백제의 對倭교섭과 항로」 『백제학보』 19
- 2024 「고대 일본의 왕궁과 공산성」 『고대 왕성의 공간과 공산성』, 공주대박물관
- 박현숙, 2018 「백제 사비시기 對倭外交와 使臣」 『신라사학보』 44
- 백미선, 2010 「사비시대 백제의 대외 불교 교류와 慧聰」 『한국사상사학』 34
- 서영교, 2013 「백제의 倭使國書 탈취사건」 『軍史』 86
- 신가영, 2013 「대가야 멸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72
- 양진성, 2015 「南朝時期的 文書行政에 관한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연민수, 1992 「日本書紀의<任那의調>關係記事의檢討」 『九州史學』 105
- 1994 「日本古代國家形成期の對外關係研究」, 九州大學 博士學位論文
-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 24

- 2007 「6~7세기 고구려의 對倭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 이재석, 2006 「日本古代國家의 自畫像과 他者像-『日本書紀』의 對韓觀을 소재로 하여-」 『일본역사연구』 24
- 2010 「7세기 후반 報德國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 2014 「5~6세기 백제의 對왜국 외교의 추이과 그 유형」 『백제문화』 50
- 2019 「7세기 초 推古朝 修史의 제문제」 『한일관계사연구』 63
- 이종욱, 1987 「신라시대 혈족집단」 『역사학보』 115
- 임동민, 2022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진, 2017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왜계 고분과 왜5왕의 중국 견사」 『백제문화』 56
- 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2
- 정효운, 1994 「『日本書紀』 批判序說 I」 『한일관계사연구』 2
- 1995 「『日本書紀』 批判序說 III」 『부산사학』 29
- 1995 「推古時代와 遣隋使」 『日本歴史研究』 6
- 1995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學研文化社
- 1999 「遣隋使の派遣回数の再検討」 『立命館文學』 559
- 2007 「왜국으로의 문화전파」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0 『백제의 문물교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加藤謙吉, 2001, 『吉士と西漢氏』, 白水社
- 榎本淳一, 2011 「『隋書』倭國傳について」 大山誠一編 『日本書紀の謎と聖徳太子』, 平凡社
- 榎英一, 1972 「推古朝の『國記』について」 『日本史論叢』5, 日本史論叢會
- 高寛敏, 1994 「任那の滅亡と任那の調」 『東アジア研究』 7
- 2000 「倭隋外交をめぐる諸問題」 『東アジア研究』 29
- 古市晃, 2009 「君臣統合における佛教の意義」 『日本古代王權の支配原理』, 塙書房
- 堀敏一, 1998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契」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 堀裕, 2024 「東アジア王宮内佛教施設の比較研究」 『東アジアの王宮・王都と佛教』, 勉誠社
- 鬼頭清明, 1976 「推古朝の外交的特質」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 近藤浩一, 2013 「百濟·威德王の寺院建立と孝思想」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18
- 氣賀澤保規, 2008 「遣隋使の見た隋の風景-‘開皇二十年の遣隋使’の理解をめぐる」 王維坤·宇野隆夫編 『古代東アジア交流の總合的研究』,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 吉田晶, 1982 『古代の難波』, 教育社
- 大町健, 2004 「東アジアの中の日本律令國家」 『日本史講座 2 律令國家の展開』, 東京大出版會
- 黨弘道, 2012 『古代を考える蘇我氏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 東野治之, 1992 「日出處·日本·ワークワーク」 『遣唐使と正倉院』, 岩波書店

- 2020 「ヤマトから日本へー古代國家の成立」『出雲と大和』, 東京國立博物館
-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國史學』119
- 鈴木中正, 1964 「南海諸國から南朝の諸帝に送られた國書について」『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網伸也, 2024 「古代日本の王宮空間と佛教受容」『東アジア都城と宗教空間』,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本位田菊士, 1976 「吉士と任那の調」『日本史研究』168
- 木下正史, 1987 「地中に眠る宮と寺」『古代を考える飛鳥』, 吉川弘文館
- 山尾幸久, 1977 「任那の調」『日本國家の形成』, 岩波新書
- 森公章, 1998 『白村江以後-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講談社
-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 三浦圭一, 1957 「吉士について」『日本史研究』34
- 三品彰英, 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 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世界」『岩波講座 日本歴史』2, 岩波書店
-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 1987 「遣隋使國書問題」『學士會會報』776
- 2002 「遣隋使と國書」『西嶋定生東アジア論集』3, 岩波書店
- 西本昌弘, 1990 「倭王權と任那の調」『ヒストリア』129
-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 新川登龜男, 1990 「新羅進調の思想像」『日本史研究』333
- 李成市, 198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思想』795
- 1990 「고구려와 일수외교」『이우성정년기념논총』
- 仁藤敦史, 1998 「古代における宮の成立と發展」『古代王權と都城』, 吉川弘文館
- 田島公, 1986 「外交と儀禮」『古代の日本』7, 中央公論社
-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朝鮮學報』90
- 篠川賢, 2001 「遣隋使の派遣回数とその年代」『日本古代の王權と王統』, 吉川弘文館
- 佐藤信, 1998 「古代宮都と寺院」『年報都市史研究』6, 都市史研究會
- 佐伯有清, 1986 「推古朝の對外政策と文化」『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 雄山閣
- 佐佐木一紀, 1983 「『日本書紀』の編纂過程に関する一試論 -推古・舒明紀の検討を通じて」『日本歴史』419
- 中村裕一, 1991, 「慰勞詔書と'致書'文書」『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 志田淳一, 1971 『古代氏族の性格と傳承』, 熊山閣
- 清武雄二, 1995 「ヤマト王權の佛教受容と外交政策」『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27

- 坂元義種, 1979 「推古朝の外交-とくに隋との関係を中心に」『歴史と人物』100
- 平野邦雄, 1972 「日本書紀にあらわれた古代朝鮮人名」『續日本古代史論集』上, 吉川弘文館
- 1985 「倭と朝鮮三國の外交形式」『大和前代政治過程の研究』, 吉川弘文館

「7세기 전반 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의 변화 -推古朝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효운(동의대학교 명예교수)

본 논문은 7세기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推古朝의 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를 검토한 것으로 이 시기의 논점이 되는 많은 대내외 문제들과 동아시아 각국의 동향에 대해 『日本書紀』의 사료 분석을 통해 잘 정리하였다고 생각된다.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일본고대사에서 추고조의 의의는 대내 정치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불교의 정착과 확산, 조정의 의식과 외교사절 영빈의 禮의 정비, 爵의 질서인 12관등제 등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체제의 이념으로서의 유교의 禮制를 도입, 「天皇記」와 「國記」 등의 편찬을 통해 국가기구 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외 정치에서는 대수외교를 추진하여 120여년 만에 중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통한 문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고기는 고대한일관계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720년 대의 『일본서기』 편찬기에 있어서의 임의적 시대구분을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대 구분	천황 시기	주요 대외관계국	주된 대외적 문제
고대	神功紀	임나, 신라, 백제	임나
중세	繼體, 欽明紀	임나, 백제, 신라, 고구려	임나부흥
근세	推古紀	수, 당, 백제, 신라, 고구려, 임나	대수외교, 임나부흥
근대	齊明, 天智紀	당,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부흥
현대	天武, 持統紀	당, 신라	대신라외교

한편, 추고기는 이전 시기의 자료들과는 달리 『隋書』와 같은 비교 가능한 주변국의 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료의 신빙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국내문제에 있어서 17조 헌법과 같이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후대 추기의 가능성이 높은 사료의 존재라든지,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한 임나 문제로 야기된 대신라정벌계획과 이를 둘러싼 왜조정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존재의 주장, 이와 연동된 ‘임나조’ 등의 문제는 관점과 주장의 차이로 이해할 성격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기록이기 때문에 관련 사료 자체의 신뢰성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7세기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역사의 흐름은 수, 당제국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당제국의 팽창정책에 따른 한반도 삼국과 왜국의 국내외 정세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고기의 국내외 정세의 파악은 이러한 동아시아사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고조 사료를 분석, 연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20년에 편찬된 『日本書紀』는 1145년과 1281년에 편찬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비해 한국고대사와 고대한일관계사를 복원할 수 있는 1차적 사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접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사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불일치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상이한 학설이 많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나일본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임나일본부의 존재는 6세기 중반의 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존재한 왜왕권의 기관이나 사신 단체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역사인식의 오류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推古 8년(600) 2월 조의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新羅與任那相攻.)”란 기사와 추고 30년 조(622)의 “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라는 임나 관련 기사의 존재로 인해, 532년(임나 멸망)과 562년(가라 멸망)에 신라에 의해 각각 멸망된 임나국과 가라국이 7세기 초반까지의 추고시기까지 존재한 국가인 양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황	기년	임나 ‘부흥[建]’ 관련 기사의 용례	
繼體 천황	21년(527) 6월	近江毛野郡이 6만을 거느리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南加羅와 曷己吞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23년 3월 동월	근강모야신을 안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신라에 천황의 칙을 전하여 남가라와 탁기탄을 재건토록 권하였다.	
宣化 천황	2년(537) 10월	천황은 신라가 任那를 침략하였으므로 대만금촌대령에게 명하여 그 마를 轄과 狹手彦을 보내 임나를 돕게 하였다. ... 협수연은 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또 백제를 구원하였다.	
60년	2년(541) 4월	일본 천황이 조를 내린 바는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지금 천황이 조를 내려 ‘속히 임나를 세워라’라고 명하였다.	
	2년(541) 7월	천황의 칙을 받들어 임나를 세워야 한다. 천황을 믿고 받들어 임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찌 이룰 수 있는가?	
	4년(543) 11월	그대는 두차 표를 돌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그대가 만일 속히 임나를 세우면 해내적 등은 자연히 물러날 것이다.	
	4년(543) 12월	임나를 세우라는 조칙은 속히 받들어야 합니다. 해내적, 미나사, 마도 등이 계속 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임나를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欽明 천황	5년(544) 정월	백제는 임나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하였다.
		5년(544) 2월	일본부의 경과 임나의 한기 등에게 “무릇 임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천황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大正은 임나를 세우려는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5년(544) 3월	그대들은 거기에 있는 일본부와 함께 좋은 계책을 내어 하루빨리 임나를 세워라. 적신 등이 안라에 있으면 임나는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5년(544) 11월	(천황이) 조를 내려 “빨리 임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였다. 천황이 임나를 세우라는 조를 내리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23년(562) 정월	신라가 임나편가를 쳐서 멸하였다.
		32년(571) 4월	너는 반드시 신라를 쳐서 임나를 세워라. 60년(壬午)
敏達 천황	4년(575) 2월	천황은 신라가 任那를 세우지 않으므로, 황자와 大正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14년(585) 3월	천황은 임나를 세우고자 하여 田耳子王을 차출하여 사신으로 삼았다.	
崇峻 천황	4년(591) 8월	朕은 임나를 세우려고 생각한다. 임나의 冢家를 세우는 것은, 모두 폐하의 명하신 바와 뜻을 같이 합니다.	
推古 천황	8년(600) 2월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 천황이 임나를 구하려고 하였다.	
	30년(622)	임나가 신라에 복종하였다.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잘못 이해,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일본서기』의 사료에 대한 사료 비판적 관점의 소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2세기 『삼국사기』가 신라계 고려인에 의해 편찬된 사료라는 인식과 8세기 『일본서기』가 망명 백제계 후손에 의한 편찬 사료라는 비판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加耶(伽倻)’라는 표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시기부터 사용된 고려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국명이고, 그 이전의 사료와 자료에서는 ‘任那’와 ‘加羅’로 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가야, 가야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근대 역사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 즉,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 지향 중심으로의 국가 속에서의 연구자의 입장과 한계로 인해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사의 사료적 비판은 소홀히 한 채 이를 역사적 사실로서 고증하고자 하였던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4세기대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 왜 관련 기사를 『일본서기』의 6세기대의 ‘임나일본부’ 기사와 연관시켜 해석을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배경에는 역사가의 역사 연구가 학문, 자연, 혈연 다시 말해, 선행연구와 국가, 민족이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결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종래 고대한일관계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임나일본부’ 문제의 해석에 있어, 이를 왜의 출생기 관으로 해석한다든지 임나를 일본열도의 분국으로 해석하려 하였던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시대적 입장과 한계성이 반영된 결과 가야사와 임나사라는 듀얼리즘의 인식을 만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고기의 대외사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추고 8년(600)과 30년(622) 조의 임나 관련 기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推古 8년(600) 봄 2월에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 [八年 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천황이 임나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경부신(境部臣)을 대장군으로 삼고 수적신(穗積臣)을 부장군으로 삼았다[모두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치려 하였다. 이에 즉시 신라를 목표로 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그리고 신라에 이르러 5성을 공략하였다. 이에 신라왕은 두려워하여 백기를 들고 장군의 휘하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다라(多多羅), 소나라(素奈羅), 불지귀(弗知鬼), 위태(委陀), 남가라(南迦羅), 아라라(阿羅羅)의 6성을 할양하고 항복을 청하였다. 이때 장군은 함께 의논하여 “신라는 죄를 깨닫고 항복하였다. 구태여 공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사유를 주상하였다. 이에 천황은 다시 난파길사 신(神)을 신라에 파견하고 난파길사 목련자(木蓮子)를 임나에 파견하여 각각 사정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신라와 임나왕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그리고 상표문을 올려 “천상에는 신이 있고 지상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을 제외하면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부터 이후로는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배의 키(舵)가 마를 사이도 없이 해마다 반드시 조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사자를 보내어 장군을 소환하였다. 장군들이 신라에서 돌아오자 곧 신라는 또 임나를 침공하였다.

推古 31년 [623] → 30년[622]의 오기
 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조건문

이때 천황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대신과 의논하고 군경에게도 의견을 들었다. 전중신[田中臣]은 “급하게 정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정을 살펴 반역인지 확인하고 난 후에 쳐도 늦지 않습니다. 청컨대 한 번 사자를 파견하여 그 사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중신련국[中臣連國]은 “임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내관가[內官家]입니다. 지금 신라인이 쳐서 소유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세를 정비하여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어찌 신라가 영유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전중신이 “옳지 않습니다. 백제는 반복[反復]이 많은 나라이고, 잠깐 사이에도 항상 속입니다. 무릇 저쪽이 청하는 바를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제에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토는 중지하였다.

이들 양 기사는 8년의 “新羅與任那相攻.”과 30년의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이란 역사적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이어지는 추가 설명문이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 조건의 검증은 도외시 한 채 추가 설명문에 의거하여 ‘임나조’라든지 ‘왜조정 내의 강경파, 온건파’ 문제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보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역사는 사료에서 출발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사료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료 비판과 고증작업은 필수적이다. 사료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함께 다른 주변 사료들과의 비교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고조 기록도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6세기의 임나문제가 7세기 추고기까지 『일본서기』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들 기사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둘째, 7세기의 ‘임나조’ 문제는 이 시기까지 ‘임나’가 존재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셋째, 결국 논의의 핵심은 추고 8년(600)과 30년(622)의 임나 관련 기사에 있다고 보는데, 이들 기사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10쪽에 “왜국은 607년에 수에 사신과 승려 수십 인을 파견했다. 제2차 견수사 파견이다.”라고 했는데, 발표자께서는 『隋書』倭國傳의 開皇 20년(600) 기사를 1차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서기』에는 왜 그렇게 중요한 1차 견수사 기록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日本書紀』孝德紀에 보이는 倭國의 대외 관계

- 韓半島諸國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홍성화(건국대학교)

- I. 머리말
- II. 6세기말~7세기초 倭國의 多面 외교
- III. ‘乙巳의 變’과 倭國의 대외 관계
- IV. 孝德朝의 대외 관계
- V. 大化改新과 개신정권의 실상
- VI. 맺음말

I. 머리말

7세기 전반기의 동아시아는 정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642년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영류왕 및 귀족 180여명을 살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정변이 있었으며, 백제에서는 의자왕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있었다. 또한 647년 신라에서는 비담이 선덕여왕의 폐위를 주장하면서 거병했지만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 진압되면서 진덕여왕이 옹립되는 사건이 있었다.

倭國 또한 645년 6월 蘇我氏 本宗家を 제거한 ‘乙巳의 變’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乙巳의 變’을 통해 등장한 개신정권은 皇極이 남동생인 孝德에게 양위를 한 첫 사례를 장식하면서 이후에는 일련의 정치개혁인 大化改新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乙巳의 變’과 관련하여 『日本書紀』에서는 古人大兄이 “韓人이 鞍作臣을 죽였다”라고 했던 기록을 전하면서 ‘韓政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分註를 달고 있다.¹⁾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韓人을 中臣鎌足으로 보는 설²⁾ 또는 韓政을 蘇我入鹿이 三韓의 표문을 낭독했던 의식 중에 살해되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한 설³⁾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통설은 『日本書紀』에 쓰인 韓政이라는 것을 대외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시 『日本書紀』 孝德紀에 보이는 대외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4年 6月 戊申

韓人殺鞍作臣【謂因韓政而誅】

2) 植垣節也, 「藤原鎌足の出自について」, 『日本歴史』296, 1973

3) 森公章, 「倭国から日本へ」, 『倭国から日本へ』 日本の時代史3, 吉川弘文館, 2002

그동안 孝德朝의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등거리, 균형 외교로 평가하는 견해와 친백제노선과 친신라노선의 대립 외교로 평가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등거리, 균형 외교의 견해에는 당과의 통교를 요구하고 신라와의 우호를 중시하면서 백제, 신라에 대해 宗主的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설,⁴⁾ 백제, 신라와의 공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등거리외교로 이해하는 설,⁵⁾ 기존 친백제 노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친신라, 친당책으로 파악하는 설,⁶⁾ 고구려와의 수호를 확인하고 백제에 任那의 調를 요구했으며 신라에는 任那의 調 폐지를 통지하는 등 642년의 외교 정책을 계승했다고 보는 설,⁷⁾ 종래의 균형 외교를 답습한 것으로 이해하는 설⁸⁾ 등이 있다.

또한 친백제노선과 친신라노선의 대립 외교로 평가하는 견해로는 蘇我氏 주도의 친백제계 노선에서 中大兄에 의해 친신라노선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설,⁹⁾ 皇極에 의한 친신라적인 방식과 孝德에 의한 친백제적 방식의 이원적 분열 외교로 보는 설,¹⁰⁾ 高向玄理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신라파와 巨勢德陀古를 중심으로 하는 친백제파의 대립이라는 이면적 외교로 파악하는 설,¹¹⁾ 大化 연간 일본, 신라, 당의 삼국연합 체계로부터 白雉 연간 신라, 백제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전환했다고 보는 설¹²⁾ 등이 있다.

이와 같이 孝德朝 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왜국의 전반적인 대외 관계의 흐름을 개관하기 위해 6세기 말~7세기초에 걸친 왜국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면서 ‘乙巳의 變’을 전후로 한 시기와 孝德 시기의 대외 관계가 어떠한 변화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한 연후에 개신정권의 실상과 당시 정세 변화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II. 6세기말~7세기초 倭國의 多面 외교

4~6세기에 걸쳐 왜국의 주요 외교 대상이 백제였던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¹³⁾

4) 井上光貞,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2, 1975

5) 鬼頭清明, 「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と日本」,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6) 鈴木靖民, 「七世紀東アジアの争乱と変革」,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新版古代の日本2, 角川書店, 1992 ; 延敏洙, 「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 전투까지」, 『日本歴史研究』6, 1997 ;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 羅幸柱, 「大化改新政權의 대외정책 : 「質」의 관점에서 본 종래설 비판」, 『日本歴史研究』12, 2000

7) 西本昌弘, 「東アジアの動乱と大化改新」, 『日本歴史』468, 1987

8) 森公章, 「東アジアの動乱と倭國」, 『戦争の日本史』1, 吉川弘文館, 2006

9)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10) 八木充,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1986 ;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11) 鈴木英夫, 「七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対倭外交」, 『國學院雜誌』81-10, 1980 ;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996

12)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 李在碩, 「孝德朝權力鬭争の國際的契機 - 東アジアの政勢と飛鳥遷都論 -」, 『律令國家史論集』, 塙書房, 2010a

13)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1993 ; 徐甫京, 『日本書紀』한반도 관계 기사

그러나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에 승리하고 562년 신라가 대가야를 장악하자 왜국의 대외 관계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日本書紀』에 의하면 欽明 21년(560년) 신라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기사를 시작으로 하여 왜국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는 신라가 남하하는 고구려는 물론이고 백제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배후에 있는 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관계 단절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왜국의 경우도 그동안 백제가 제공해 주었던 선진문물을 이제는 가야 지역을 거점으로 한 신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¹⁴⁾

아무튼 『日本書紀』를 통해서는 欽明 21년부터 敏達朝 사이에 신라가 야마토 정권에 11회로 가장 많은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라가 왜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도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는 기록이 『日本書紀』 欽明 31년(570년)과 敏達 2년(573년), 3년(574년)에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였던 신라의 군사적 발흥과 더불어 560년대부터 시작되는 신라의 대중국 외교에 위협을 느끼고 왜국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하지만, 외교 시도의 와중에 고구려 사신의 표착, 파선, 익사, 조난 등 해상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일본 열도로 가는 해상 루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1차적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572년 왜국 내에서 고구려 대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573년 7월 송환되던 고구려 사신 2명이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왜국과 고구려의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아직 야마토 정권 내에서 고구려와의 통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기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⁶⁾

(표1) 『日本書紀』 내 韓半島諸國과 倭國 간 使臣 등 파견 기록 (欽明21년~敏達)

	백제	고구려	신라	왜	비고
560년 9월			彌至己知 奈末		
561년			久禮叱 及伐干		
561년			奴氏 大舍		
562년 7월			使臣		

검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성화,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日本書紀』 내 倭의 韓半島 파병과 百濟·倭의 인적교류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36, 2010 ; 『칠지도와 일본서기-4~6세기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21 ; 이재석, 「백제의 가야 진출과 倭國-소위 '397년 체제'의 성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29, 2011

14) 洪性和, 「『日本書紀』 繼體 欽明紀에 보이는 新羅와 倭의 관계」, 『韓日關係史研究』54, 2016 ; 『칠지도와 일본서기-4~6세기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21

15)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 國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 『思想』795, 1990

16) 이와 관련해서는 고구려와의 통교에 반대하는 백제계 渡倭人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홍성화, 「6세기 후반 한일 해역에서의 재난과 교류-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59, 2020 참조

562년 7월					紀男麻呂宿禰, 河邊臣瓊缶 등 신라 공격
562년 11월			使臣		
565년 5월		頭霧唎耶陞 투화			
570년 4월		使臣 표작			
571년 3월				坂田耳子郎君을 신라에 보냄	
571년 8월			조문사 未叱子失消		
573년 5월		使臣		고구려에 사신 보냄	
574년 5월		使臣			
574년 11월			使臣		
575년 2월	使臣				
575년 4월				吉士金子 신라에, 吉士 木蓮子 임나에, 吉士 譯語彦 백제에 보냄	
575년 6월			使臣		
577년 5월				大別王, 小黑吉士 백제에 보냄	
579년 10월			枳叱政 奈末		
580년 6월			安刀 奈末·失消 奈末		
582년 10월			安刀 奈末과 失消 奈末		
583년 7월				紀國造押勝, 吉備海部直羽嶋 백제에 보냄	
583년	達率 日羅				
584년 2월				難波吉士 木蓮子 신라에 보냄	
584년 9월				鹿深臣, 佐伯連 백제로부터 귀국	

고구려의 경우는 推古朝에 들어와 영양왕 6년(595년) 慧慈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로써 고구려는 승려를 통한 왜국과의 통교가 시작된다.¹⁷⁾

(표2)를 통해 『日本書紀』 推古紀에 보이는 韓半島諸國과의 사신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로 다변화되고 있는 왜국의 외교 상황을 자세하게 고찰할 수 있다.

이는 6세기 후반 중국의 南朝가 멸망하고 화북지방으로 통합이 되면서 신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한 결과 야마토 정권은 선진문물의 통로를 개선하기 위해 신라와 고구려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다만 이들 기사 중에는 推古 8년(600년) 是歲條와 推古 31년(623년) 是歲條에 신라를 정벌하는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이 내용은 推古朝의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없으며 6세기 후

17) 坂元義種, 「推古朝の外交 - とくに隋との關係を中心に -」, 『歴史と人物』100, 1979

18) 金鉉球, 앞의 책, 1985, pp.301-316

반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는 당시의 상황이 윤색되어 착종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그렇다고 한다면 推古朝에서는 왜국과 신라와의 관계가 점차 증대되면서 616년 奈末 竹世士가 佛像을 보내고 623년 奈末 智洗爾가 불상 1구 및 금탑과 사리를 전하는 등 불교를 통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백제에서는 推古 5년(597년) 왕자 阿佐의 파견과 推古 3년(595년) 慧聰, 推古 10년(602년) 觀勒의 파견 등이 보인다. 이는 기존 백제와 왜 왕실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불교를 통한 대외 교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왜국이 직접 遣隋使를 보냄으로써 중국 대륙과도 통교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또한 학생과 학문승의 파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왜국의 선진문물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그런데, 隋의 사신 裴世清과 동행한 遣隋使 일행은 백제를 경유하여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推古 23년(615년) 9월조에도 遣隋使 犬上君御田鍬이 귀국할 때 백제 사신이 같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야마토 정권의 친백제 노선이 반영된 것이며 隋에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¹⁾

이 시기에 주목되는 변화는 신라와의 교류인데, 推古 31년(623년) 7월 중국에서 학문을 닦던 惠齋·惠光 및 醫 惠日·福因 등이 모두 신라의 사신 智洗爾 등을 따라 귀국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종래 隋와의 관계는 백제 경유가 기본이었지만 唐 성립 이후 신라를 창구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이다.²²⁾

따라서 推古朝부터는 전통적인 친백제노선의 기초는 유지한 채 신라, 고구려, 隋의 관계 등 多面 외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2) 『日本書紀』 내 韓半島諸國과 倭國 간 使臣 등 파견 기록 (推古)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	왜	비고
595년 5월		慧慈				
595년 是歲	慧聰					
597년 4월	阿佐					
597년 11월					吉士 磐金を 신라에 보냄	
598년 4월					難波吉士 磐금이 귀국	
598년 8월			使臣			
599년 9월	使臣					

19) 鄭孝雲, 「《日本書紀》批判序說 I - 推古8,30년조의 ‘임나의조’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2, 1994 :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1995, pp.125-133 ; 延敏洙, 「日本書紀의 「任那의調」關係記事의檢討」, 『九州史學』105, 1992 ;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pp.322-332

20) 遣隋使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坂元義種, 앞의 논문, pp.49-50 ; 鄭孝雲, 「遣隋使의派遣回數의再檢討」, 『立命館文學』559, 1999 ; 나행주,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 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 『史叢』99, 2020 참조

21)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p.66

22) 仁藤敦史, 「孝德期の對外關係」,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上, 제이앤씨, 2010, p.153

600년 是歲			使臣	使臣	難波吉師神 신라에, 難波吉士 木蓮子 任 那에 보냄	境部臣, 穗積 臣 신라 공격
601년 3월					大伴連嚙을 고려에, 坂本臣糠手を 백제 에 보냄	
602년 6월					大伴連嚙·坂本臣糠 手が 백제로부터 도 착	
602년 10월	觀勒					
602년 윤10월		僧隆·雲聰				
605년 4월		황금 300兩				
607년 7월						견수사 小野 臣妹子 파견
608년 4월						裴世淸 筑紫 도착, 小野臣 妹子와 함께
608년 9월						裴世淸 귀국 시 小野臣妹 子 등 파견
610년 3월		曇徵·法定				
610년 7월			奈末 竹世 士	大舍 首 智買		
611년 8월			奈末 北叱 智	大舍 親 智周智		
612년 是歲	路子工, 味 摩之 귀화					
614년 9월						견수사 犬上 君御田鍬 파 견
615년 9월	使臣					견수사 犬上 君御田鍬, 矢 田部造 함께
616년 7월			奈末 竹世 士			
618년 8월		使臣				
621년 是歲			奈末 伊彌 買			
623년 7월			奈末 智洗 爾	達率 奈 末智		당에서 惠齋· 惠光·惠日·福 因 등 智洗爾 와 함께 귀국
623년 是歲					吉士 磐金を 新羅에, 吉士 倉下를 任那에 보냄	境部臣 雄摩侶 등 신라정벌
623년 11월					磐金·倉下 등 新羅에 서 귀국	
625년 정월		惠灌				

Ⅲ. ‘乙巳의 變’과 倭國의 대외 관계

舒明이 즉위한 이후 『日本書紀』에는 舒明 2년(630년) 3월 고구려가 대사 曇子拔, 소사 若德을 파견하고 백제가 恩率 素子, 德率 武德를 왜국에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해 8월에 왜국은 1차 遣唐使로 犬上君三田耜와 藥師 惠日을 당에 보내고 있다. 이때의 파견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권유에 의해서 1차 견당사가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³⁾ 하지만, 舒明 4년(632년) 8월 三田耜이 唐使 高表仁과 함께 돌아올 때 신라를 경유하고 있으며 이때 學問僧 靈雲과 僧 旻 및 勝鳥養과 함께 신라가 送使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왜국이 신라와의 관계 속에 唐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唐使 高表仁이 왜국에 들어오지만, 『日本書紀』에는 高表仁이 入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舊唐書』에는 高表仁이 왜국의 왕자와 儀禮 문제로 다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²⁴⁾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왜국에 왔던 高表仁이 야마토 정권에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경우 신라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왜국의 반대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⁵⁾ 또한 『舊唐書』에 보이는 왕자를 蘇我入鹿으로 보고 당시 친백제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蘇我氏의 반대로 인해 不和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⁶⁾

일단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唐이 高表仁의 사행을 통해 왜국과 신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蘇我氏가 친백제, 반신라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며, 당시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蝦夷의 아들을 唐에서 왕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을 보면 왜국과 신라와의 관계는 舒明 11년(639년) 9월 唐에 학문승으로 갔던 惠隱, 惠雲이 신라의 送使를 따라 귀국하고 있으며, 舒明 12년(640년) 10월에도 唐의 학문승 南淵清安과 유학생 高向玄理가 신라를 거쳐 귀국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당시 왜국에는 이미 친신라정책의 노선이 정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舒明 3년(631년) 3월 백제왕 의자가 왕자 豐章을 質로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⁷⁾ 하지만 이때 質이라는 것은 후대 사관에 의해 윤색된 표현으로 보이며 본래는 외교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²⁸⁾ 豐章이 왕실 교류 차원에서 왜국

23)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26, 2007, p.21

24) 『舊唐書』卷第199上 倭國傳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矜其道遠 勅所司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宜朝命而還

25) 金鉉球, 「初期の日・唐關係に関する一考察-「日本書紀」高表仁の來日記事を中心に」, 『日本歴史』423 吉川弘文館, 1983

26) 石母田正, 앞의 책, 1971

27) 『日本書紀』卷 第23 舒明 3年 3月 庚申朔

百濟王義慈入王子豐章爲質

28) 羅幸柱,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特に百濟の「質」の派遣目的を中心として」, 『史觀』134, 1996

에 갔던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자왕의 즉위는 641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²⁹⁾ 『續日本紀』에 풍장과 선광은 의자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며³⁰⁾, 최근 부여풍의 딸(647~729)과 그 남편인 趙因本(628~690)의 합장 묘지명이 발견되어 풍장은 의자왕의 아들임이 확인되었다.³¹⁾

대체적으로 『日本書紀』를 고찰하면 王名을 誤記했다기보다는 편찬 시 기년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³²⁾ 舒明 3년조에 보이는 풍장의 기사는 의자왕 때에 있었던 豐璋의 왜국 파견이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豐璋에 관한 기록은 643년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³³⁾ 의자왕이 641년에 즉위한 후 643년 사이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⁴⁾

『日本書紀』 皇極紀에는 백제의 정변으로 인해 추방되어 온 翹岐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翹岐에 대해서는 豐璋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백제와 왜의 왕실 외교 차원에서 왔던 豐璋과 동일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³⁵⁾

翹岐 관련 기사는 皇極 원년(642년)과 2년(643년)에 중복 기술되면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본래 皇極 2년 4월조 이후에 나와야 하는 기록이 착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그런데 翹岐와 관련해서는 皇極 元年 4월에 蘇我大臣이 翹岐와 대담하는 내용이 보편서³⁷⁾ 5월에는 河內國 依網屯倉 앞에서 翹岐 등이 활로 사냥하는 것을 관람하고³⁸⁾ 이후 백제 大井家로 옮겨 부근 石川에 죽은 아들을 장사 지냈다는 기록³⁹⁾ 등이 보인다.

29) 풍장을 무왕의 아들로 보는 百濟王義慈誤記說(飯田武郷, 『日本書紀通釋』, 内外書籍, 1930 ; 井上光貞, 앞의 논문, 1975 ; 金壽泰, 「百濟 義慈王代의 太子冊封」, 『百濟研究』23, 1992 ; 盧重國, 「七世紀 百濟와 倭와의 關係」, 『國史館論叢』52, 1994 ; 鄭孝雲, 앞의 책, 1995 ; 宋浣範, 「七世紀의 倭國と百濟」, 『日本歴史』686, 2005 ; 이재석, 「백제부흥전쟁과 부여풍장(夫餘豐璋)·왜국 多臣氏」, 『日本歴史研究』54, 2021), 백제왕을 『日本書紀』 편자의 追記로 보는 百濟王追記說(青木和夫, 「軍主小考」, 『日本古代の政治と人物』, 吉川弘文館, 1977 ; 胡口靖夫, 「百濟豐璋王について--所謂「人質」生活を中心に」, 『國學院雜誌』80-4, 1979), 기년의 오류설(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등이 있다.

30) 『續日本紀』 卷第 27 高野 天平神護 2年 壬子

義慈王遣其子豐璋王及禪廣王入侍

31) ‘夫人扶餘氏 皇朝帶方王義慈之孫 帶方太子豐之□[女也]’ (장병진,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역사와 현실』 123, 2022, pp.241-242)

32) 대표적으로 應神 49년 腆支王이 누이 新齊都媛 등을 왜국에 보냈다는 기록과 雄略 2년 己巳年에 개로왕이 즉위하여 慕尼夫人의 딸 適稽女郎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33)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2年 是歲條

百濟太子餘豐 以蜜蜂房四枚 放養於三輪山 而終不蕃息

34) 홍성화, 「『日本書紀』에 보이는 百濟의 정변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탐구』46, 2024, pp.108-109

35) 일본학계에서는 西本昌弘, 「豐璋と翹岐-大化改新前夜の倭國と百濟」, 『ヒストリア』107, 1985 이래 翹岐를 豐璋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전에 필자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혼인 관계 등 왕실 외교 차원의 화친 관계를 통해 분석해 보면 동일 인물로 보기는 힘들다.(洪性, 「百濟와 倭 왕실의 관계-왕실 간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39, 2011)

36) 皇極 원년(642년) 고구려 사신이 그 전해(641년) 9월에 연개소문에 의한 정변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는 정변이 642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皇極 원년의 기사는 2년(643년)의 사실이 착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37) 『日本書紀』 卷24 皇極 元年 夏四月丙戌朔

乙未 蘇我大臣 於畝傍家 喚百濟翹岐等 親對語話 仍賜良馬一匹 鐵廿鋌 唯不喚塞上

38) 『日本書紀』 卷24 皇極 元年 五月乙卯朔

己未 於河內國依網屯倉前 召翹岐等 令觀射獵

39) 『日本書紀』 卷24 皇極 元年 5月

백제 정변으로 추방되어 온 翹岐를 蘇我大臣이 대우해 주었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시 왜국 조정 내에 점차 친신라, 친당 노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고 실권자였던 蘇我氏의 경우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친신라, 친당 노선을 적절히 컨트롤 하면서 일정 부분 현상 유지 정책을 취했을 것으로 예견된다.⁴⁰⁾

하지만 무엇보다도 翹岐 일행이 蘇我氏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은 蘇我氏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翹岐 관련 기사에서 보듯이 翹岐 일행이 蘇我氏와 인연이 깊은 依鋼과 石川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翹岐 일행이 이미 이전부터 蘇我氏 本宗家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⁴¹⁾

蘇我氏는 대표적으로 倭漢氏, 鞍作氏, 船氏 등 백제계 도왜인들을 그 휘하에 두고 있으면서 친백제계 성향을 보여왔다. 蘇我氏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高市郡 曾我說⁴²⁾, 葛城說⁴³⁾, 河內 石川說⁴⁴⁾이 있으며 百濟系 渡倭人說⁴⁵⁾이 거론되기도 한다. 또한 蘇我入鹿의 경우 명이 鞍作인 것을 근거로 母가 止利佛師로 알려진 백제계 도왜 씨족 鞍作氏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⁴⁶⁾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蘇我氏는 많은 백제계 인물들과의 연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書紀』에는 皇極이 즉위하여 蘇我蝦夷를 이전과 같이 大臣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면서 이후 蘇我蝦夷와 入鹿 부자가 행한 전횡이 보인다.⁴⁷⁾ 급기야 皇極 2년에는 蘇我入鹿이 왕위 계승 후보인 聖德太子의 아들 山背大兄을 습격하여 자살하게 한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皇極 4년(645년) 蘇我氏 本宗家가 제거되는 ‘乙巳의 變’이 일어난다.

(㉔)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4년(645년) 6月 戊申

倉山田麻呂臣이 나아가 三韓의 표문을 낭독했다. 이에 中大兄은 衛門府에 경계를 내려 일시에 12곳의 출입문을 모두 닫아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했으며 衛門府를 한 곳에

戊寅 翹岐將其妻子 移於百濟大井家 乃遣人葬兒於石川

40) 이재석, 앞의 논문, 2021, pp.22-24

41) 金善民, 『『日本書紀』에 보이는 豐璋과 翹岐』, 『日本歷史研究』11, 2000, p.35

42) 和田萃, 『飛鳥びとの生活』, 『日本生活文化史』2 河出書房新社, 1974 ; 佐伯有清, 『蘇我氏と古代大王国家』, 『日本古代氏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 塚口義信, 『蘇我氏は渡来系の豪族か』, 『別冊歴史読本 : 続謎の歴史書』古事記『日本書紀』, 1987

43) 加藤謙吉, 『蘇我氏と大和王権』, 吉川弘文館, 1983

44) 田村圓澄, 『聖德太子 : 斑鳩宮の争い』中公新書 43, 中央公論新社, 1964 ; 黛弘道, 『古代国家と蘇我氏』, 『古代を考える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 2012

45)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について - 百濟の木笏滿致と蘇我滿智』,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12, 1971 ; 志田諄一, 『古代氏族の性格と傳承』, 雄山閣, 1971 ; 金鉉球,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歷史研究』25, 2007 ; 박재용,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86, 2017

46) 関晃, 『帰化人 : 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至文堂, 1956, p.126

47)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元年 是歲

蘇我大臣蝦夷 立己祖廟於葛城高宮 而爲八佾之舞 遂作歌曰 野麻騰能 飢斯能毘稜栖鳴 倭柁羅務騰 阿庸比陀 豆矩梨 舉始豆矩羅符母 又盡發舉國之民 并百八十部曲 預造雙墓於今來. 一曰大陵爲大臣墓. 一曰小陵爲入鹿臣墓. 望死之後 勿使勞人. 更悉聚上宮乳部之民【乳部 此云美父】 役使塋埧所.

48)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2年 11月

於是山背大兄王等自山遷入斑鳩寺. 軍將等即以兵圍寺. 於是山背大兄王使三輪文屋君謂軍將等曰 吾起兵伐入鹿者 其勝定之. 然由一身之故 不欲傷殘百姓. 是以吾之一身賜於入鹿 終與子弟·妃妾一時自經俱死也.

불러 모아 祿을 주려고 하였다. 이때 中大兄은 스스로 긴 창을 잡고 大極殿 옆에 숨어 있었으며 中臣鎌子連 등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를 도와 호위하였다. 海犬養連勝麻呂로 하여금 칼 두 자루가 들어있는 상자를 佐伯連 子麻呂와 葛城稚犬養連網田에게 주며 “힘써 노력하여 재빨리 목을 쳐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중략) 中大兄은 子麻呂 등이 入鹿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야아” 하고는 곧 子麻呂 등과 함께 不意에 칼로 入鹿의 머리와 어깨를 베어 상처를 입히니 入鹿이 놀라 일어났다. 子麻呂가 손을 놀리고 칼을 휘둘러 그의 한 쪽 다리를 상하게 했다. 入鹿이 굴러서 천황의 자리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천황의 자리에 있게 되는 분은 하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죄를 알지 못하니 살피서 밝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천황이 크게 놀라 中大兄에게 詔를 내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中大兄이 땅에 엎드려 “鞍作은 皇族을 모두 없애고 장차 천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어찌 天孫을 鞍作이 대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蘇我臣入鹿의 또 다른 이름은 鞍作이다】. 천황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궁전으로 들어갔다. 佐伯連 子麻呂와 稚犬養連網田이 入鹿의 목을 베었다. 이날 비가 내려 물이 뜰에까지 넘쳤으므로 거적으로 鞍作의 시체를 덮었다. 古人大兄은 이것을 보고 자기의 宮으로 달려 들어가 사람들에게 “韓人 이 鞍作臣을 죽였다【韓의 政務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내 마음이 아프다”하고는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⁴⁹⁾

蘇我入鹿이 대극전에서 살해되었고 이어서 아버지인 大臣 蝦夷도 入鹿의 시신을 앞에 두고 저택에 불을 질러 자결했다.⁵⁰⁾ 이로써 蘇我氏 本宗家가 막을 내렸다.

‘乙巳의 變’의 원인과 관련하여 『日本書紀』에 보이는 내용상으로는 山背大兄 일족을 죽이고 왕권을 무시하는 蘇我氏의 전횡과 反蘇我氏 개혁 세력의 출현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당시 642년에 있었던 백제와 고구려에서의 정변 발생과 신라의 친당 정책 및 645년 唐의 고구려 침공 등 대외 관계 변화가 왜국 지배층 내부에 영향을 끼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乙巳의 變’의 상황은 단순히 왜국 국내 정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에서 ‘乙巳의 變’이

49) 『日本書紀』卷第24 皇極 4年 6月 戊申

倉山田麻呂臣 進而讀唱三韓表文 於是 中大兄 戒衛門府 一時俱鑠十二通門 勿使往來 召聚衛門府於一所 將給祿 時中大兄 卽自執長槍 隱於殿側 中臣鎌子連等 持弓矢而爲助衛 使海犬養連勝麻呂 授箱中兩劍於佐伯連(中略) 中大兄 見子麻呂等 畏入鹿威 便旋不進曰 咄嗟 卽共子麻呂等 出其不意 以劍傷割入鹿頭肩 入鹿驚起 子麻呂 運手揮劍 傷其一脚 入鹿轉就御座 叩頭曰 當居嗣位 天之子也 臣不知罪 乞垂審察 天皇大驚 詔中大兄曰 不知 所作 有何事耶 中大兄 伏地奏曰 鞍作盡滅天宗 將傾日位 豈以天孫代鞍作乎蘇我臣入鹿 更名鞍作 天皇卽起入於殿中 佐伯連 子麻呂·稚犬養連網田 斬入鹿臣 是日 雨下潦水溢庭 以席障子 覆鞍作屍 古人大兄 見走入私宮 謂於人曰 韓人殺鞍作臣謂因韓政而誅 吾心痛矣 卽入臥內 杜門不出

50) 『日本書紀』卷第24 皇極 4年 6月 己酉

蘇我臣蝦夷等臨誅悉燒天皇記·國記·珍寶. 船史惠尺卽疾取所燒國記而奉獻中大兄. 是日 蘇我臣蝦夷及鞍作屍許葬於墓.

韓政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日本書紀』의 分註를 통해서도 왜국의 대외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孝德朝의 대외 관계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외교 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乙巳의 變’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日本書紀』 내 韓半島諸國과 倭國 간 使臣 등 파견 기록 (舒明, 皇極)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	왜	비고
630년 3월	恩率 素子, 德率 武德	晏子拔, 若德				
630년 8월						犬上君三田耜, 惠日 1차 건당사
631년 3월	豐章					
632년 8월			送使			唐使 高表仁과 함께
635년 6월	達率 柔等					
638년 是歲	使臣		使臣	使臣		
639년 9월			送使			惠隱, 惠雲과 함께
640년 10월	使臣		使臣			清安, 高向玄理와 함께
642년 정월	甲問使				阿曇連比羅夫 백제로부터 귀국	
642년 2월		使臣				
642년 3월			使臣, 甲問使			
642년 4월	翹岐					
642년 5월	使臣				吉士 백제로부터 귀국	
642년 10월			使臣, 甲問使			
643년 4월	翹岐, 使臣					
643년 6월		使臣				
643년 6월	使臣					

VI. 孝德朝의 대외 관계

1. 大化 연간

『日本書紀』에는 孝德이 즉위하면서 大化 元年(645년) 7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이 왜국에 왔으며 다음 해 2월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의 사신이 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高麗, 百濟, 新羅가 함께 사신을 보내 調賦를 바쳤다는 기록이라든지, 백제의 調使가 任那의 사신을 겸하여 任那의 調를 바쳤다는 기록 등은 실제성이 의문시된다. 이는 개신정권의 새로운 체제 수립에 따른 대외 관계의 정당화 및 합리화의 일환으로 『日本書

紀』찬자에 의해 설정된 기사로 보인다.⁵¹⁾

따라서 大化 연간 왜국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표4)에서 보듯이 大化 2년(646년)부터 大化 5년(649년)까지 연속적으로 보이는 신라와의 교류이다.

(ㄴ)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2年(646년) 9월

小德 高向博士 黑麻呂를 新羅에 보내 質을 바치게 했다. 드디어 任那의 調를 그만 두었다【黑麻呂의 다른 이름은 玄理이다】.⁵²⁾

(ㄷ)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3年(647년) 是歲

新羅가 上臣 大阿滄 金春秋 등을 파견하고 博士 小德 高向黑麻呂·小山中 中臣連 押熊을 보내와서 孔雀 1쌍과 鸚鵡 1쌍을 바쳤다. 그리고 春秋를 質로 삼았다. 春秋는 용모가 아름답고 담소를 잘하였다.⁵³⁾

(ㄹ)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5年(649년) 5月 癸卯朔

小花下 三輪君色夫·大山上 掃部連角麻呂 등을 新羅에 파견하였다.⁵⁴⁾

(ㄹ)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5年(649년) 是歲

新羅王이 沙喙部 沙滄 金多遂를 보내 質로 삼았다. 따라온 사람이 37명이다【僧 1인, 郎 2인, 丞 1인, 達官郎 1인, 中客 5인, 才伎 10인, 譯語 1인, 雜僱人 16인 모두 37명이다】.⁵⁵⁾

(ㄴ)의 기사에서는 大化 2년(646년) 9월 高向黑麻呂가 신라에 파견되고 있다. 高向黑麻呂는 推古 16년(608년) 隋의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32년간 머물다가 舒明 12년(640년)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한 인물이다. 大化 元年(645년) 大化改新 후에는 僧 旻과 함께 國博士로 임명되었는데, (ㄴ)은 그가 大化 2년(646년) 9월 신라에 보내져 任那의 調를 그만두게 하고 質을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다.

任那의 調와 관련해서는 562년 신라의 대가야 함락 이후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신라가 任那의 調를 바쳤고 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김춘추가 質로 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설이

51)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앞의 책, 2004, p.140

52)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2年 九月
遣小德高向博士 黑麻呂於新羅 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 更名玄理】

53)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3年(647년) 是歲
新羅 遣上臣大阿滄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54)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5年 五月癸卯朔
遣小花下三輪君色夫·大山上掃部連角麻呂等於新羅.

55) 『日本書紀』卷第25 孝德 大化 5年(649년) 是歲
新羅王 遣沙喙部沙滄金多遂爲質 從者卅七人【僧一人·侍郎二人·丞一人·達官郎一人·中客五人·才伎十人·譯語一人·雜僱人十六人 并卅七人也】.

다.⁵⁶⁾ 하지만 현재 야마토 정권의 임나 지배가 부정되고 있으며 (ㄷ)에서 보듯이 다음 해에 김춘추가 質로 왜국에 왔다고 하는 기록도 외교 사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⁵⁷⁾ (ㄴ)에 보이는 高向黑麻呂의 파견은 任那의 調와는 무관할 것이다.⁵⁸⁾

이에 대해서는 개신정권의 정통성을 알리고 신라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전하기 위해 高向黑麻呂를 파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⁹⁾ 물론 신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高向黑麻呂는 오랫동안 唐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며 654년에는 唐에 건너가 왜국과 신라, 唐 관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왜국과 唐의 교류에 치중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632년 高表仁이 왜국에 온 이후 단절되었던 唐과의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 측에 唐과의 교류를 중개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ㄷ)은 大化 3년(647년) 신라에 갔던 高向黑麻呂가 金春秋와 함께 귀국하는 기사이다. 『日本書紀』에는 김춘추를 質로 삼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듬해에 김춘추가 唐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質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42년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구원병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던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47년 김춘추가 왜국에 왔던 것은 개신정권으로부터 명확한 친신라정책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다음 해인 648년 김춘추는 唐으로 가서 당 태종에게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병을 요구하였다. 唐의 경우도 645년에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났고 647년과 648년에 재차 요동을 공략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 태종이 백제에 대한 군사출병을 약속하면서 당-신라의 군사 협력 체제가 맺어지고 있다.⁶⁰⁾

『舊唐書』倭國傳에는 貞觀 22년(648년)에 신라가 당 태종에게 왜국의 表를 전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¹⁾ 이는 필시 당시 唐에 갔던 김춘추의 중개로 인해 왜국과 唐의 통교가 성사되고 신라, 당, 왜국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⁶²⁾

이렇듯 孝德朝에 들어와서는 친신라, 친당 체제로 대외 외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乙巳의 變’ 이후 개신정권을 통해서 기존 蘇我氏의 친백제적인 외교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은 大化 5년(649년) 5월에 三輪君色夫와 掃部連角麻呂이 신라에 파견되는 기사이다. 이

5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 p.212

57) 羅幸柱, 앞의 논문, 1996

58) 한국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任那의 調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있다. 金鉉球, 앞의 책, 1985 ; 鄭孝雲, 앞의 책, 1995 ; 延敏洙, 앞의 책, 1998 ; 나행주,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 『韓日關係史研究』29, 2008

59) 김은숙, 앞의 논문, 2007, p.30

60) 『三國史記』卷第5 新羅本紀 眞德王 2년(648년)

遣伊滄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 郊勞之. 既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嘗召燕兒 賜以金帛尤厚 問曰 卿有所懷乎.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強猾, 屢肆侵凌. 況往年大舉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敝邑人民盡爲所虜 則梯航述職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61) 『舊唐書』卷第199上 倭國傳

至二十二年又附新羅奉表以通起居

62) 金鉉球, 앞의 책, 1985, pp.347-348

기록은 (ㄷ)에서 보듯이 동년 金多遂 외 37인이 왜국에 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高向黑麻呂의 신라 파견으로 김춘추가 왜국에 왔던 것과 같은 수순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金多遂가 왜국에 왔던 것은 648년에 김춘추가 唐에 전한 왜국의 대당 통교에 대한 唐의 공식 입장을 전하고 신라, 당, 왜국의 협력체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金多遂는 644년(선덕왕 13년) 정월 唐에 파견되었던 인물로서 당시 당 태종은 귀국하는 金多遂를 통해 신라에 璽書를 보내면서 신라군이 대고구려 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金多遂는 이미 신라와 당의 군사 협력 기반을 다졌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때 신라, 당, 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백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이 일정 부분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⁶³⁾

2. 白雉 연간

『日本書紀』 白雉 2년(651년)에는 唐의 의복을 입고 왜국에 파견된 신라 사신을 왜국 조정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ㄷ)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白雉 2年(651년) 是歲

新羅의 貢調使 知萬 沙浪 등이 당나라 옷을 입고 筑紫에 묵었다. 조정에서는 함부로 풍속을 바꾼 것을 싫어하여 꾸짖어 돌려보냈다. 이 때에 巨勢大臣이 “지금 신라를 정벌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 정벌하는 상황은 모든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難波津으로부터 筑紫海 가운데까지 서로 이어지도록 배를 가득 띄워 신라를 불러 그 죄를 묻는다면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⁶⁴⁾

신라는 648년 김춘추가 唐에 파견된 이후 649년에는 唐의 의관제를 채용하였으며⁶⁵⁾ 650년에는 백제에게 승리한 것을 唐에 보고한 후 唐의 永徽 연호를 사용하였다.⁶⁶⁾ 또한 651년에는 김춘추의 아들인 김인문을 宿衛로서 唐에 머물게 하는 등⁶⁷⁾ 신라와 唐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63) 이재석, 「『日本書紀』 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遂에 관한 小考」,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上, 제이앤씨, 2010b, pp.315-317

64)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白雉 2年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浪等 着唐國服 泊于筑紫. 朝廷 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 巨勢大臣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 不須舉力. 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徵召新羅問其罪者 可易得焉.

65)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眞德王 3年(649년)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66)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眞德王 4年(650년)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67)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眞德王 5年(651년)
遣波珍浪金仁問入唐朝貢, 仍留宿衛.

이러한 시기에 파견된 신라의 사신이 唐의 의복을 입고 오자 왜국 조정에서는 入京시키지 않고 사신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신라, 당, 왜국의 협력 체제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左大臣 巨勢德陀古가 신라의 정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는 전통적으로 친백제 외교를 중시하는 인물들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大化 5년(649년) 阿倍, 蘇我大臣의 죽음 이후에 친신라, 친당 노선에 반대하는 왜국 조정의 기류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왜국 조정 내에서 친백제 노선과 친신라 노선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㉔)에 보이는 大化 5년(649년) 金多遜의 파견으로 인해 백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이 일정 부분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후 조정 내에서 갈등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친백제 외교를 중시해왔던 대신들의 경우 친신라, 친당 노선으로 인해 백제에 대한 군사 공격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책에 찬동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孝德과 中大兄간에 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다.

(ㄱ)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白雉 4年(653년) 是歲

태자가 주하여 “倭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였다. 천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황태자는 皇祖母尊, 間人皇后를 모시고 皇弟들을 거느리고 왜의 飛鳥河邊行宮으로 가 머물렀다. 공경대부 백관들도 다 따라 옮겼다. 이 때문에 천황은 원한을 품고 황위를 버리려고 생각하고 궁을 山碕에 만들었다.⁶⁸⁾

『日本書紀』에는 大化 원년(645년) 12월에 도읍을 難波長柄豐碕宮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⁹⁾ 일단 645년은 宮의 조성이 기획되어 조성되기 시작했던 시기를 의미하며 완공은 白雉 3年(652년)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듯이 難波는 오랜 동안 대외 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難波로의 천도는 대외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ㄱ)의 기록에서는 中大兄이 孝德에게 倭京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자 飛鳥宮으로 환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공경대부 백관들도 다 따라 옮겼다는 기록을 통해서는 상당 규모의 관인이 中大兄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孝德과 中大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飛鳥宮으로 遷都했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中大兄이 孝德의 성급한 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지만,⁷⁰⁾ 孝德朝 이후에도 評制나 官位制의 시행이 부정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관제의 정비에 있어서도 특별히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다는 조짐은 없다.⁷¹⁾ 따라서 이는

68)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白雉 4年(653)

是歲 太子奏請曰 欲冀遷于倭京. 天皇 不許焉. 皇太子 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并率皇弟等 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 于時 公卿大夫百官人等皆隨而遷. 由是 天皇 恨欲捨於國位 命造宮於山碕 乃送歌於間人皇后曰.

69)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大化 元年(64년) 冬十二月乙未朔癸卯

天皇遷都難波長柄豐碕. 老人等相謂之曰 自春至夏 鼠向難波 遷都之兆也.

70) 森公章, 앞의 논문, 2002

71) 李在碩, 앞의 논문, 2010a, p.105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還都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대외 관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⁷²⁾ 하지만, 대외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孝德朝에 들어와 바뀐 대외 정책의 기조이다. 白雉 2년(651년)에 조정 내에서 (ㄴ)과 같이 신라 사신을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孝德朝 이후 실행되었던 친신라, 친당으로의 외교 노선 전환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와 당의 연합으로 백제를 친다는 향후의 작전 계획에 대해 친신라 노선의 孝德과 친백제노선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中大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것을 원인으로 보는 견해⁷³⁾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후 왜국이 친백제 정책으로 점차 회귀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의자왕 13년(653년) 8월 백제가 왜국과 通好하는 기록이 있다.⁷⁴⁾

651년 唐은 파견된 백제의 사신에게 신라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반환하지 않으면 백제에 대한 직접 출병도 불사하겠다는 璽書를 내린다.⁷⁵⁾ 唐이 백제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이 백제가 왜국과 通好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652년에도 백제가 唐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을 보면⁷⁶⁾ 백제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이지만, 『三國史記』에 간단하게 파견 기록만을 실고 있는 것을 볼 때 당과의 관계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654년 7월 2차 遣唐使로 갔던 吉士 長丹이 귀국하면서 백제 사신과 함께 왜국으로 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변화된 왜국의 대외 기조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ㄸ)의 中大兄이 飛鳥宮으로 還都했다는 기록이 是歲條로 되어 있어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孝德朝의 정책 기조 변화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백제와의 通好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649년 阿倍, 蘇我大臣의 죽음 이후 653년 6월 僧 旻까지 사망하면서 孝德의 타격은 컸을 것이다. 孝德 정권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孝德은 친신라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후 『日本書紀』에는 白雉 5년(654년)에 3차 遣唐使를 보내고 있는 기사가 보인다.

72) 関晃, 「大化改新史論」, 『大化改新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96, p.193 ; 北山茂夫, 『大化の改新』 岩波新書 406, 岩波書店, 1961 ; 井上光貞, 앞의 논문, 1975

73) 金鉉球, 앞의 책, 1985 ; 李在碩, 앞의 논문, 2010a, p.112

74)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義慈王 13年 秋8月
王與倭國通好

75)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義慈王 11年
遣使入唐朝貢 使還高宗降璽書 諭王曰. (中略)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句麗 不許遠相救恤. 高句麗若不承命 即令契丹諸藩度遼, 深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76)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義慈王 12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77) 羅幸柱, 「倭國의 第3次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58, 2013, p.36-37

(o) 『日本書紀』卷第25 孝德 白雉 5年(654년)

2월 唐에 보낸 押使 大錦上 高向史玄理【어떤 책에는 여름 5월에 唐에 押使 大花下 高向玄理를 보냈다고 하였다】, 大使 小錦下 河邊臣麻呂, 副使 大山下 藥師惠日, 判官 大乙上 書直麻呂, 宮首阿彌陀【어떤 책에는 判官 小山下 書直麻呂라 하였다】, 小乙上 岡君宜, 置始連大伯, 小乙下 中臣間人連老【老를 於喩라 한다】, 田邊史鳥 등이 2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여러 달 머물다가 新羅道를 취해 萊州에 이르렀다. 드디어 京에 이르러 天子를 뵈었다. 이에 東宮監門 郭丈舉가 日本의 地里와 國初의 神의 이름을 자세히 물었으므로 모두 물음에 따라 답하였다. 押使 高向玄理가 唐에서 죽었다.⁷⁸⁾

그런데, 3차 遣唐使는 2차 遣唐使가 654년 7월에 돌아오는 시점보다도 앞선 654년 2월에 파견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차 遣唐使의 파견 이유와 관련해서는 孝德과 中大兄 간에 갈등이 생겨 中大兄이 권력을 장악하고 견당사를 파견하였다는 견해,⁷⁹⁾ 2차 견당사의 파견 시 제2선 高田首根麻呂 등이 조난 때문에 이들의 생존 여부 및 안전을 우려해서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⁸⁰⁾ 653년 6월 百濟使에 의해 전해진 당의 최후 통첩으로 인해 백제 측의 강한 외교적 요청에 따라 파견되었다는 견해,⁸¹⁾ 순수한 문화 사절로서 2차 견당사의 조난 이후 선진 문물을 구하고자 하는 孝德과 中大兄 등 왜국 내 제세력의 타협의 결과하는 견해,⁸²⁾ 唐에 신라를 위해 출병할 수 없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唐과의 관계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파견하였다는 견해⁸³⁾ 등이 있다.

일단 3차 遣唐使는 2차 遣唐使와는 달리 대사와 부사 등이 모두 당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구성되었으며 2차 遣唐使가 귀환하기도 전에 출발하여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新唐書』日本傳에 의하면 3차 遣唐使가 파견되었을 당시 신라에 위기가 생기면 출병하여 지원하라는 당 고종의 璽書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⁸⁴⁾ 단순한 목적으로 파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차 遣唐使가 파견되었던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정 부분 孝德 정권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때였다. 친신라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백제와의 通好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遣唐使는 친신라 정책의 기초를 견지할 수는 없지만 唐과의 교

78) 『日本書紀』卷第25 孝德 白雉 5年

二月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或本云 夏五月 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玄理】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 副使大山下藥師惠日 判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或本云 判官小山下書直麻呂】小乙上岡君宜·置始連大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老此云於喩】田邊史鳥等 分乘二船 留連數月 取新羅道 泊于萊州 遂至于京 奉觀天子 於是 東宮監門郭丈舉 悉問日本之地里及國初之神名 皆隨問而答 押使高向玄理 卒於大唐

79) 山尾幸久, 앞의 책, 1989, p.406

80) 김은숙, 앞의 논문, 2007, p.35

81) 羅幸柱, 앞의 논문, 2013 p.42

82)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83) 金鉉球, 앞의 책, 1985, pp.466-467

84) 『新唐書』卷第220 日本傳

永徽初 其王孝德即位 改元曰白雉 獻虎魄大如斗 碼瑙若五升器. 時新羅爲高麗 百濟所暴 高宗賜璽書 令出兵援新羅.

류만이라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唐 고종의 璽書가 내려지면서 결국 3차 견당사는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押使 高向玄理도 唐에서 객사하는 상황이 되었고, 3차 遣唐使는 655년 8월 귀국하게 된다. 3차 遣唐使의 경우는 2차 遣唐使의 귀국 때와는 달리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귀국 사실만 짧게 전하고 있다.⁸⁵⁾ 3차 遣唐使의 초라한 귀국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55년에 들어와 신라는 사신 彌武 외 12인을 보내는데, 신라는 왜국에 상황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신단의 규모도 작고 관등도 9위의 급찬을 보냈던 것으로 보아 왜국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⁶⁾ 결국 彌武는 병으로 사망하였고 신라는 이후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

657년에는 왜국이 沙門 智達 등을 신라에 보내 신라 사신과 동반해서 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신라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때 왜국과 신라의 관계는 파국에 치달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국에 있어서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649년 金多濬의 파견으로 보는 견해,⁸⁷⁾ 650년 百濟舶의 건조 명령으로 보는 견해,⁸⁸⁾ 신라사의 당복 착용으로 左大臣 巨勢 德陀古의 강경 발언 이후라는 견해,⁸⁹⁾ 655년 이후에 적대적 관계로 변했다는 견해⁹⁰⁾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孝德朝의 흐름을 보면 大化 연간에는 친신라의 기조가 명확하게 보이지만, 이후 白雉 연간에 들어와서는 친신라의 기조가 퇴조하고 다면 외교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金多濬의 파견으로 백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이 일정 부분 통보되어 조정 내에 갈등이 생겼고 이는 신라사 당복 착용으로 표면에 불거졌으며 결국 653년 中大兄의 飛鳥宮 환도로 인해 친신라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표4)를 살펴보면 655년 이후 백제와의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55년 7월 使臣 150인, 655년 是歲 餘宜受, 調信仁 100인 등 백제 사절의 규모도 커지면서 阿曇連頰垂 등이 백제로부터 귀국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고구려와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656년 8월 達沙, 伊利之 81인, 660년 정월 賀取文 100인 등 고구려 사절이 보이고 656년에는 膳臣葉積, 坂合部連磐鍬를 고구려에 파견하고 있다.

이는 654년 10월 孝德이 사망하고 齊明이 등극하면서 왜국의 대외 노선 기조가 완전히

85) 『日本書紀』卷第26 齊明元年 8月戊戌朔 河邊臣麻呂等 自大唐還.

86) 김은숙, 앞의 논문, 2007, p.39

87) 이재석, 앞의 논문, 2010b

88) 八木充, 「七世紀中期における政權抗争」, 『日本書紀研究』8, 1975 :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1986

89) 金鉉球, 앞의 책, 1985

90) 羅幸柱, 앞의 논문, 2013, p.38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日本書紀』 내 韓半島諸國과 倭國 간 使臣 등 파견 기록 (孝德, 齊明)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	왜	비고
645년 7월	使臣	使臣	使臣			
646년 2월	使臣	使臣	使臣	使臣		
646년 9월					高向黑麻呂 신라 파견	
647년 정월		使臣	使臣			
647년 是歲			金春秋		高向黑麻呂, 中臣連押熊귀국	
648년 是歲			使臣			
649년 5월					三輪君色夫, 掃部連角麻呂 신라 파견	
649년 是歲			金多遜외 37인			
650년 4월			使臣			
651년 6월	使臣		使臣			
651년 是歲			知萬			唐國服 착용
652년 4월	使臣		使臣			
653년 5월						1선: 吉士長丹, 吉士駒/2선: 高田首根麻呂, 掃部連小麻呂 2차 견당사 파견
653년 6월	使臣		使臣			
654년 2월						高向史玄理, 河邊臣麻呂, 藥師 惠日 등 3차 견당사 파견 (新羅道)
654년 7월	送使		送使			2차 견당사 吉士長丹과 함께
654년 是歲	弔問使	弔問使	弔問使			
655년 7월	使臣 150인					
655년 8월						3차 견당사 河邊臣麻呂 등 귀국
655년 是歲	餘宜受, 調信仁 100인	使臣	彌武 외 12인			
656년 8월		達沙, 伊利之 81인				
656년 9월					膳臣葉積, 坂合部連磐鍬 고구려 파견	
656년	使臣	使臣	使臣			
657년 是歲					使臣 신라 파견 / 阿曇連頰垂, 津臣儷 백제로부터 귀국	沙門 智達 등 당에 보내는 요청 신라 거부

658년 7월						沙門 智通·智達 신라배 타고 당으로 감
658년 是歲					阿曇連頰垂 백제로부터 귀국	坂合部連石布, 津守連吉祥坂 4차 견당사 파견(吳唐의 뱃길)
659년 7월						
659년 是歲		使臣				
660년 정월		賀取文 100인				
660년 9월	達率, 沙彌 覺從 등					

V. 大化改新과 개신정권의 실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왜국의 대외 관계의 변화는 6세기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推古朝에 이르러 다변화된 대외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제와의 전통적인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와의 교류 상황이다. 6세기말 신라와의 교류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의 성격이 짙었지만 7세기초에는 불교를 통한 교류 등 점차 진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推古朝에는 623년 중국에서 학문을 닦던 惠齋·惠光 및 醫 惠日·福因 등이 모두 신라의 사신을 따라 돌아왔다. 이러한 기조는 舒明朝에도 이어져 632년 三田耜이 唐使 高表仁과 함께 돌아올 때 신라를 경유했고 신라에서 送使를 보내고 있다. 639년 당의 학문승 惠隱, 惠雲이 신라의 送使를 따라 귀국, 640년 당의 학문승 南淵清安과 유학생 高向玄理가 신라를 거쳐 귀국하고 있다.

이 시기에 왜국 조정 내에는 상당 부분 唐을 통한 학문의 수입, 선진 문물의 통로로서 친신라정책의 노선이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적극적인 중국과의 통교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하지만, 蘇我蝦夷, 入鹿으로 대표되는 蘇我氏 本宗家は 왜국 내에서 막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친백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大化 연간에 들어서 백제와의 교류는 보이지 않고 신라와의 교류만이 보이는 것은 결국 蘇我氏 本宗家の 친백제 노선과 改新 세력의 친신라 노선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의 대립이 ‘乙巳의 變’이라고 하는 충돌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다.⁹¹⁾ 따라서 『日本書紀』의 分註에서 기술하고 있는 韓政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蘇我氏 本宗家の 백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 金鉉球, 앞의 책, 1985

『日本書紀』에 쓰인 蘇我氏의 전횡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대외 정책의 폐쇄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改新 세력의 蘇我氏 本宗家の 타도는 동아시아에 대한 왜국의 새로운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孝德이 즉위를 하면서 飛鳥로부터 당시 외교 교통의 중심지인 難波로 천도했던 것도 새로운 대외 노선의 표방에 다름 아니다.

‘乙巳의 變’으로 성립된 개신정권은 輕皇子을 천황으로, 中大兄을 皇太子로 추대했으며 기존에 蘇我氏가 세습했던 大臣을 폐지하고 左大臣에 阿倍內麻呂, 右大臣에 蘇我倉山田石川麻呂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개신정권의 출범으로 새로이 신설된 內臣에는 中臣鎌足이, 高向玄理, 僧 旻은 國博士로 임명되었다.

개신정권의 주체 및 ‘乙巳의 變’의 주동자와 관련해서는 中大兄을 중심으로 보고 孝德은 명목상의 천황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⁹²⁾ 하지만 근래에 들어 주동자로서 孝德, 즉 輕皇子를 중시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⁹³⁾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우선 정변의 최초 입안자라고 할 수 있는 中臣鎌足の 행적이다.

『日本書紀』 皇極 3년조에 보면 中臣鎌足이 가장 먼저 접촉했던 인물이 輕皇子로 되어 있다. 본래부터 中臣鎌足은 輕皇子와 친했으며 輕皇子가 항상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극진하게 대우해 준 것에 감격하면서 장차 輕皇子가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라고 했다는 언급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듣고 輕皇子가 대단히 기뻐했다고 한다.⁹⁴⁾

또한 皇極이 中大兄에게 양위하려 할 때도 中臣鎌足은 輕皇子를 추천했다. 中臣鎌足은 古人大兄이 형이므로 만약 中大兄이 왕위를 이으면 아우가 형에 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어긋나니 당분간 숙부를 세워 백성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中大兄에게 전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中臣鎌足の 행적에 대한 기술을 통해 보면 『日本書紀』는 후대 天智가 되는 中大兄을 ‘乙巳의 變’의 주동자로 위치시키고 있지만, 실제 ‘乙巳의 變’은 孝德인 輕皇子에 의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신정권의 성립으로 임명된 左大臣 阿倍內麻呂와 右大臣 蘇我倉山田石川麻呂도 中大兄보다는 孝德과 더 가까운 인물이었다.

阿倍大臣의 경우 딸인 小足媛가 孝德의 元妃로서 阿倍大臣은 孝德의 유일한 자식인 有間皇子의 외조부가 된다. 따라서 효덕과는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92) 대표적인 견해는 坂本太郎,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1938 ; 北山茂夫, 앞의 책, 1961

93) 門脇禎二, 「大化改新」前後の政治過程:七世紀の歴史像,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81 ; 金鉉球, 앞의 책, 1985 ; 遠山美都男, 『大化改新 : 六四五年六月の宮廷革命』 中公新書1119, 中央公論新社, 1993 ; 篠川賢, 「乙巳の變と蘇我倉山田石川麻呂」, 『日本古代政治史論考』, 吉川弘文館, 1983

94) 『日本書紀』 卷第24 皇極 3年 春正月乙亥朔

以中臣鎌子連拜神祇伯。再三固辭不就。稱疾退居三嶋。于時輕皇子患脚不朝。中臣鎌子連曾善於輕皇子。故詣彼宮而將侍宿。輕皇子深識中臣鎌子連之意氣高逸 容止難犯 乃使寵妃阿倍氏 淨掃別殿高鋪新蓐 靡不具給 敬重特異。中臣鎌子連便感所遇而語舍人曰 殊奉恩澤 過前所望。誰能不使王天下乎【謂宛舍人爲馭使也】。舍人便以所語陳於皇子。皇子大悅。

95) 『日本書紀』 卷第25 孝德即位前紀 皇極 4年 6月庚戌

天豐財重日足姬天皇 思欲傳位於中大兄 而詔曰 云云。中大兄 退語於中臣鎌子連。中臣鎌子連議曰 古人大兄 殿下之兄也。輕皇子 殿下之舅也。方今 古人大兄在。而殿下陟天皇位 便違人弟恭遜之心。且立舅以答民望 不亦可乎。於是 中大兄深嘉厥議 密以奏聞。天豐財重日足姬天皇 授璽綬禪位。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경우도 딸인 乳娘이 孝德의 次妃가 되었으며 649년 異母弟 日向의 밀고를 믿은 中大兄에 의해 참살되고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蘇我石川麻呂가 밀고를 당했을 때 中大兄이 아닌 孝德에게 자신의 결백을 진술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자결하기 전에 君王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⁹⁶⁾ 이러한 상황을 보면 孝德과의 관계가 두터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孝德이 도읍을 難波長柄豐碕宮으로 옮겼던 것도 일정 부분 이 지역이 阿倍大臣과 中臣鎌足の 세력 기반이었다는 견해가 있다.⁹⁷⁾

國博士로 임명된 高向玄理와 僧 旻도 오랫동안 중국에 유학했던 인물들로 선진 문물과 제도에 정통하였기에 孝德의 친신라, 친당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653년 中大兄이 왜경으로 천도를 주장했을 때 孝德이 이를 거부하자 『日本書紀』에는 공경대부 백관들이 中大兄을 따라 다 옮겼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高向玄理와 僧 旻은 難波에 남아 孝德을 지지하고 있었다. 高向玄理는 다음 해에 제3차 견당사의 책임자로 唐으로 가서 孝德의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이처럼 개신정권의 주요 인물들은 中大兄이 아닌 孝德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상황도 개신정권에서 孝德이 명목상의 천황이 아닌 실질적인 주체였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乙巳의 變’의 후속 조치로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개혁을 大化改新이라고 한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改新의 詔’를 살펴보면, 公地公民制, 지방행정조직의 확립, 戶籍과 計帳의 작성과 班田收授法の 시행, 租·庸·調라는 통일적 세제의 실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기 일본학계에서는 大化改新을 隋와 唐을 모델로 하는 선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의 실현으로써 律令制를 기본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기원으로 인식하기도 했다.⁹⁸⁾

그런데, 이들 ‘改新의 詔’는 701년 시행된 大寶令의 조문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아 大寶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日本書紀』에 나오는 ‘改新의 詔’에는 「郡」자가 사용되었지만, 금석문에는 「評」자로 되어 있어서 「郡」은 大寶令의 운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⁹⁹⁾ 소위 ‘郡評論爭’으로 이는 단순한 글자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改新의 詔’ 전체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와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¹⁰⁰⁾

‘郡評論爭’이 있는 지 16년 후인 1967년에는 藤原宮에서 木簡이 출토되었는데, 그 목간에

96) 『日本書紀』 卷第25 孝德 大化 5年(649年) 3月

戊辰 天皇 使大伴狛連·三國麻呂公·穗積嚙臣於蘇我倉山田石川麻呂大臣所而問反之虛實。大臣答曰 被問之報僕面當陳天皇之所。(中略) 己巳 言畢 開佛殿之戶 仰而發誓曰 願我生々世々不怨君王。

97) 金鉉球, 앞의 책, 1985, pp.450-451

98) 坂本太郎, 앞의 책, 1938

99) 1951년 井上光貞이 「大化改新詔의 信憑性」이라는 제목으로 학회 보고를 하면서 ‘郡評論爭’ 논쟁이 촉발되었다.

100) 大化改新의 연구사와 관련해서는 송완범, 「‘메이지(明治)유신’과 ‘다이카(大化)개신」, 『日本思想』36, 2019 ; 市大樹, 「大化改新」, 『テーマで学ぶ日本古代史 : 政治·外交編』新古代史の会, 吉川弘文館, 2020 참조

는 「己亥年十月上球国阿波評松里」라고 되어 있어서 大寶令이 시행되기 직전인 699년까지 「評」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발견을 계기로 ‘改新의 詔’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大化改新은 후대의 윤색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전후부터 大化改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⁰¹⁾ 근래 飛鳥 지역에서 많은 木簡이 출토되었는데, 石神 유적으로부터 「乙丑年十二月三野国△下評大山五十戸造△下部知ツ」라고 써어 있는 목간이 발견되었다. 「乙丑年」은 天智 4년(665년)이며 「五十戸」는 「里」의 선행 표기로써 기본적으로 天武 10년(681년)경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목간은 이미 665년의 단계에 国-評-五十戸라고 하는 중층적인 지방행정 구분이 행해졌음이 알려주고 있다. 그동안은 683년~685년의 국경 획정 사업이 아니면 중층적인 지방행정 구분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오던 터였다.

또한 「五十戸」의 명칭으로 「大山」이라는 지명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이때까지 675년 部曲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던 居住地에 근거한 「五十戸」의 편성이 이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목간의 검토로부터 部民制가 아니라 집락 단위의 「五十戸」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改新의 詔’에 표명된 정책이 7세기 후반에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改新의 詔’가 大寶令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당대에 시행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현재는 大化改新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신정권의 주동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中大兄이 아니라 孝德일 개연성이 커진다. 이러한 점은 孝德이 명목상의 천황은 아니었다는 방증이며 孝德이 주체가 되어 大化改新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乙巳의 變’ 또한 孝德이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에 매진했던 孝德도 649년 3월 정권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阿倍大臣의 죽음과 蘇我山田大臣이 中大兄에게 살해된 이후 타격이 컸을 것이다.

그해 4월에 巨勢德陀古臣을 좌대신으로 삼고 大伴長德連을 우대신으로 하면서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 이는 白雉 2년(651년) 신라 사신의 당복 착용으로 인해 巨勢大臣이 신라 정벌을 주장했던 것만을 보아도 이들을 孝德의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 巨勢大臣은 643년 蘇我入鹿의 명령에 따라 장군으로서 山背大兄王을 습격했으며 645년 ‘乙巳의 變’ 때에는 즉시 中大兄에게 항복해서 蘇我氏 토벌에 참가했던 인물이다.

大伴長德連은 642년 舒明의 殯宮에서 蘇我蝦夷를 대신해서 조사를 읽었던 인물로 中大兄이 주도했던 蘇我石川麻呂의 토벌 시에 선두에 서서 활약했던 것이 그와 같은 일족인 大半狛連이었다. 또한 大半氏は 백제와의 관계에서 성장한 씨족이다.¹⁰²⁾

이들이 좌,우대신이 되어 친백제 노선을 추구하면서 孝德의 대외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

101) 대표적인 논고는 吉川真司, 「律令体制の形成」, 『日本史講座1 : 東アジアにおける国家の形成』, 東京大学出版会, 2004 ; 市大樹,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102) 金鉉球, 앞의 책, 1985, p.453

실하고 말았다.

결국 白雉 연간에 들어와 孝德 정권의 친신라 정책 퇴조는 中大兄 측의 대외 정책으로 기울면서 벌어졌던 일인 것이다.

기존의 통설과 같이 ‘乙巳의 變’에서 개신정권에 이르기까지 中大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大化 연간 친신라, 친당 노선을 견지하다가 이후 백촌강 싸움에서 당, 신라와 전투까지 벌이는 상황에 대해 일관된 기조로 설명할 수 없다는 모순을 안게 된다.¹⁰³⁾

따라서 孝德 정권의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친신라, 친당 노선을 중심으로 했던 孝德 세력과 친백제 노선을 추구했던 中大兄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大化 연간에는 孝德의 대외 노선에 의거하여 친신라, 친당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다가 白雉 연간 中大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孝德 사후 中大兄과 齊明에 의해 친백제 정책으로 회귀한다고 한다면 7세기 중반 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6세기말~7세기초 왜국의 전반적인 대외 관계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乙巳의 變’을 전후로 한 시기와 孝德 시기의 대외 관계가 어떠한 변화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推古朝에 백제, 고구려, 신라로 다변화되었던 왜국의 대외 정책이 孝德朝에 들어오면서는 확실히 친신라, 친당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에는 ‘乙巳의 變’에서 개신정권에 이르기까지 中大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았지만, 이를 통해서는 개신정권에서 친신라, 친당 정책이었던 대외 기조가 孝德 사후 친백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상 본고에서 孝德朝의 대외 관계를 살펴본 결과 ‘乙巳의 變’과 大化改新의 주동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中大兄이 아니라 孝德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日本書紀』는 편찬 당시 天智와 藤原氏를 중심으로 왕통이 형성되었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乙巳의 變’과 개신정권의 주체를 中大兄으로 서술하였던 것이다.

孝德朝의 대외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후 벌어지는 왜국의 정세 변화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3) 仁藤敦史, 앞의 논문, 2010, pp.144-146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續日本紀』

『舊唐書』

『新唐書』

(연구서)

加藤謙吉, 『蘇我氏と大和王権』, 吉川弘文館, 1983

関晃, 『帰化人 : 古代の政治・経済・文化を語る』, 至文堂, 1956

金鉉球, 『大和政権の対外関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1993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

飯田武郷, 『日本書紀通釋』, 内外書籍, 1930

北山茂夫, 『大化の改新』 岩波新書 406, 岩波書店, 1961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関係』, 塙書房, 1989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対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国家』, 岩波書店, 1971

市大樹,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延敏洙,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鈴木英夫, 『古代の倭国と朝鮮諸国』, 青木書店, 1996

遠山美都男, 『大化改新 : 六四五年六月の宮廷革命』 中公新書1119, 中央公論新社, 1993

田村圓澄, 『聖徳太子 : 斑鳩宮の争い』 中公新書 43, 中央公論新社, 1964

鄭孝雲,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1995

志田諄一, 『古代氏族の性格と傳承』, 雄山閣, 1971

坂本太郎,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1938

八木充,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1986

홍성화, 『칠지도와 일본서기-4~6세기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21

(연구논문)

- 鬼頭清明, 「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と日本」, 『日本古代国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 関晃, 「大化改新史論」, 『大化改新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96
- 吉川真司, 「律令体制の形成」, 『日本史講座1 : 東アジアにおける国家の形成』, 東京大学出版会, 2004
- 金善民, 「『日本書紀』에 보이는 豊璋과 翹岐」, 『日本歴史研究』11, 2000
- 金壽泰, 「百濟 義慈王代の 太子冊封」, 『百濟研究』23, 1992
-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26, 2007
- 金鉉球, 「初期の日・唐關係に関する一考察 - 「日本書紀」高表仁の来日記事を中心に」, 『日本歴史』423 吉川弘文館, 1983
- 金鉉球,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歴史研究』25, 2007
- 羅幸柱,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特に百濟の「質」の派遣目的を中心として」, 『史觀』134, 1996
- 羅幸柱, 「大化改新政權의 대외정책 : 「質」의 관점에서 본 종래설 비판」, 『日本歴史研究』12, 2000
- 나행주,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 『韓日關係史研究』29, 2008
- 羅幸柱, 「倭國의 第3次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58, 2013
- 나행주,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 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史叢』99, 2020
- 盧重國, 「七世紀 百濟와 倭와의 關係」, 『國史館論叢』52, 1994
- 黛弘道, 「古代国家と蘇我氏」, 『古代を考える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 2012
-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について - 百濟の木笏滿致と蘇我滿智」,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12, 1971
- 門脇禎二, 「大化改新」前後の政治過程:七世紀の歴史像」,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81
- 박재용,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86, 2017
- 森公章, 「倭国から日本へ」, 『倭国から日本へ』日本の時代史3, 吉川弘文館, 2002
- 森公章, 「東アジアの動乱と倭国」, 『戦争の日本史』1, 吉川弘文館, 2006
- 徐甫京, 「『日本書紀』 한반도 관계 기사 검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西本昌弘, 「豊璋と翹岐-大化改新前夜の倭国と百濟」, 『ヒストリア』107, 1985
- 西本昌弘, 「東アジアの動乱と大化改新」, 『日本歴史』468, 1987
- 宋浣範, 「七世紀の倭国と百濟」, 『日本歴史』686, 2005

- 송완범, 「‘메이지(明治)유신’과 ‘다이카(大化)개신」, 『日本思想』36, 2019
- 市大樹, 「大化改新」, 『テーマで学ぶ日本古代史 : 政治・外交編』新古代史の会, 吉川弘文館, 2020
- 植垣節也, 「藤原鎌足の出自について」, 『日本歴史』296, 1973
- 延敏洙, 「日本書紀の「任那の調」関係記事の検討」, 『九州史学』105, 1992
- 延敏洙, 「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 전투까지」, 『日本歴史研究』6, 1997
- 鈴木英夫, 「七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対倭外交」, 『國學院雜誌』81-10, 1980
- 鈴木靖民, 「七世紀東アジアの争乱と変革」,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新版古代の日本2, 角川書店, 1992
-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 『思想』795, 1990
- 李在碩, 「孝徳朝權力闘争の国際的契機 - 東アジアの政勢と飛鳥遷都論 -」, 『律令国家史論集』, 塙書房, 2010
- 이재석, 「『日本書紀』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遂에 관한 小考」,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上, 제이앤씨, 2010
- 이재석, 「백제의 가야 진출과 倭國-소위 ‘397년 체제’의 성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29, 2011
- 이재석, 「백제부흥전쟁과 부여풍장(夫餘豊璋)·왜국 多臣氏」, 『日本歴史研究』54, 2021
- 仁藤敦史, 「孝徳期の對外關係」,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上, 제이앤씨, 2010
- 장병진,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역사와 현실』123, 2022
- 井上光貞,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2, 1975
- 鄭孝雲, 「《日本書紀》批判序説 I - 推古8,30년조의 ‘임나의조’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2, 1994
- 鄭孝雲, 「遣隋使の派遣回数再検討」, 『立命館文學』559, 1999
- 篠川賢, 「乙巳の変と蘇我倉山田石川麻呂」, 『日本古代政治史論考』, 吉川弘文館, 1983
- 佐伯有清, 「蘇我氏と古代大王国家」, 『日本古代氏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 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乱及び唐・羅・日三国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第2冊), 吉川弘文館, 1960
- 青木和夫, 「軍主小考」, 『日本古代の政治と人物』, 吉川弘文館, 1977
- 塚口義信, 「蘇我氏は渡来系の豪族か」, 『別冊歴史読本 : 続謎の歴史書『古事記』『日本書紀』』, 1987
- 坂元義種, 「推古朝の外交 - とくに隋との關係を中心に-」, 『歴史と人物』100, 1979
- 八木充, 「七世紀中期における政權抗争」, 『日本書紀研究』8, 1975
- 胡口靖夫, 「百濟豊璋王について--所謂「人質」生活を中心に」, 『國學院雜誌』80-4, 1979

- 홍성화,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日本書紀』 내 倭의 韓半島 파병과 百濟·倭의 인적교류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36, 2010
- 洪性和, 「百濟와 倭 왕실의 관계-왕실 간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39, 2011
- 洪性和,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에 보이는 新羅와 倭의 관계」, 『韓日關係史研究』54, 2016
- 홍성화, 「6세기 후반 한일 해역에서의 재난과 교류-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59, 2020
- 홍성화, 「『日本書紀』에 보이는 百濟의 정변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탐구』46, 2024
- 和田萃, 「飛鳥びとの生活」, 『日本生活文化史』2 河出書房新社, 1974

『日本書紀』 孝德紀에 보이는 倭國의 대외 관계」에 대한 토론문

이재석(한성대학교)

1. 이 논문은 효덕천황 시대의 왜국의 대외관계를 고찰.

효덕조에 이르기까지의 대외 관계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친백제 노선 위에 전개된 6세기말~7세기초의 추고조의 다면외교에 대해 검토하고(2장), 이어서 효덕조 탄생의 계기인 645년 소위 을사의 변이 왜국의 대외 정책(‘韓政’)의 문제에서 기인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왜국의 대외 노선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중간 결론을 도출하고(3장) 따라서 본론의 핵심인 효덕조 성립 후의 대외 정책상의 기조에 대해서는 그 경향상 大化 연간과 白雉 연간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대화 연간)에는 기존의 친백제 노선에서 친당-친신라 노선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후기(백치 연간)에는 그것이 다시 친백제로 경도되어 가는 특징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배경으로 효덕천황에서 중대형 황자로 권력의 이동이 있었다는 점과 중대형 황자 세력의 친백제 노선으로의 경도에는 당의 백제 멸망 위협 및 그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4장), 마지막으로 효덕조 정권의 실세, 주도자 문제에 대해 과거 중대형 황자가 주도자였다는 통설을 비판하고 효덕천황이 주도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5장).

2. 전체적인 논문에 대한 인상으로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형태로 논지를 전개하고 또 정리하였음. 평자인 저의 견해와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저촉되는 부분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온당한 정리라는 소감

3. 이하 질문 네 가지.

1) 多面외교라는 표현에 대해. 추고조의 외교 양상을 다면 외교라고 할 수 있다면 왜국은 그 이후에도 줄곧 다면외교였던 셈 아닌가? 다면외교 표현은 예컨대 김현구는 그 이전 시기인 6세기에 친백제 ‘일변도’였기에 외교의 상대가 다변화한 추고조의 그것을 다면외교라고 표현. 이 논법이라면 예컨대 효덕조에도 백제, 신라, 고구려, 당과의 외교가 각각 이어지고 있으니 효덕조의 외교도 다면외교라고 해야 하지 않나...?

다면외교의 형식적 측면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적 측면(핵심 기조 노선의 파악)을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예컨대 효덕조 외교를 등거리-균형외교로 보는 시선과 친백제 혹은 친신라 노선을 중시하는 시각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2) 653년 왜국의 친백제로의 회귀와 길사 장단의 귀국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이는 이후 왜국이 친백제 정책으로 점차 회귀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의자왕 13년(653년) 8월 백제가 왜국과 通好하는 기록이 있다.... 654년 7월 2차 遣唐使로 갔던 吉士 長丹이 귀국하면서 백제 사신과 함께 왜국으로 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변화된 왜국의 대외 기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표-4>에서 보면 2차 견당사 길사 장단의 귀국은 백제와 신라의 송사가 동시에 장단 일행을 호송하였다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특이한 케이스. 백제 송사만이 아닌 신라 송사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에 대해...보충 설명을

3)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와도 관련이 있음..). 길사 장단의 2차 견당사가 654년 7월에 귀국하기도 전에 654년 2월에 고향현리 등의 3차 견당사가 출발하고 있음. 이는 매우 이례적. ..특히 3차의 경우 이미 “일정 부분 추진 동력이 상실된 때”에 “당과의 교류만이라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했다”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이 이례성에 대한 보충 설명을.

4) 효덕 주도설에는 필자도 공감. 본문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효덕의 즉위를 가져온 황극천황의 양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평자는 이것이 을사의 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최초의 양위가 을사의 변 쿠데타로 이루어지고 효덕이 죽은 직후에는 그 황극이 다시 제명천화로 재즉위하는 모양새에 대해 보충설명을 ...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難波長柄豊碕宮을 통해 본 孝德朝의 혁신성

김은정(충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難波 천도와 효덕조의 諸宮
- III. 難波長柄豊碕宮의 구조와 특징
- IV. 조당과 관료제
- V. 맺음말

I. 머리말

효덕조에 건설된 難波長柄豊碕宮(이하 풍기궁)의 소재지는 그것이 대화개신의 存否와 관계가 깊은 만큼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¹⁾ 현재 풍기궁의 소재지는 上町 대지 북서부 계곡에서 7세기 중엽의 토기가 일괄적으로 확인된 것이나, 대화 4년(648)이라는 연기를 알 수 있는 ‘戊申年’ 목간과 『일본서기』의 ‘皇祖母尊’으로 추정되는 ‘王母’ 목간 등을 근거로 상정 대지 북단 즉, 현재 大阪府 大阪市 中央區 法圓坂 주변에 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구 중추부에서 출토된 토기의 연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다량의 토기가 발견된 계곡부 조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²⁾

본 발표에서는 상정 대지 북단에서 확인된 유구가 풍기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풍기궁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효덕조의 관료제가 풍기

1) 풍기궁(전기난파궁)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直木孝次郎, 「大化改新私見」·「孝德朝の難波宮」, 『難波宮と難波津の研究』, 吉川弘文館, 1994 ; 吉川眞司, 「難波長柄豊碕宮の歴史的位置」, 『日本國家の史的特質 古代·中世』, 思文閣出版, 1997 ; 積山洋, 「大極殿の成立と前期難波宮内裏前殿」, 『古代の都城と東アジア-大極殿と難波京』, 清文堂出版, 2013 ; 同, 「初期難波京の造營理念再検討」, 大阪歴史科學協議會編, 『歴史科學』223, 大阪歴史科學協議會, 2016 ; 同, 「前期難波宮研究の課題」, 大阪市立大學難波宮研究會編, 『日本史研究叢刊36 難波宮と大化改新』, 和泉書院, 2020 ; 市大樹, 「難波宮發掘」, 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2002 ; 同, 「難波長柄豊碕宮の造營過程」, 武田佐知子編, 『交錯する知-衣装·信仰·女性-』, 思文閣出版, 2014 ; 同, 「難波長柄豊碕宮の革新性」,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2020 ; 佐藤隆, 「前期難波宮造營過程の再検討:飛鳥宮跡との比較を中心に」, 大阪市文化財協會編, 『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20, 大阪市文化財協會, 2022 ; 村元健一, 「難波宮の立地環境」, 『都城制研究』9, 奈良女子大學 大和·紀伊半島學研究所 古代學·聖地學研究センター, 2015 ; 村元健一, 「前期難波宮と中國宮城」, 『(古代史選書43)日本古代宮都と中國都城』, 同成社, 2022 ; 佐藤隆, 「前期難波宮造營過程の再検討 : 飛鳥宮跡との比較を中心に」, 大阪市文化財協會編, 『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20, 大阪市文化財協會, 2022 등을 참조.

2) 白石太一郎, 「前期難波宮整地層の土器の歷年代をめぐって」,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館報』16, 2012 ; 泉武, 「前期難波宮孝德朝說批判(その2)」, 『考古學論攷』第16冊, 檀原考古學研究所, 2023 등을 참조.

궁의 거대한 조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실태를 헤아려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서기』를 검토하여 효덕이 645년 飛鳥에서 難波로 천도한 후 그가 거주한 궁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풍기궁의 구조, 특히 내리와 조당이 도성사 연구에서 갖는 史的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部民제와 씨족제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효덕조의 관료제와 풍기궁에 설치된 거대한 조당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괄목할 만한 발굴 조사 성과와 7세기 목간이 출토됨에 따라 대화개신의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발표도 풍기궁의 혁신성을 이해하고, 효덕조에 단행된 대화개신의 의미를 재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II. 難波 천도와 효덕조의 諸宮

645년 6월 12일 소아씨 본종가를 멸망시킨 을사의 변이 일어난 후 황극 천황의 양위로 49세의 나이에 즉위한 효덕은 대화 원년(645) 12월 9일 나니와로 천도하였다. 하지만 그해 봄부터 여름까지 쥐가 아스카에서 나니와로 이동했다는 소위 천도를 뜻하는 징조를 『일본서기』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³⁾ 효덕은 을사의 변 직후에 나니와 천도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로써 나니와는 645년 12월부터 효덕이 풍기궁의 正寢에서 생을 마치는 백치 5년(654) 10월⁴⁾까지 도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천도 이후 효덕이 나니와에서 거주한 宮으로는 子代離宮, 蝦蟇行宮, 小郡宮, 難波碕宮, 味經宮, 大郡宮, 難波長柄豐碕宮이 있다. 자대이궁은 효덕이 자대 둔창을 개축한 것으로, 효덕은 이곳을 대화 2년(646) 정월부터 2월 중순 이후까지 임시 거처로 삼았다.⁵⁾ 자대이궁의 소재지는 大阪市 상정 대지 북서쪽 지역으로 추정된다. 646년 9월에는 나니와의 掘江 인근에 있는 蝦蟇行宮⁶⁾에 머물기도 하였다.⁷⁾ 또한 대화 4년(648) 정월에는 소군궁에서 원일조하 의식을 마친 후 難波碕宮에 행차했는데,⁸⁾ 난파기궁이 백치 2년(651)의 난파장병풍기궁과 명칭이 유사한 점을 들어 동일한 궁으로 보기도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효덕이 나니와로 도읍을 옮긴 이후 이궁을 전전한 것은 당시 나니와

3)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원년(645) 12월 을미삭 계묘(9일)조 “天皇遷都難波長柄豐碕. 老人等相謂之曰, 自春至夏鼠向難波, 遷都之兆也.”

4)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5년(654) 10월 임자(10일)조 “天皇崩于正寢. 仍起殯於南庭. 以小山上百舌鳥土師連土德主殯宮之事.”

5)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2년(646) 정월 시월조 “天皇御子代離宮. 遣使者, 詔郡國修營兵庫. 蝦夷親附.<或本云, 壞難波狹屋部邑子代屯倉而起行宮.>”, 『同』 同 2월 을묘(22일)조 “天皇還自子代離宮.”. 難波狹屋部邑의 狹屋部邑은 지명으로, 현재 大阪市 內高津 일대로 추정된다.

6)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2년(646) 9월 시월조 “天皇御蝦蟇行宮.<或本云, 離宮.>”

7) 그 밖에도 효덕은 대화 3년(647) 12월 그믐에 有馬溫湯에서 돌아와 현재 兵庫縣 남부를 흐르는 武庫川 서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武庫行宮에 머물렀다(『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3년(647) 12월 그믐조 “天皇還自溫湯, 而停武庫行宮.<武庫, 地名也.>”). 하지만 효덕이 무고행궁에 머문 것은 유마온천 행차에 따른 것으로, 자대이궁이나 하마행궁의 사용법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8)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4년(648) 정월 임오삭조 “賀正焉. 是夕天皇幸于難波碕宮.”

에 正宮으로 삼기에 적합한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니와에서 효덕의 정궁으로 추정되는 것은 대화 3년(647) 나니와의 小郡이라는 외교용 관사를 허물고 지은 小郡宮⁹⁾이다. 효덕은 소군궁에 머물면서 관인들의 등·퇴청 시간에 관한 예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나니와에는 大郡宮도 확인되는데,¹⁰⁾ 이곳에서 효덕은 풍기궁이 완성되기 전까지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효덕의 정궁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味經宮이다. 효덕은 백치 원년(650) 정월 초하루에 아지후(阿膩賦)¹¹⁾로 불리는 미경궁에 행차하여 원일조하 의식에 참여하였다.¹²⁾ 영제하에서 천황이 대극전에 출어한 가운데 황태자 이하 문무백관이 朝廷에 列立하는 대규모 궁정 의례가 미경궁에서 열렸다는 것은, 미경궁의 규모가 원일조하 의식을 치르기에 적합했다는 것을 뜻한다. 미경궁에 대한 이러한 추정은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사료-1】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2년(651) 12월 그믐조

미경궁에 2천 1백여 명의 승니를 초청하여 일체경을 읽게 하였다. 이날 저녁에 2천 7백여 개의 등을 뜰(朝廷)에 밝히고, 안택·토축 등의 경을 읽게 하였다. 이때 천황은 (거처를) 대군(大郡)에서 옮겨 신궁(新宮)에 거하였다. 부르기를 난파장병풍기궁이라 하였다.

〔“於味經宮請二千一百餘僧尼，使讀一切經。是夕，燃二千七百餘燈於朝廷內，使讀安宅·土側等經。於是天皇從於大郡遷，居新宮。號曰難波長柄豐碕宮。”〕

【사료-2】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3년(652) 秋9월조

(난파장병풍기궁)의 조영을 마쳤다. 그 궁전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造宮已訖。其宮殿之狀不可殫論。”〕

효덕은 미경궁에서 원일조하 의식을 치르고 이듬해인 백치 2년(651) 12월 그믐에, 무려 2천 1백여 명의 승니를 초청하여 일체경을 소리내어 읽게 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미경궁의 뜰(朝廷)에 2천 7백여 개의 등을 환하게 밝히고, 미경궁의 평온무사를 기원하는 안택경과 토축경 등을 읽게 하였다. 이후 효덕은 대군궁에서 新宮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서 신궁은 문맥상 미경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쨌든 미경궁 즉, 풍기궁은 적어도 2천 명 이상의 승려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왕궁이었다. 그리고 【사료-2】에 따르면 풍기궁은 백치 3년(652) 9월쯤에 완성되었고,¹³⁾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

9)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3년(647) 시세조. 현재 소군궁의 위치는 천평보자 4년(760) 11월 「東大寺三綱牒」에 西成郡 美怒郷에 있는 장원(庄)의 경계로 「東，小郡前西谷」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西成郡에 조성된 궁으로 보고 있다(『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4 日本서기』(小學館) 대화 3년(647) 시세조의 분주 참조).

10)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3년(652) 춘정월 기미삭조 “元日禮訖，車駕幸大郡宮.”

11) 『萬葉集』에는 성무 천황이 신귀 2년(725) 難波에 행차했을 때 笠金村에서 지은 노래에 ‘味經の原’(928번), 田邊福麻呂가 難波宮에서 지은 노래에 ‘味經の宮’(1062번)가 실려 있다. 이 두 노래를 통해 8세기 성무조에 건설된 後期難波宮 일대가 味經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발굴 조사에서 후기난파궁과 전기난파궁(풍기궁)의 관계를 생각하면, 풍기궁과 미경궁은 동일한 궁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한편 『和名類聚抄』에 東生郡 味原郷이 보이며, 아지후(미경)는 현재 大阪市 天王寺區 味原町 주변 일대로 상정하고 있다.

12)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원년(650) 정월 신축삭조 “白雉元年春正月辛丑朔，車駕幸味經宮，觀賀正禮。〈味經，此云阿膩賦。〉是日車駕還宮。”

13) 市大樹는 대화 2년(646) 자대이궁에서 돌아온 이후 풍기궁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으며(同, 「子代離

려하고 응대하였다.

이상으로 효덕이 645년 나니와로 도읍을 옮긴 이후 그가 사용했던 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도 직후 효덕은 둔창을 개축해서 사용하거나, 기존에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궁에 머물렀다. 아마도 을사의 변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위한 효덕이, 치세 초반에 자신의 통치 이념을 구현할 도성을 계획하고 건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백치 3년(652)에 완성된 미경궁 즉, 풍기궁은 효덕조의 통치 이념과 방향성이 비로소 반영된 왕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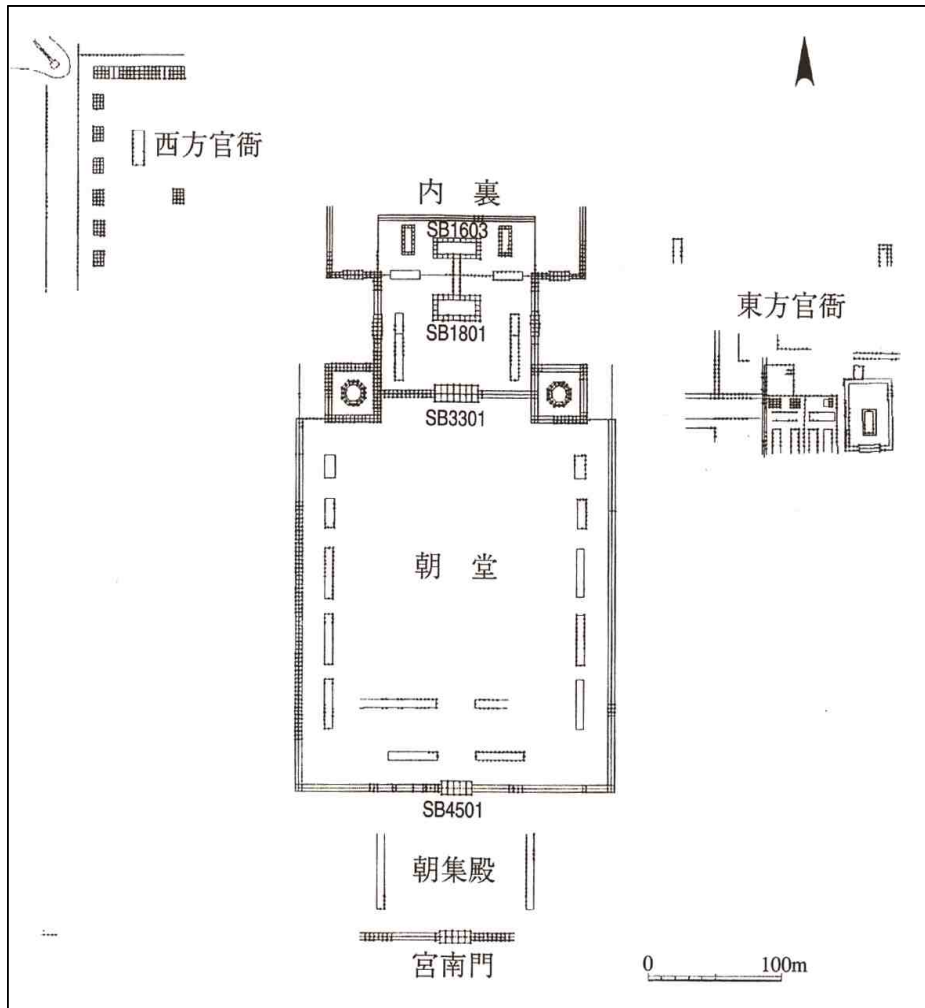
Ⅲ. 難波長柄豊碕宮의 구조와 특징

본 절에서는 풍기궁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 나니와로 천도하기 직전 왕궁이었던 황극조의 飛鳥板蓋宮과 아스카로 환도한 이후 왕궁으로 사용한 제명조의 後飛鳥岡本宮의 구조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풍기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풍기궁은 사방이 650미터 이상 되는 거대한 왕궁으로, 건축물은 굴립주 건물지로 지붕은 기와가 아닌 나무판자 등을 사용하였다. 궁의 중심은 남문-조당원-내리가 남북축 선상에 일직선으로 배치되었고, 동서 방향에서 관아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리 남문 좌우에서는 복랑 구조를 한 팔각형의 누각 건물지가 검출되었다.¹⁴⁾ 이러한 풍기궁의 구조는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이례적인 왕궁으로 평가받고 있다.

宮と小郡宮-難波長柄豊碕宮遷居への道程-, 辻尾榮市氏古稀記念論叢刊行會編, 『歴史・民族・考古學論叢(Ⅰ)』, 郵政考古學會, 2019.), 吉川眞司는 풍기궁의 조영이 시작된 시점을 대화 5년(649)으로 보았다(吉川眞司, 「難波長柄豊碕宮の歴史的位置」, 『日本國家の史的特質 古代・中世』, 思文閣出版, 1997.). 백치 원년(650) 겨울 10월에 풍기궁의 조영으로 개인의 묘가 파괴되거나 이주하게 된 자들에게 物을 하사하고, 將作大匠 荒田井直比羅夫를 보내서 궁의 경계 지역에 표시케 하였다. 따라서 풍기궁의 전체 宮域은 650년에 가서야 결정되었을 것이다(『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원년(650) 冬10월조 “爲入宮地, 所壞丘墓及被遷人者, 賜物各有差. 即遣將作大匠荒田井直比羅夫, 立宮堺標.”).

14) 이 건물지를 須彌山 등을 모방한 불교 시설로 보기도 한다.



【그림 1】難波長柄豊埼宮(前期難波宮)

발표자가 【그림 1】에서 주목하고 싶은 곳은 内裏 구획이다. 내리는 중간에 담장(塀)을 둘러 後殿(SB1603)과 前殿(SB1801)을 구분하였고, 지면은 잔돌을 깔아 포장하였다. 후전은 천황의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생각되며, 전전은 남문(SB3301)을 사이에 두고 조당과 맞닿아 있는 만큼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추정된다. 이전 왕궁에서 大殿은 대왕(천황)의 공적인 정치 공간인 동시에 사적인 생활 공간이었다. 岸俊男이 『일본서기』의 내용을 근거로 복원한 추고조의 小墾田宮의 구조 즉, 宮門·南門-朝庭·廳(朝堂)-大門·閣門-大殿 순으로 배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¹⁵⁾ 대전은 천황의 공과 사가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풍기궁에 이르러 대전은 공과 사가 분리되었고, 그 모델을 당 장안성의 太極殿과 그 뒤쪽에 있는 兩儀殿의 관계에서 찾았다.¹⁶⁾

내리 전전 구획은 전전의 동서 방향에서 설치된 장방형의 건물지와 두 건물지 사이에 약 75미터, 동서 45미터가량의 넓은 뜰을 갖춘 공간이다. 아마도 이곳은 황족이나 제한된 관

15) 岸俊男, 『日本古代宮都の研究』, 岩波書店, 1988, 241~242쪽.

16) 佐藤武敏, 「唐の朝堂について」, 難波宮址を守る會編, 『難波宮と日本古代國家』, 塙書房, 1977.

인들만 출입했을 것이며, 이때 관인들은 뜰에 列立한 가운데 천황에게 예를 표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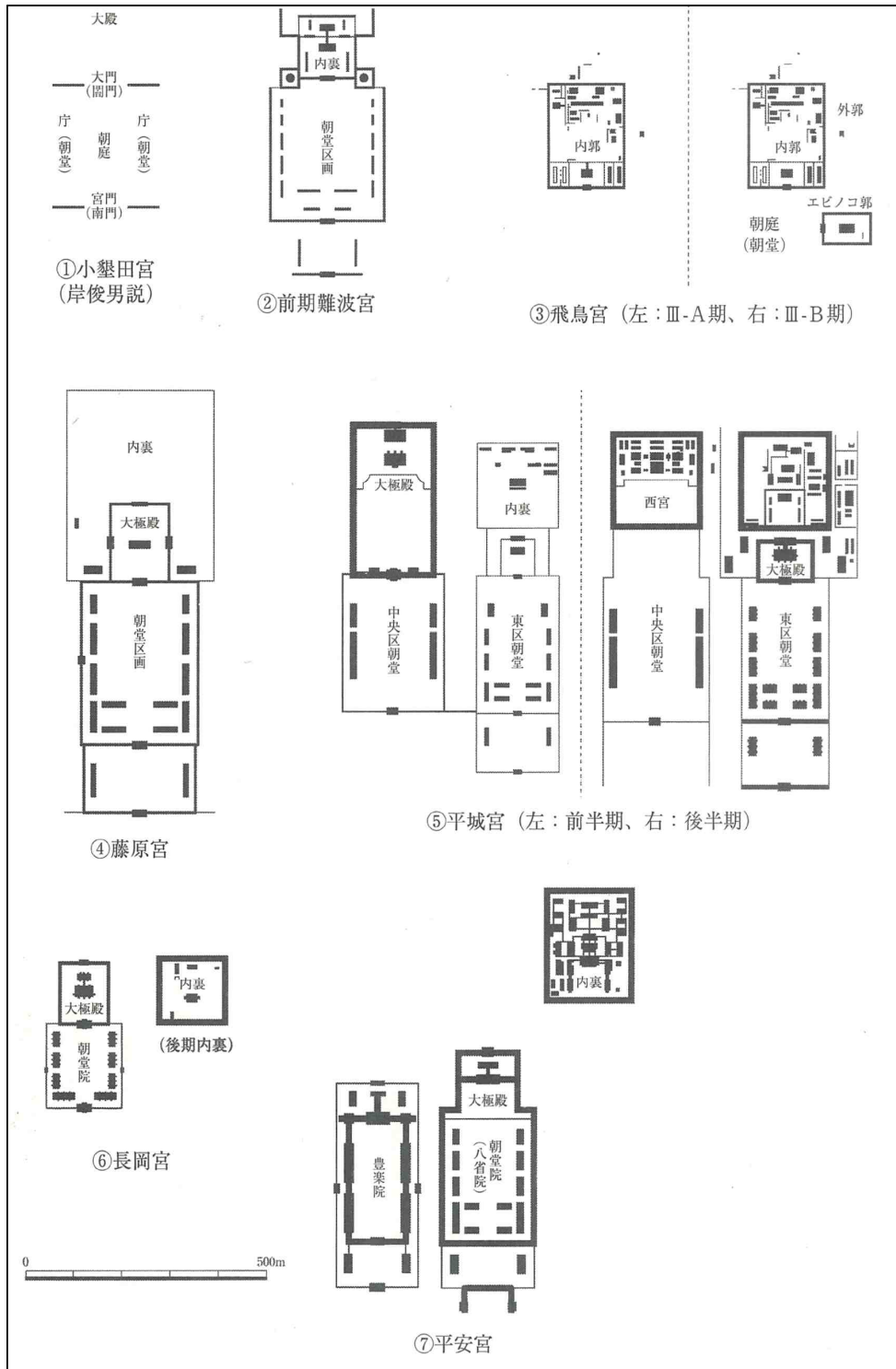
풍기궁에서 가장 혁신적인 유구는 거대한 조당 구획으로, 조당은 동서 약 232미터, 남북 약 263미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북쪽 중앙에는 내리 남문(SB3301)을, 남쪽 중앙에는 조당 남문(SB4501)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안쪽으로 동서 방향에 14동 이상(또는 16동)의 堂(廳)을 대칭으로 배치하였고, 중앙에는 넓은 뜰(朝廷)이 있다. 조당의 남문 밖에는 관인들이 등청할 때 대기 장소로 사용한 朝集殿을 동서 방향에 1동씩 설치하였고, 그 남쪽에서 조당 남문과 같은 규모의 宮城 남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당의 규모는 일본 최초의 도성인 藤原宮에 설치된 조당에 필적할 만하다.

풍기궁은 唐의 도성 설계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한 궁으로 평가받고 있다. 北闕型 도성을 의식하여 왕궁터를 상정 대지 북쪽 끝자락에 잡은 점, 내리 전체가 역으로 볼록한 형태(凸)를 취한 점, 남북축 선을 기준으로 궁의 중추부를 내리-조당-조집당으로 배치한 점 등을 주목한 것이다.¹⁷⁾ 그렇다면 풍기궁에 설치된 14당 이상의 유래도 당 장안성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안성 承天門 남쪽 좌우에서는 각각 1동의 堂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풍기궁 조당은 일본의 독자성이 강하게 드러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도 바로 이러한 독특한 구조의 조당이야말로 효덕조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열쇠라고 생각한다.¹⁸⁾

풍기궁의 조당은 일본 도성의 발달 측면에서도 이례적이다. 나니와로 천도하기 전 아스카에 건설된 여러 궁을 비롯해 효덕조 이후에 조영된 궁에서도 14동을 넘는 조당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풍기궁에 이어 제명조의 후비조강본궁은 내곽 南院에 4동, 등원궁·평성궁 동구·평안궁은 12동, 후기난파궁·장강궁은 8동을 설치했을 뿐이다.

17) 市大樹, 「難波長柄豊碕宮の革新性」,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2020, 70~71쪽 ; 積山洋, 「大極殿の成立と前期難波宮内裏前殿」, 『古代の都城と東アジア-大極殿と難波京』, 清文堂出版,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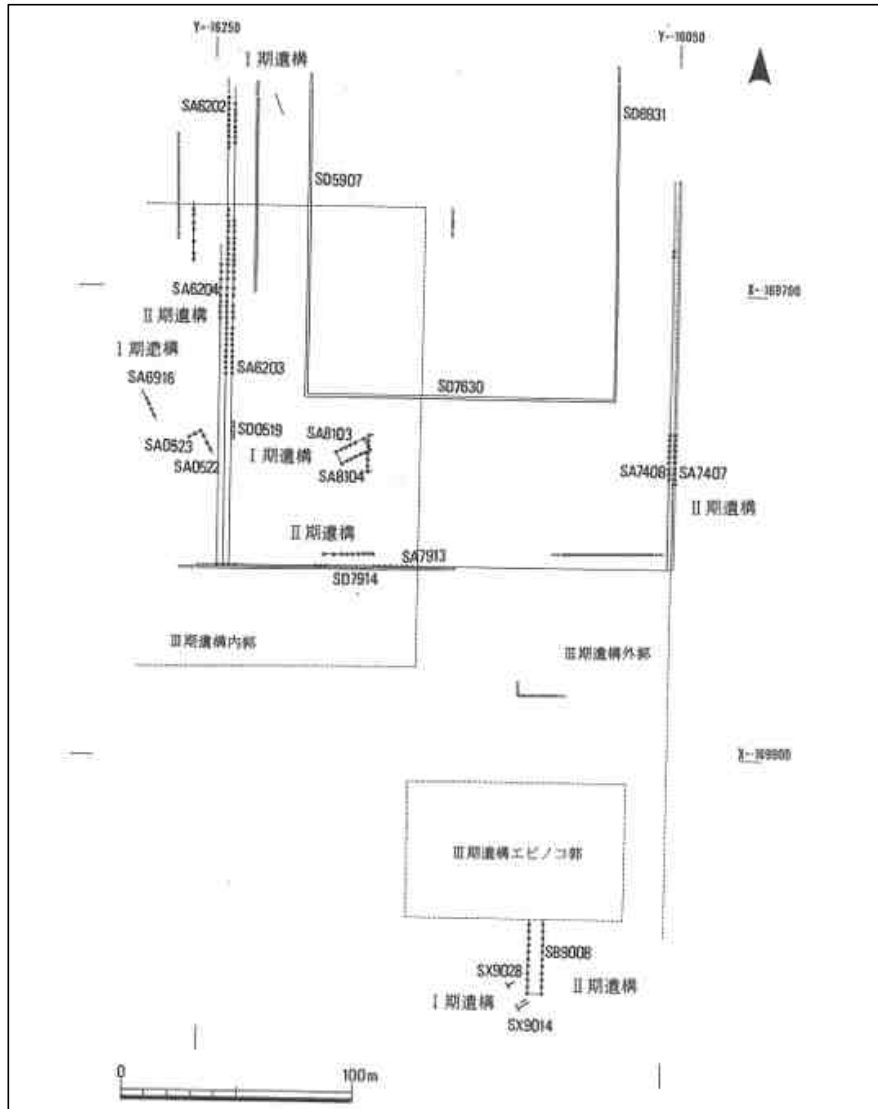
18) 서보경은 전기나파궁에 설치된 조당원의 규모가 큰 이유로 上京하여 朝集한 지방 호족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내리·조당원의 웅대함과 권위를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서보경, 「難破朝廷의 宮殿과 朝參·朝儀」, 『백제연구』 6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4. 21쪽.).



【그림 2】 조당의 변천

풍기궁은 황극의 정궁인 비조판개궁과 비교했을 때 상호 관련성이 거의 없다. 즉,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592년 額田部 황녀(추고 천황)가 浦豊宮에서 즉위한 이후부터 694년 지통 천황이 등원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아스카 지역에는 여러 궁이 건설되었

다. 황극의 비조판개궁은 飛鳥京 유적 발굴 조사에서 검출된 3개의 층으로 이뤄진 왕궁 유구에서 Ⅱ기(중층)에 해당한다. 참고로 Ⅰ기는 서명조의 飛鳥岡本宮, Ⅲ-A기는 제명·천지조의 後飛鳥岡本宮, Ⅲ-B기는 천무·지통조의 飛鳥淨御原宮에 비정되고 있다.¹⁹⁾



【그림-3】 飛鳥宮 Ⅰ기 유구(비조강본궁)·Ⅱ기 유구(비조판개궁)

Ⅱ기에 해당하는 비조판개궁의 범위는 동서 약 190미터, 남북 198미터 이상이며, 대대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궁 조영에 착수하였다. 굴립주 담, 정방형의 건물지, 회랑형 시설, 도랑 등이 검출되었으나, 내리 또는 조당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 조사

19) 飛鳥京 유적 발굴 조사 성과와 관련해서는 小澤毅, 『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青木書店, 2003 ; 林部均,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 青木書店, 2001 ; 同, 『飛鳥の宮と藤原京-よみがえる古代王宮』(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吉川弘文館, 2008 ; 同, 『飛鳥の宮と藤原京-よみがえる古代王宮』(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吉川弘文館, 2008 등을 참조.

수 있듯이 III-A기는 내·외곽으로 구분되며, 내곽은 남북 약 197미터, 동서 152미터~156미터의 장방형이다. 내곽 내부는 동서 방향의 담과 도랑을 이용하여 북·중·남구 3구획으로 구분하였다. 내곽 북구에서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건물지(SB6205), 대형 우물, 굴립주 담, 도랑 등이 검출되었다. 유구가 내곽 북구에서 검출된 것이나 건물지의 형태로 보아 이곳은 천황이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해 설계한 공간 즉, 내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내곽 중구에서는 동일한 모양의 동서로 긴 장방형의 건물지 SB0301과 SB0501, 두 건물지 좌우에서 회랑으로 연결된 脇殿이 확인되었다. 두 건물지의 구조, 규모, 위치 등으로 볼 때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건물지 SB0501 주변에서 검출된 幢幡을 세운 주혈과 앞에 있는 뜰은 8세기 이후 元日朝賀 의식이 열린 대극전과 前庭의 구조를 연상케 한다.²¹⁾ 그리고 내곽 남쪽 구획에서는 건물지 SB7910, 그 우측에서 장방형의 건물지 SB8505와 SB7401이 검출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두 건물지를 조당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후비조강본궁에는 좌측에 대칭으로 설계되었을 두 건물지까지 포함해서 모두 4동의 조당이 설치되었다.

후비조강본궁의 플랜에서는 지형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황극조의 비조판개궁과는 달리 내리와 조당 구획을 조성하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풍기궁과 비교하면 내리는 여전히 공과私家 분리되지 못하였고, 조당은 堂(廳)의 개수는 물론 堂과 함께 의례, 정무 등의 장으로 사용된 뜰의 위치와 규모가 전혀 달랐다. 이것은 왕궁에 대한 인식이 효덕조와 달랐거나,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아스카에서 풍기궁과 같은 구조의 왕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풍기궁의 내리와 조당 구획이 갖는 의미는 더욱 명료해진다. 효덕은 새롭게 설계된 내리와 조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아스카와 때와는 다른 자신만의 통치 공간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을 아니었을까? 발표자는 그 대답을 효덕조의 관료제에서 모색하고 싶다.

IV. 조당과 관료제

조당의 그 본질은 即位·元日朝賀와 같이 국가의 大禮를 거행하는 의례 공간,²²⁾ 관인들이 매일 등청하여 업무를 보는 정무 공간,²³⁾ 의례와 정무를 위한 공간,²⁴⁾ 5위 이상의 관인이 천황의 명령을 기다리고 봉사하기 위한 侍候 공간²⁵⁾으로 평가될 만큼 조당과 관인은 불가

21) 『속일본기』 권제 2 문무 천황 대보 원년(701) 춘정월 을해삭조 “天皇御大極殿受朝. 其儀, 於正門樹烏形幢. 左日像·青龍·朱雀幡, 右月像·玄武·白虎幡, 蕃夷使者, 陳列左右. 文物之儀, 於是備矣.”

22) 關野貞, 「平城京及大内裏考」, 『東京帝國大學紀要』工科 第3冊, 東京帝國大學, 1907.

23) 岸俊男, 「朝堂の初歩的考察」, 檀原考古學研究所 編,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創立三十五周年記念』, 吉川弘文館, 1975.

24) 今泉隆雄, 「平城宮大極殿朝堂考」·「平城宮大極殿朝堂再論」, 『古代宮都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 志村佳名子, 「日本古代の朝參制度と政務形態」·「朝堂の成立とその機能」, 『日本古代の王宮構造と政務·儀禮』, 塙書房, 2015.

25) 吉川眞司, 「王宮と官人社會」,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 3 社會集團と政治組織』, 岩波書店, 2005.

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효덕조에 거대한 조당을 설치한 이유는 왕궁의 총설계자인 효덕과 당시 관인 간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효덕은 위계를 갖고 있는 관인이 이른 아침에 조정에 나와서 천황에게 문안드리는 朝參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등청하여 조당(廳과 뜰)에서 정무 보기를 원했다. 【사료-3】은 관인들의 등·퇴청 시간을 제정한 것이다.

【사료-3】『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3년(647) 시세조

이 해에 소군을 헐고 궁전을 세웠다. 천황은 소군궁에 머물면서 예법을 정하였다. “무릇 위계가 있는 사람(有位者)은 반드시 인시(寅時, 오전 3~5시)에 (소군궁의) 남문 밖에서 좌우로 줄을 서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렸다가, 뜰(庭)로 나아가 再拜하고, 廳에 들어 근무하라. 늦게 온 자는 들어가 근무할 수 없다.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가 되어 종소리를 듣고 퇴근하라. 종을 치는 관리는 붉은 두건을 앞으로 늘어뜨려라. 종을 놓는 臺는 中庭에 세워라.” (생략)

(“壞小郡而營宮. 天皇處小郡宮, 而定禮法. 其制曰, 凡有位者, 要於寅時, 南門之外, 左右羅列, 候日初出, 就庭再拜, 乃侍于廳. 若晚參者, 不得入侍. 臨到午時, 聽鍾而罷. 其擊鍾吏者, 垂赤巾於前. 其鍾台者, 起於中庭. (생략).”)

위 사료에 의하면 관인은 오전 3~5시에 등청하여 소군궁 남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 조당 안으로 들어가 뜰(朝庭)에서 천황에게 두 번 반복해서 예를 표한 후, 堂(廳)에서 中庭에 설치한 종이 울리는 오후 1시까지 정무를 봐야 했다.²⁶⁾ 여기서 말하는 有位者는 대화 3년(647) 織·繡·紫·錦·靑·黑이라는 6개의 冠을 대소로 나눈 12계에, 建武冠을 더한 13계²⁷⁾의 冠位 소지자를 말한다. 이 관위 13계는 추고조에 인재 등용을 위해 관위 12계²⁸⁾를 제정한 이래 무려 40여 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효덕조에 관위를 13계로 제정한 이유는 추고조 때 신하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추고 천황으로부터 관위를 하사받지 않았던 소아하이와 소아입록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효덕은 관위 제 개편을 통해 신하들에게 관위를 하사하는 주체는 천황이라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²⁹⁾ 따라서 대화 5년(649)에 13계에서 19계³⁰⁾로 관위가 늘

26) 養老令에 의하면 궁에 설치된 문을 상시 개문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개문하고 폐문하였다. 그리고 궁문을 열고 닫을 때 알림 도구로 사용한 것은 종이 아니라 북이었다(『令義解』 권5 宮衛令 開閉文條 “凡開閉門者. 第一開門鼓擊訖. 即開諸門. 第二開門鼓擊訖. 即開大門. 退朝鼓擊訖. 即閉大門. 晝漏盡. 閉門鼓擊訖. 即閉諸門(理門不在開限.) 京城門者. 曉鼓聲動則開. 夜鼓聲絕則閉. 其出入鑰者. 第一開門鼓以前三刻出. 閉門鼓以後三刻進. 即諸衛按檢所部及諸門. 持時行夜者. 皆須執仗巡行. 分明相識. 每旦色別一人. 詣在直官長. 通平安.”)

27)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3년(647) 시세조 “制七色一十三階之冠一曰. 織冠. 有大小二階. 以織爲之. 以繡裁冠之緣. 服色並用深紫. (생략).”

28) 『일본서기』 권제22 추고 천황 11년(603) 12월 임신(5일)조 “始行冠位. 大德·小德·大仁·小仁·大禮·小禮·大信·小信·大義·小義·大智·小智. 并十二階. 並以當色純縫之. 頂撮總如囊. 而著緣焉. 唯元日著髻華.<髻華, 此云于孺.>”

29) 井上光貞, 「冠位十二階とその史的意義」, 『日本歴史』176, 吉川弘文館, 1963, 289~290쪽.

30) 관위 19계는 대화 3년(647)의 관위 13계와 비교하면 大織에서 小紫까지 6계는 같지만, 大錦·小錦이 大花·

어난 것은 관직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으나,³¹⁾ 그 기저에는 천황 중심으로 관인 질서를 재편하려는 효덕의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7세기 전반 관위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관인들의 朝參, 등·퇴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604년 추고조는 群卿과 百僚에게 아침 일찍 조정에 와서 公事(의식과 정무 등)에 종사하라고 명령했으며,³²⁾ 636년 서명조는 조참을 게을리하는 군경과 백료를 탓하며, 그들에서 조정에 와서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정무에 임하라고 명령하였다.³³⁾ 따라서 【사료-3】은 관인들의 구태의연한 옛 모습 즉, 部民적 또는 씨족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는 관료제³⁴⁾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효덕의 바람이 담긴 예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왜 풍기궁에 14당 이상의 堂과 넓은 뜰을 갖춘 조당이 설치되었는지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

8세기 이후 조당의 사용법을 보면 12당의 각 堂에는 朝座로 불리는 자리가 설치되었고, 관인들은 자신이 속한 관사가 배정받은 堂에 앉아 업무를 보았다.³⁵⁾ 이러한 朝堂儀가 아직 율령제적 官制가 성립되지 않은 효덕조에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645년 대화개신 당시 左大臣, 右大臣, 內臣, 國博士를 둔 것이나,³⁶⁾ 대화 5년(649)에 8省³⁷⁾과 百官을 설치한 것을 보면,³⁸⁾ 효덕조에도 관사와 관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당의 관제를 모방한 將作大匠³⁹⁾, 刑部尚書,⁴⁰⁾ 衛部⁴¹⁾를 비롯해 判事⁴²⁾ 등이 확인되고 있어,⁴³⁾

小花로, 大靑·小靑이 大山·小山으로, 大黑·小黑이 大乙·小乙로 변경한 후 이들을 상하로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建武는 立身으로 바꾸었다(『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5년(649) 2월조 “制冠十九階. 一曰, 大織. 二曰, 小織. 三曰, 大繡. 四曰, 小繡. 五曰, 大紫. 六曰, 小紫. 七曰, 大華上. 八曰, 大華下. 九曰, 小華上. 十曰, 小華下. 十一曰, 大山上. 十二曰, 大山下. 十三曰, 小山上. 十四曰, 小山下. 十五曰, 大乙上. 十六曰, 大乙下. 十七曰, 小乙上. 十八曰, 小乙下. 十九曰, 立身.”)

31) 坂本太郎,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1938, 422~423쪽.

32) 『일본서기』 권제22 추고 천황 12년(604) 4월 병인삭 무진(3일)조 “皇太子親肇作憲法十七條. (생략), 八曰, 群卿百寮早朝晏退. 公事靡盬, 終日難盡. 是以遲朝不逮于急. 早退必事不盡. (생략)”.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에는 신하들의 궁문 출입에 관한 작법, 특히 중국풍의 立禮를 규정하였다(『일본서기』 권제22 추고 천황 12년(604) 秋9월조 “改朝禮. 因以詔之曰, 凡出入宮門, 以兩手押地, 兩脚跪之. 越楯則立行.”).

33) 『일본서기』 권제23 서명 천황 8년(636) 秋7월 기축삭조 “大派王謂豐浦大臣曰, 群卿及百寮朝參已懈. 自今以後, 卯始朝之, 已後退之. 因以鍾爲節. 然大臣不從.”

34) 磐下徹, 「前期難波宮の朝堂院-孝德朝の「官僚制」,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2020, 88~89쪽.

35) 『儀式』 권제9 朝堂儀.

36)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즉위 전기 황극 천황 4년(645) 6월 경술(14일)조 “(생략), 是日, 奉號於豐財天皇曰皇祖母尊, 以中大兄爲皇太子. 以阿倍內麻呂臣爲左大臣, 蘇我倉山田石川麻呂臣爲右大臣, 以大錦冠授中臣鎌子連, 爲內臣, 增封若干戶, 云云. 中臣鎌子連懷至忠之誠, 拋宰臣之勢, 處官司之上. 故進退廢置計從事立, 云々. 以沙門旻法師·高向史玄理爲國博士.”

37) 대보령에 규정된 8성과 같은 중앙행정 조직은 아니었지만, 하위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8)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대화 5년(649) 2월 시월조 “詔博士高向玄理與釋僧旻, 置八省·百官.”

39)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지 원년(650) 冬10월조 “爲入宮地, 所壞丘墓及被遷人者, 賜物各有差. 即遣將作大匠荒田井直比羅夫, 立宮界標.”

40) 『속일본기』 권제4 원명 천황 화동 원년(708) 閏8월 정유(8일)조 “攝津大夫從三位高向朝臣麻呂薨. 難波朝廷刑部尚書大花上國忍之子也.”

41) 『속일본기』 권제7 원정 천황 양로 원년(717) 3월 계묘(3일)조 “左大臣正二位石上朝臣麻呂薨. 帝深悼惜焉, 爲之罷朝. 詔遣式部卿正三位長屋王, (중략), 大臣, 泊瀨朝倉朝庭大連物部目之後, 難波朝衛部大華上宇麻乃之子也.”

42) 『일본서기』 권제26 제명 천황 4년(658) 11월 경인(11일)조 “遣丹比小沢連國襲絞有間皇子於藤白坂. 是日, (생략), <可至成人而待其德. 他日有間皇子與一判事謀反之時, 皇子案机之脚, 无故自斷. 其謀不止, 遂被誅戮也.>”

43) 東野治之, 「大化以前の官制と律令中央官制-孝德朝の中央官制を中心として-, 『長屋王木簡の研究』, 塙書

효덕조에 꽤 많은 관사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효덕조의 관인들은 풍기궁 조당에 설치된 堂에서 정무를 처리했으며, 이때 하급 관인은 堂 앞에 있는 뜰에 서서 堂에 있는 상급 관인을 향해 口頭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早川庄八에 따르면 고대 일본에서 공문서 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일상적인 정무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음성에 생명(コトダマ, 言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정무 방식은 관료제가 정비된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서, 공문서가 다방면에 걸쳐 사용된 8세기에도 即位·讓位, 立后, 立太子, 改元, 敍位, 任官 등의 의식에서 宣命體⁴⁵⁾로 기록된 천황의 명령이 구두로 선포되었다. 이때 의식의 場은 원칙적으로 천황이 출어하는 대극전과 신하가 列立하는 뜰(前庭)이었다.

효덕조에도 조당의 뜰과 내리 전전의 뜰은 元日朝賀, 白雉 진상과 같은 의례의 장으로 사용되었다. 백치 원년(650) 정월 초하루 미경궁 즉, 풍기궁에서 원일조하 의식이 열렸는데,⁴⁶⁾ 이때 조당의 뜰은 원일조하 의식을 치르는 데 중요한 공간이었다. 고대 일본에서 원일조하는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군신 간 상호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궁정 의례이다. 문무 천황 대보 원년(701)에 실시된 원일조하를 보면, 문무 천황이 등원궁 대극전에 출어한 가운데, 대극전 남문 앞에는 벽사의 기능이 있는 鳥形幢, 일·월 모양 및 사신(청룡·주작·현무·백호)의 번을 매달아 세웠다.⁴⁷⁾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천황을 보호하고 의식의 장을 더욱 장엄하게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대극전 남문 앞에 펼쳐진 넓은 뜰에는 문무백관은 물론 전년도에 내조한 신라사가 列立하였는데, 이러한 무대 연출을 통해 천황과 신하의 관계, 신하와 신하 간의 차이는 시각적으로 더욱 명확해졌을 것이다.

풍기궁에서 열린 원일조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사료-4】의 白雉 진상 기사는 이러한 발표자의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백치 원년(650) 2월 9일에 穴戶國司 草壁連醜經이 國造首의 일족인 贊가 麻山에서 잡은 백치를 조정에 올렸다. 이를 본 승려 민법사가 흰 꿩은 길조이며 왕의 치세에 따라 백치가 나타난다고 말하자 백치는 祥瑞⁴⁸⁾로 인정되어 황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⁴⁹⁾ 그리고 그로

房, 1996, 319~322쪽.

44) 早川庄八은 의식의 場에서 선포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선포했다는 것, 신하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早川庄八, 「前期難波宮と古代官僚制」, 『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 岩波書店, 1986, 309~314쪽).

45) 仁藤敦史, 「宣命」, 『文字と古代日本1 支配と文字』, 吉川弘文館, 2004, 78쪽. 八木充, 「古代の即位宣命」, 柴田實先生古稀記念會編, 『日本文化史論叢』, 柴田實先生古稀記念會, 1978.

46) 백치 3년(652)의 원일조하도 풍기궁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대화 2년(646), 대화 4년(648)에도 관련 기사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효덕은 천도 후 매년 원일조하 의식을 거행한 듯하다.

47) 『속일본기』 권제2 문무 천황 대보 원년(701) 춘정월 을해삭조 “天皇御大極殿受朝, 其儀, 於正門樹鳥形幢, 左日像·青龍·朱雀幡, 右月像·玄武·白虎幡, 蕃夷使者, 陳列左右, 文物之儀, 於是備矣.”

48) 平安시대 중기에 편찬된 『延喜式』 治部省式 祥瑞條에 따르면 상서로 규정된 것에는 모두 144종류가 있으며, 백치는 中瑞에 해당한다.

49)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원년(650) 2월 경오삭 무인조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曰, 國造首之同族贊,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又問沙門等, 沙門對曰, 耳所未聞, 目所未觀. 宜赦天下, 使悅民心, 道登法師曰, 昔高麗欲營伽藍, 無地不覺, 便於一所白鹿徐行. 遂於此地營造伽藍, 名白鹿園寺, 住持佛法. 又白雀見于一寺田庄. 國人僉曰, 休祥. 又遣大唐使者, 持死三足鳥來, 國人亦曰, 休祥. 斯等雖微, 尚謂祥物. 況復白雉. 僧旻法師曰, 此謂休祥足爲希物. 伏聞, 王者旁流四表, 則白雉見. 又王者祭祀不相踰, 宴食·衣服有節則至, 又王者清素, 則山出白雉. 又王者仁聖則

부터 6일이 지난 2월 15일에 백치는 효덕에게 진상되었다.

【사료-4】 『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원년(650) 2월 갑신(15일)조

조정의 隊仗(대오와 의장)이 원일조하 의식 때와 같았다. 좌우대신과 백관들이 자문(紫門, 내리 남문) 밖에 네 줄로 서 있으며, 속전신반중 등 4명이 꿩이 든 가마를 들고 선두에 나아갔다. 그리고 좌우대신, 백관 및 백제군풍장, 아우 塞城, 충승, 고구려의 侍醫 모치, 신라의 侍學士 등을 거느리고 中庭에 이르렀다. 삼국공마려, 저명공마려, 저명공고견, 삼륜군웅수, 기신호마려기태 등 4명은 교대로 꿩이 든 가마를 들고 대전(내리 전전) 앞으로 나왔다. 이때 좌우대신이 나아가 가마의 앞쪽을 들고 이세왕, 삼국공마려, 창신소시가 뒤쪽을 들어 御前(옥좌) 앞에 내려놓았다. 천황이 곧 황태자를 불러 함께 손에 들고 보았다. 황태자는 물러나서 재배하였다. (생략)

〔“朝庭隊仗，如元會儀。左右大臣·百官人等，爲四列於紫門外。以粟田臣飯中等四人，使執雉輿，而在前去。左右大臣乃率百官及百濟君豐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而至中庭。使三國公麻呂·猪名公高見·三輪君甕穗·紀臣乎麻呂岐太四人，代執雉輿而進殿前。時左右大臣就執輿前頭，伊勢王·三國公麻呂·倉臣小屎，執輿後頭置，於御座之前。天皇即召皇太子共執而觀。皇太子退而再拜。 (생략).”〕

백치의 진상 의식은 원일조하 의식을 거행할 때처럼 朝庭 즉, 조당의 뜰에 의장(儀仗)과 대오(隊伍)를 갖춘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⁵⁰⁾ 위 사료에서 발표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백치를 효덕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과 사용된 공간이다. 【그림-1】을 참조하면 먼저 좌우대신과 백관이 내리 남문(SB3301) 밖 즉, 조당 북쪽에서 네 줄로 진열을 갖춘 다음 내리 안쪽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다. 준비를 마치자 속전신반중 등 4명이 백치가 든 가마를 들고 내리 남문을 지나 中庭 즉, 내리 전전(SB1801) 앞에 있는 뜰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뒤를 이어 좌우대신, 백관 이하의 사람들이 이동하였다. 이후 백치가 든 가마를 삼국공마려·저명공고견 등 4명이 내리 전전 앞까지 운반하였고, 마지막은 좌우대신·이세왕 등이 옥좌 앞까지 운반하였다.

이렇게 효덕조의 모든 신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백치 진상 의식은 백치가 든 가마를 누가 어디에서 운반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조당과 내리 전전의 뜰에 누가 列立해 있는지에 따라 효덕과 신하의 친소 관계, 신하 상호 간의 위계 또는 신분적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을 것이다. 효덕이 구현하고자 했던 천황 중심의 관인 질서가 완벽하게 표현되는 순간이다.

磐下徹이 지적하듯이 효덕조가 지향한 것은 8세기 이후에 보이는 체계적인 관료제라기 보다, 기존의 부민제 또는 씨족제적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관인이 직접 조정에 나와서 천황

見。又周成王時，越裳氏來獻白雉曰，吾聞，國之黃耆曰，久矣無別風淫雨，江海不波溢三年於茲矣。意中國有聖人乎。蓋往朝之。故重三譯而至。又晉武帝咸寧元年，見松滋，是即休祥。可赦天下，是以白雉使放于園。”

50) 같은 해 원일조하 의식이 미경궁(풍기궁)에서 열린 점이나, 백치 진상 의식의 규모와 儀仗으로 볼 때 진상 의식이 있었던 곳은 풍기궁으로 생각된다(『일본서기』 권제25 효덕 천황 백치 원년(650) 정월 신축삭조 “白雉元年春正月辛丑朔，車駕幸味經宮，觀賀正禮。〈味經，此云阿膩賦。〉是日車駕還宮.”)。

에게 예를 갖추고 조당에 모여 의례와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⁵¹⁾ 씨족 단위로 직무를 분掌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公事는 조정에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풍기궁의 조당이 거대하게 조영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풍기궁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덕조의 관료제와 풍기궁 조당에 설치된 거대한 조당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관료제가 미발달한 효덕조에 어째서 14당 이상의 堂과 넓은 뜰을 갖춘 거대한 조당을 설치했던 것일까? 도출된 결과가 선학들의 견해와 대동소이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조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중점에 두고 검토한 결과, 풍기궁의 조당은 효덕조가 당면한 현실과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가 동시에 반영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풍기궁의 조당은 부민제 또는 씨족제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관료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효덕이 지향한 관료제 즉, 천황을 정점으로 한 관인 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만 했다. 풍기궁의 내리와 조당을 통해 드러난 효덕조의 혁신성은 바로 이러한 효덕조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상의 고찰은 선행 연구 및 관련 사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분량도 적을뿐더러 많은 부분에서 억지스럽고 추측이 난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51) 磐下徹, 앞의 논문, 2020, 88쪽.

참고문헌

사료

『日本書紀』

『續日本紀』

『令義解』

『令集解』

『儀式』

『延喜式』

연민수·김은숙·이근우 외 엮음, 『(동북아역사자료총서 124) 역주 일본서기 2』,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연민수·김은숙·이근우 외 엮음, 『(동북아역사자료총서 125)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서적

下正史·佐藤信編著, 『飛鳥から藤原京へ』(古代の都 I), 吉川弘文館, 2010.

小澤毅, 『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青木書店, 2003.

植木久, 『難波宮跡-大阪に甦る古代の宮殿』, 同成社, 2009.

岸俊男, 『日本古代宮都の研究』, 岩波書店, 1988.

林部均,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 青木書店, 2001.

_____, 『飛鳥の宮と藤原京-よみがえる古代王宮』(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吉川弘文館, 2008.

坂本太郎,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1938.

논문

關野貞, 「平城京及大内裏考」, 『東京帝國大學紀要』工科 第3冊, 東京帝國大學, 1907.

鬼頭清明 「日本における大極殿の成立」, 『古代史論叢』中卷(井上光貞博士還曆記念會編), 吉川弘文館, 1978.

鬼頭清明, 「日本における朝堂院の成立」, 『日本古代の都城と國家』, 塙書房, 1984.

高橋工, 「前期·後期難波宮跡の發掘成果」, 『難波宮と都城制』, 吉川弘文館, 2014.

古瀬奈津子, 「宮の構造と政務運營法」, 『史學雜誌』93-7, 史學會, 1984.

橋本義則, 「朝政·朝儀の展開」, 『日本の古代7 まつりごとの展開』, 中央公論社, 1986.

吉川眞司, 「難波長柄豊碕宮の歴史的 위치」, 『日本國家の史的特質 古代·中世』, 思文閣出版, 1997.

_____, 「律令體制の成立」, 『日本史講座』1, 東京大學出版會, 2004.

- _____, 「王宮と官人社會」,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 3 社會集團と政治組織』, 岩波書店, 2005.
- _____, 「律令體制の展開と列島社會」, 『列島の古代史8 古代史の流れ』, 岩波書店, 2006.
- 김은정, 「平城宮 朝堂을 통해 본 고대 일본의 천황」, 『백제연구』 6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9.
- _____, 「고대 일본의 즉위 宣命과 皇位 계승의 논리」, 『역사와 담론』 94, 호서사학회, 2020.
- 今泉隆雄, 「平城宮大極殿朝堂考」·「平城宮大極殿朝堂再論」, 『古代宮都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 東野治之, 「大化以前の官制と律令中央官制-孝徳朝の中央官制を中心として-」, 『長屋王木簡の研究』, 塙書房, 1996.
- 磐下徹, 「前期難波宮の朝堂院-孝徳朝の「官僚制」」,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2020.
- 白石太一郎, 「前期難波宮整地層の土器の歷年代をめぐって」,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館報』16, 2012.
- 山田英雄, 「宮城十二門号について」, 『日本古代史攷』, 岩波書店, 1987.
- 서보경, 「難破朝廷의 宮殿과 朝參·朝儀」, 『백제연구』 6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4.
- 市大樹, 「難波宮發掘」, 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2002.
- _____, 「難波長柄豊碕宮の造營過程」, 武田佐知子編, 『交錯する知-衣装·信仰·女性-』, 思文閣出版, 2014.
- _____, 「大化改新と改革の實像」, 『岩波講座日本歴史2 古代2』, 岩波書店, 2014.
- _____, 「公民制の成立と大化改新」, 歴史科學協議會編, 『歴史評論』821, 歴史科學協議會, 2018.
- _____, 「子代離宮と小郡宮-難波長柄豊碕宮遷居への道程-」, 辻尾榮市氏古稀記念論攷刊行會編, 『歴史·民族·考古學論攷(I)』, 郵政考古學會, 2019.
- _____, 「難波長柄豊碕宮の革新性」,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2020.
- 阿倍義平, 「古代宮都中樞部の變遷について」,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3, 國立歴史民俗博物館, 1984.
- 岸俊男, 「朝堂の初歩的考察」,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創立三十五周年記念』(橿原考古學研究所 編), 吉川弘文館, 1975.
- _____, 「都城と律令國家」, 『岩波講座 日本歴史2 古代2』, 岩波書店, 1975.
- 李陽浩, 「大化改新と宮殿建築-新しい建築類型をめぐって」, 大阪市立大學難波宮研究會, 『難波宮と大化改新』, 和泉書院, 2020.
- _____, 「難波宮: 前期難波宮の建築的特質とその源流·末流」, 帝塚山大學考古學研究所編, 『難波宮と藤原宮』, 帝塚山大學考古學研究所, 2020, 2~14頁.

日本史研究會編,「特集 大化改新論をめぐって」,『日本史研究』662,日本史研究會,2017.

林部均,「發掘された飛鳥の諸宮」,『飛鳥から藤原京へ』(木下正史・佐藤信編 著)(古代の都Ⅰ),吉川弘文館,2010.

笠山請生,「「難波朝の衛部」をめぐって」,『日本古代衛府制度の研究』,東京大學出版部,1985.

早川庄八,「前期難波宮と古代官僚制」,『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岩波書店,1986.

佐藤武敏,「唐の朝堂について」,難波宮址を守る會編,『難波宮と日本古代國家』,塙書房,1977.

佐藤隆,「難波地域の土器編年から難波宮の造營年代」,中尾芳治・榮原永遠男編,『難波宮と都城制』,吉川弘文館,2014.

_____,「前期難波宮造營過程の再検討:飛鳥宮跡との比較を中心に」,大阪市文化財協會編,『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20,大阪市文化財協會,2022,21~40頁.

佐伯有清,「宮城十二門號についての研究」,『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吉川弘文館,1970.

_____,「「難波朝の衛部」をめぐって」,『日本古代衛府制度の研究』,東京大學出版部,1985.

佐藤信 2001,「宮都の形成と変容」,『新体系日本史6 都市社會史』,山川出版社.

積山洋,「大極殿の成立と前期難波宮内裏前殿」,『古代の都城と東アジア-大極殿と難波京』,清文堂出版,2013.

_____,「(シリーズ「遺跡を学ぶ」095) 東アジアに開かれた古代王宮・難波宮」,『古代の都城と東アジア-大極殿と難波京』,清文堂出版,2013.

_____,「初期難波京の造營理念再検討」,大阪歴史科學協議會編,『歴史科學』223,大阪歴史科學協議會,2016,47~52頁.

_____,「日本古代王宮の原点 難波長柄豊碕宮」,歴史科學協議會編,『歴史論評』821,歴史科學協議會,2018,28~38頁.

_____,「日本における律令制的王宮の成立」,大阪市立大學難波宮研究會,『難波宮と大化改新』,和泉書院,2020.

_____,「前期難波宮研究の課題」,大阪市立大學難波宮研究會編,『日本史研究叢刊36 難波宮と大化改新』,和泉書院,2020.

_____,「前期難波宮と飛鳥宮,藤原宮」,大阪歴史學會編,『ヒストリア』300,大阪歴史學會,2023,3~21頁.

井上光貞,「冠位十二階とその史的意義」,『日本歴史』176,吉川弘文館,1963.

井上薫,「宮城十二門の門號と乙巳の變」,『日本古代の政治と宗教』,吉川弘文館,1961.

重見泰,「難波長柄豊碕宮から後飛鳥岡本宮へ」,『日本古代都城の形成と王權』,吉川弘文館,2020.

志村佳名子,「日本古代の朝參制度と政務形態」:「朝堂の成立とその機能」,『日本古代の王宮

構造と政務・儀禮』，塙書房，2015.

津田左右吉，「大化改新の研究」，『日本上代史の研究』，岩波書店，1930.

直木孝次郎，「門号氏族」，『日本古代兵制史の研究』，吉川弘文館，1968.

_____，「大化改新私見」・「孝徳朝の難波宮」，『難波宮と難波津の研究』，吉川弘文館，1994.

泉武，「前期難波宮孝徳朝説批判（その2）」，『考古學論攷』第16冊，檀原考古學研究所，2023.

村元健一，「難波宮の立地環境」，『都城制研究』9，奈良女子大學 大和・紀伊半島學研究所 古代學・聖地學研究センター，2015.

_____，「隋の大興，洛陽の二つの宮城」，『漢魏晉南北時代の都城と陵墓の研究』，汲古書院，2016.

_____，「前期難波宮と中國宮城」，『(古代史選書43)日本古代宮都と中國都城』，同成社，2022.

八木充 1996，「宮都研究の總括と現段階」，『研究史 飛鳥藤原京』，吉川弘文館，1996.

「難波長柄豊碕宮을 통해 본 孝德朝의 혁신성」에 대한 토론문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본 발표는 7세기중엽 조영된 難波長柄豊碕宮의 朝堂과 內裏 등의 구조와 규모를 통해 효덕조에서 지향한 대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제, 관인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으로서 효덕조의 통치이념과 방향성이 반영된 왕궁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의의를 추구한 것이다. 특히 조당은 즉위, 신년하례 등 각종 의례가 행해지고, 관인들이 등청하여 정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종래의 部民制的, 氏族制的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는 관료제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인질서를 세우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 요컨대 효덕조의 난파궁의 조영은 일본고대의 대왕을 중심으로 한 관인제, 관료제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흥미로운 관점으로 신선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도성제와 관료제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고학적인 도성제와 문헌상의 관료제가 서로 관련지어 설명해야 독자의 이해가 수월해진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효덕조의 내용은 사실 많은 사료비판이 필요로 할 만큼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45년 難波 지역으로 천도하기 이전 고대일본의 왕궁은 飛鳥 분지에 산재해 있었고, 王이 새로 즉위할 때마다 새로 왕궁을 조영하여 遷宮하기 때문에 왕궁 자체가 협소하고, 의식, 의례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도 불명이다. 난파 지역은 수륙교통의 요지이고 해외로부터 사절단을 향응하는 영빈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입지적으로 도성을 세울만한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아마도 군사상의 목적으로 후방의 아스카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難波로 천도한 효덕조의 탄생은 645년 을사의 정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깊다. 종전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전횡하고 있던 蘇我氏 本宗家が 타도되고 왕실중심의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大化改新이 성립되어, 아마도 그에 걸맞는 도성을 조영하기 위해 천도하였고, 難波宮도 이러한 계획하에 설계되었다고 생각된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난파궁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 규모의 왕궁으로 조사되었고(건물양식은 掘立柱 건물, 지붕은 草葺)이다. 왕의 생활공간인 내리와 정무의 공간인 조당이 배치되었고, 조당의 건물도 14개동이라는 많은 건물군이 발견되어 그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새 왕궁이 조영된지 2년만에 효덕은 제명여제의 아들이자 황태자인 중대형황자 등의 세력이 飛鳥로 떠나 버리자 난파궁에 남은 효

덕은 권력에서 소외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고 만다. 효덕이 꿈꾸던 이상이 좌절된 것이다. 효덕의 사망이후 난파군은 이궁, 별궁, 副都로서 존재하였고(前期難波宮), 천무조 686년에 화재로 전소된 이후 재건되어 8세기말까지 존속하였다(後期難波宮).

* 孝德朝의 難波宮 연혁

- 645년 6월 을사의 정변, 大化 원년.
- 645년 12월 難波長柄豊碕로 천도
- 646년 정월 大化改新, 改新의 조문 선포
- 651년 12월 難波長柄豊崎宮으로 천궁(內裏 완성), 652년 9월 완성
- 653년 황태자 등 飛鳥京으로 떠남
- 654년 10월 효덕 사망

도성제와 관료제를 이야기할 때 大化改新의 條文(法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조문중에 사유민, 사적토지 금지, 郡制, 戶籍, 計帳, 班田收授法 제정 등은 이 시기에 나올 용어, 법령이 아니고, 명백히 8세기 대보령에 의한 수식이다. 즉 대보령의 조문을 베낀 것이다. 또 본 발표에 인용되어 있는 관인이 출근시간, 예법 등도 大寶令, 養老令의 公式令 「京官上下」조에 京官은 공문이 열리기 전에 출근하고, 폐문 후에 퇴근하고, 外官은 해가 뜨면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한다, 라는 조문을 모방한 것으로 사료비판을 요하는 부분이다. 효덕조에 시행된 제도개혁 등 이 시기의 정치를 설계한 인물은 中臣(藤原)鎌足이고, 『일본서기』와 大寶律令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藤原不比等은 藤原鎌足の 아들이다. 즉 대화개신의 조문을 비롯한 효덕조의 치적은 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 거론하고 있는 13계, 19계 冠階의 제정도 율령제하의 관위제와는 다른 미숙한 단계의 관인사회를 말하고, 관료제라고 평가하는 이르다. 대보령에서 제정된 8省도 효덕조에 보이지만, 천무조에서도 6官(法官, 理官, 大藏官, 兵政官, 刑官, 民官)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기록의 윤색이 보인다. 소개된 관직명도 아직 미분화된 개별적, 단편적이고, 게다가 문서행정이 시행되기 이전 구두보고의 단계에서는 원시적 전통사회의 행정이 답습되어 있다. 의식, 의례의 문제도 법령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전통 습속의 원리에 따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발표에서 추구하는 대화개신 이후 대왕 중심의 왕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명확하고 조당의식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持統朝 이후에 등장하는 천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大極殿의 성립 및 淨御原令 제정 이후에 가서야 어느 정도 관료제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조당의 규모, 왕궁의 공간구조만으로 관인사회, 관료제 사회의 성격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효덕조에서 추구한 왕궁의 조영과 통치의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구상은 존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인, 관료제 사회는 거리가 있으며 당시의 일본고대사회는 미발달되어 있었다. 관인의 존재와 관료제는 유사하지만 행정의 시스템, 통치구조 등 고대국가 발전단계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한된 사료로부터 효덕조의 왕궁과 관인사회를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는 중요하며 의의가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제이지만, 나름대로 왕궁을 통해 효덕조의 혁신성을 고찰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관료제사회를 규정하는 관직 등 제도사적인 내용 분석도 필요하며, 왕경의 구조 및 조방제의 여부 등 시야를 넓혀 조망한다면 효덕조의 관인사회의 성격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7세기 후반 백제 유민의 일본열도 정착지 가모노코호리[蒲生郡]

김기섭(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 머리말
2. 7세기 중엽까지의 가모노코호리
3. 귀실집사의 무덤[鬼室集斯墓]
4. 석탑사(石塔寺)
5. 가모우군 백제관련 유적의 의미

1. 머리말

663년 9월 7일, 백제 부흥운동군의 중심지인 주류성이 신라·당 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수신(遲受信) 등이 지키며 저항하던 임존성도 함락되었다. 이에 좌평 여자신(餘自信)을 비롯한 상당수의 백제 유민이 9월 25일경 배를 타고 일본열도로 향하였다.¹⁾ 이들 백제 유민이 언제 어떻게 일본에 도착하고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일본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A. 이 달에 백제국 관위의 계급을 조사하였다. 이에 좌평 복신의 공적으로 귀실집사에게 소금하(小錦下)를 주었다[그의 본래 관위는 달솔이다]. 그리고 백제 백성 남녀 4백여인을 오우미노쿠니[近江國] 카무사키노코오리[神前郡]에서 살게 하였다.²⁾
- B. 이 달에 카무사키노코호리[神前郡]의 백제인들에게 밭을 주었다.³⁾
- C. 이 해 겨울에 미야코[京都]의 쥐들이 오우미노쿠니[近江國]을 향해 이동하였다. 백제 남녀 2천여 인을 동국(東國)에서 살게 하고, 무릇 불교 승려인지 속세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계해년부터 3년에 이르도록 관청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⁴⁾

1) 九月辛亥朔丁巳 百濟州柔城始降於唐 是時國人相謂之曰 州柔降矣 事無奈何 百濟之名絕于今日 丘墓之所豈能復往 但可往於弓禮城會日本軍將等相謀事機所要 遂教本在枕服岐城之妻子等令知去國之心 辛酉 發途於牟呂 癸亥 至弓禮 甲戌 日本船師及佐平餘自信達率木素貴子谷那管首憶禮福留并國民等至於弓禮城 明日發船始向日本.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2년 9월)

2) 是月 勘校百濟國官位階級 仍以佐平福信之功 授鬼室集斯小錦下[其本位達率] 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居于近江國神前郡.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4년 春2월)

3) 是月 給神前郡百濟人田.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4년 3월)

4) 是冬 京都之鼠向近江移 以百濟男女二千餘人居于東國 凡不擇縑素 起癸亥年至于三歲並賜官食.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5년)

- D. 3월 신유 초하루 기묘(19일)에 도읍을 오우미[近江]로 옮겼다. 이때 천하의 백성들이 도읍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완곡하게 간언하는 자가 많고 아이들의 노래도 많았으며, 밤낮으로 불난 곳이 많았다.⁵⁾
- E. 봄 정월 병술 초하루 무자(3일)에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어떤 책에서는 6년인 정묘년 3월에 즉위했다고 한다].⁶⁾
- F. 5월 5일에 천황이 카마후노[蒲生野]에서 사냥하였다. 이때 대황제(大皇弟), 여러 왕(諸王), 내신(內臣)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⁷⁾
- G. 이 해에 소금중(小錦中) 카후치노아타히쿠지라[河內直鯨] 등을 대당(大唐)에 사신으로 보내었다. 또, 좌평 여자신, 좌평 귀실집사 등 남녀 7백여 인을 오우미노쿠니 가모노코호리[蒲生郡]로 옮겨 살게 하였다. 또, 대당이 곽무종 등 2천여 인을 보냈다.⁸⁾
- H. 2월에 호적을 만들고 도적과 떠돌이를 단속하였다. 이때 천황이 가모노코호리의 히사노노[匱進野]로 가서 궁지를 살폈다.⁹⁾

위의 기록에 따르면, 귀실집사를 비롯한 백제 유민은 처음(663년)에 카무사키노코오리[神前郡]에 정착했다가 6년 뒤(669년)에는 가모노코호리[蒲生郡]로 근거지를 옮겼는데, 집단의 규모가 처음에는 4백명이었으나 6년 뒤에는 7백명이었다고 한다. 『일본서기』의 카무사키노코오리(神前郡)는 『화명류취초(和名類聚抄)』에 칸자키군(神崎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¹⁰⁾ 지금의 시가현[滋賀縣] 동부에 위치한 히가시오우미시[東近江市]와 히코네시[彦根市]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모노코호리는 그 남쪽 이웃으로서 지금의 히가시오우미시 일부와 오우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 류오우초[龍王町], 히노초[日野町] 등지에 해당한다. 백제 유민은 왜 이곳에 정착했으며 무엇을 남겼을까? 이를 살펴보려 한다.

2. 7세기 중엽까지의 가모노코호리

가모노코호리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琵琶湖]의 동남쪽에 위치한 군(郡)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군의 영역이 비와코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나 고대에는 군의 서쪽 일부가 비와코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북쪽에는 칸자키군[神崎郡]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바로 인접한 야스군[野洲郡]과 그 너머의 쿠리타군[栗太郡]이 비와코에 자루처럼 붙어

5) 三月辛酉朔己卯 遷都于近江 是時天下百姓不願遷都 諷諫者多 童謠亦衆 日日夜夜失火處多.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6년 3월)

6) 七年春正月丙戌朔戊子 皇太子即天皇位[或本云 六年歲次丁卯三月即位].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7년 정월)

7) 五月五日 天皇縱獵於蒲生野 于時大皇弟諸王內臣及羣臣皆悉從焉.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7년 5월)

8) 是歲 遣小錦中河內直鯨等使於大唐 又以佐平餘自信 佐平鬼室集斯等 男女七百餘人遷居近江國蒲生郡 又大唐遣郭務棕等二千餘人.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8년)

9) 二月 造戶籍 斷盜賊與浮浪 于時天皇幸蒲生郡匱進野而觀宮地.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9년 2월)

10) 『倭名類聚抄』 권7 「近江國」 제88 神崎郡.

있고, 남쪽에는 코카군[甲賀郡]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 지역이 대개 자루 모양인 것은 하천 유역을 따라 설치했기 때문이며, 모두 지금의 시가[滋賀]현에 속해 있다.

지금의 시가현은 고대부터 오우미[近江]라고 불리며, 지금의 오사카[大阪]·나라[奈良]·교토[京都] 등지를 가리키는 기나이[畿内]지역과 지금의 도쿄[東京]일대를 가리키는 도고쿠[東國]지역의 연결 통로였고 북쪽의 동해방면 바다와도 가까운 교통의 요충이었다. 더욱이 비와코에는 나루[津]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상교통도 유리하였다. 이에 텐지[天智]천황은 667년 3월에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우미오츠노미야[近江大津宮](지금의 大津市)로 도읍을 옮기며 개혁정치를 완성하려 하였지만(C·D), 671년 텐지천황이 갑자기 죽고 아우 텐무[天武]천황이 무력을 바탕으로 나라지역에서 즉위함으로써 오우미 도읍기도 갑자기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 유민들이 정착한 가모노코호리는 이후 가모우군으로 불리며 고대 오우미국[近江國] 소속 12개 군(郡)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군은 소속 향(鄉=里)의 수에 따라 대·상·중·하·소 5개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중심지인 시가군[滋賀郡]과 그 이웃의 코카군[甲賀郡]은 4향(하군), 쿠리타군[栗太郡]은 5향(하군), 야스군[野洲郡]은 6향(하군), 가모우군[蒲生郡]은 9향(중군), 칸자키군[神崎郡]은 6향(하군) 등 대개 하구과 중군으로 거의 균등하게 세분되었다.¹¹⁾ 야스군의 군아(郡衙)는 지금의 야스시[野洲市] 오지노하라[小篠原] 字西堂 부근, 가모우군의 군아는 오우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 센조구쵸[千僧供町]의 미타치마에[御館前]유적 또는 류오우쵸[龍王町] 綾戸字 카미타이료우[上大領]·下大領 부근, 칸자키군의 군아는 히가시오우미시 고카쇼우쵸[五個莊町] 北町屋字 北大郡·南大郡·大郡 부근으로 추정한다.¹²⁾

가모우군의 관아로 추정하는 히가시하치만시 센조구쵸의 미타치마에[御館前]유적은 1981년에 처음 발굴조사하면서 ‘서전(西殿)’·‘대(大)’ 등의 글자가 적힌 묵서토기와 원형 베투가 출토되어 주목받았다. 이후 민간 개발 수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굴조사하여 1986년에는 동서 방향의 도랑과 그에 평행한 3동의 굴립주 건물을 발견하였고, 그 남쪽의 지점에서도 5×3칸의 대형 건물을 발견하였다.¹³⁾ 시기적으로는 8세기 초엽이라고 한다. 미타치마에유적의 서쪽에는 하쿠호우[白鳳;645~710]사원(寺院)인 센조구[千僧供] 폐사(廢寺)가 있으며, 인접한 칸가쿠인[勸學院]유적에서는 「논어」가 기록된 습서목간이 출토된 바 있다. 또, 1992년에 칸가쿠인유적의 馬淵소학교 지점을 발굴 조사했을 때 동서 방향의 도로 모양 유구가 구불구불 미타치마에유적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옆 약 5.2m 도랑에서는 노면 쪽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먹만한 크기의 옥돌 여러 개와 9세기 전반기의 토기가 섞여서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⁴⁾

가모우군에는 고분시대에 이미 상당한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우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는 원래 가모우군 아즈치쵸[安土町]였는데, 이곳의 효우탄야마[瓢箪山]고분은 觀音寺山

11) 高山寺本, 『和名抄』; 畑中誠治 등, 2012, 『滋賀縣の歴史』, 山川出版社, 67쪽.

12) 畑中誠治 등, 위의 책, 68쪽.

13)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도 굴립주건물 14동 등이 발견되었다. 毎日新聞, 2024년 10월 11일자(지방판) 및 御館前遺跡發掘調査現地説明會資料(2024. 10. 12. 公益財團法人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14) 内田保之, 1996, 「近江國の古代驛路と官衙遺跡について」, 『紀要』9, 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123쪽.

서쪽 구릉에서 뺀어 나온 구릉을 이용해 만든 길이 약 162m의 전방후원분으로서 비와코 부근의 오우미지역 고분 중 최대 규모이다. 후원부에 3기의 수혈식 석실이 있고, 후원부 중앙의 석실에서 목관, 동경, 통형동기, 동축(銅鏃) 등이 출토되어 4세기대 지역 유력자의 무덤으로 추정한다.¹⁵⁾

히가시오우미시[東近江市]의 雪野山 정상부에 위치한 유키노야마[雪野山]고분도 지역 유력자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길이 약 70m로서 그리 크지 않은 전방후원분이지만, 히노가와 중류역에 위치하는 4세기대 고분으로서, 수혈식 석실 내부에서 목관, 동경 5매, 옥, 무기, 무구류 등이 출토되었다.¹⁶⁾

가모우군의 서남쪽에 위치한 오츠시의 다이고즈카[太鼓塚]고분군은 6세기중엽~7세기중엽에 해당하는 고분군이다. 소형 원분(횡혈식 석실) 200여기가 분포하는데, 백제 토기 병모방품, 소형의 미니어처 부뚜막과 취사용기 등이 출토되어 주목받았다.¹⁷⁾ 오사카·나라시가 일대의 소형 횡혈식 석실묘에서 가랑비녀, 토제 모형 취사기와 부뚜막이 발견되는 이른바 기나이[畿内]형 석실은 대개 백제계 이주민이 묻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대개 장방형 평면, 우편재 연도, 궁륭형 현실, 부부 추정 2인 목관 안치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흔히 백제문화계통으로 이해한다. 이는 5세기경 백제계 이주민 취락으로 알려진 시토미야키타[菰屋北]유적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철기와 귀금속, 석제 및 유리구슬, 목기 등을 제작·가공하고 말을 사육한 흔적이 발견된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다이고츠카고분군처럼 군집분을 형성한 집단은 보통 동족적 결합 의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그중 대형고분의 피장자는 동족결합의 고리로 볼 수 있는데,¹⁹⁾ 그런 점에서 가모우군 주변에는 6·7세기경 이미 백제계 이주민들이 상당한 규모로 자리잡고 있었던 듯하다. 오우미지역에 한반도, 특히 백제 방면으로부터 이주민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중·후반경으로서 주로 생산기술자들이 많았으며, 6세기 후엽에는 백제왕이 보낸 인물들, 가령 통역을 맡은 오사[日佐], 기록을 맡은 후비토[史] 등의 직무 담당자들이 주로 이주하여 계보관념에 따라 동족조직을 편성했다²⁰⁾고 보기도 한다.

고분시대 후기인 6세기경 가모우군 지역에 정착해 있던 도래계(渡來系) 씨족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씨족은 야마토노아야우지[倭漢氏; 東漢氏]와 하타우지[秦氏] 계열이었다. 야마토노아야우지 계열로는 타미노이미키[民忌寸]·츠키노이미키[調忌寸]·타미노츠키아이[民使]·오토모노오사[大友日佐]·니시키노오사[錦日佐]·아케나미노아야히토[明波漢人], 하타우지 계열로는 아키노스구리[安吉勝]·하타[秦] 등의 씨족이 있었으며, 이밖에 왕진이(王辰爾)의 자손인 후나

15) 野洲町立歴史民俗資料館, 2001, 『古代國家の始まり-近江野洲の王たち-』; 국립공주박물관, 2002, 『일본 소제 백제문화재 조사보고서Ⅲ-近畿地方-』, 67쪽.

16) 野洲町立歴史民俗資料館, 2001, 『古代國家の始まり-近江野洲の王たち-』; 국립공주박물관, 2002, 『일본 소제 백제문화재 조사보고서Ⅲ-近畿地方-』, 66쪽

17) 吉水眞彦, 2005, 「6・7世紀における近江の渡來文化」, 『ヤマト王權と渡來人』, sunr ise出版.

18) 吉井秀夫, 1999, 「일본 속의 백제」, 『백제-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권오영, 2017, 「백제와 왜의 교섭에 관련된 최근 자료와 새로운 해석」, 『한국사론』6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 白石太一郎, 2000, 『古墳と古墳群の研究』, 塙書房, 2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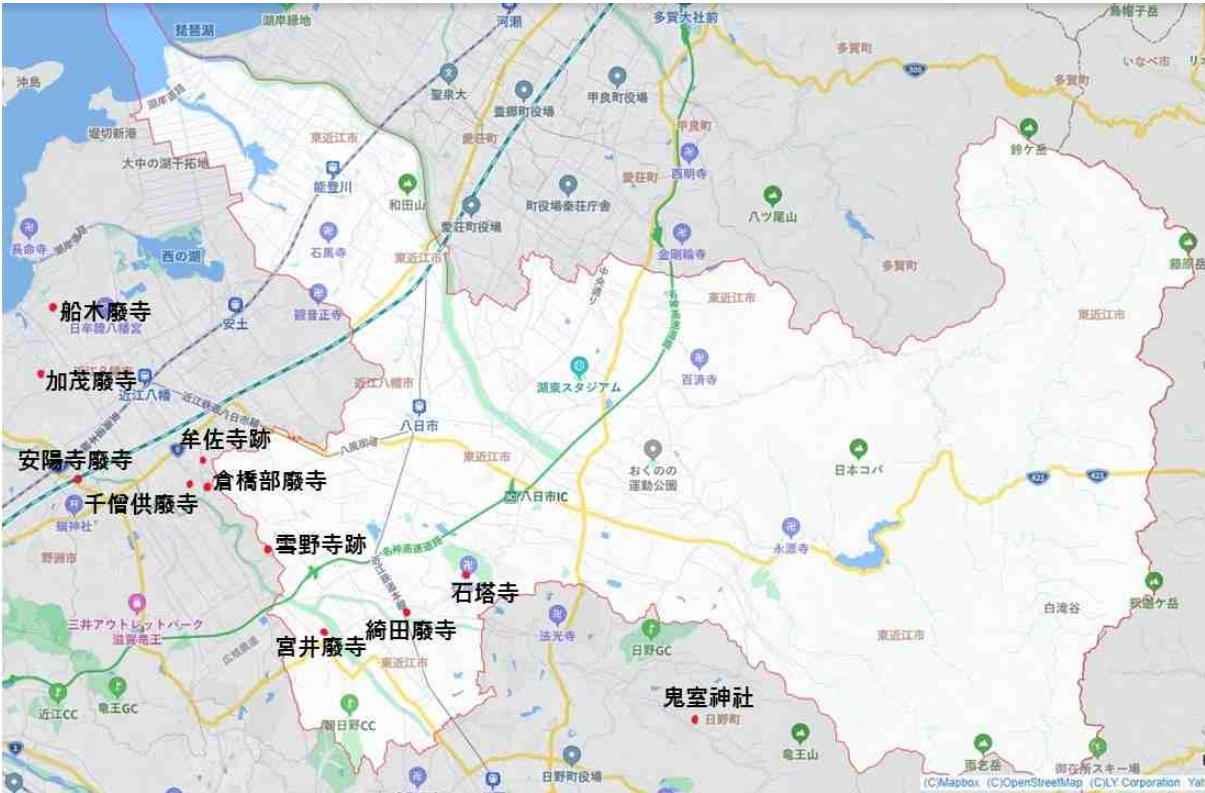
20) 山尾幸久, 2016, 『古代の近江-史的探究-』, sunr ise出版, 14~17쪽.

노후히토[船史]씨가 있었다.²¹⁾ 아케나미노아야히토[明波漢人]씨는 본래 본거지가 지금의 히코네시를 중심으로 그 동쪽지역에 위치한 이누카미군[犬上郡]의 누나미고[沼波郷]이었는데 가모우군으로도 진출해 니시나리고[西生郷]에 거주하였고, 오토모노오사씨는 키리하라고[桐原郷]과 아키고[安吉郷]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키고는 하타우지계열인 아키노스구리씨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키리하라고는 지금의 오우미하치만시 서남부의 안요우지[安養寺] 및 후루카와[古川] 일대라는 것이 통설이다.²²⁾ 후루카와초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흐르는 히노가와[日野川]는 시가현[滋賀縣]과 기후현[岐阜縣]·미에현[三重縣]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와타무키야마[綿向山]에서 발원하여 가모우군 내부를 구불구불 북서류하며 히와코[琵琶湖]에 유입되는 요도가와[淀川]수계의 1급하천으로, 중·상류에서는 가모우군의 히노초[日野町]와 류오우초[龍王町], 그리고 히가시오우미시[東近江市]를 지나고, 하류에서는 오우미하치만시와 야스시[野洲市]의 경계를 이룬다.

이처럼 여러 시·군을 지나는 히노가와에는 하천 주변에 고대 불교 사찰 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하류에 가까운 중류지역에 몰려 있는데, 하류에서부터 7세기 후엽에 조성한 키리하라고[桐原郷]의 안요우지[安養寺] 폐사, 시노다고[篠田郷]의 센조구[千僧供] 폐사, 사사키고[篠筥郷]의 시모토요우라[下豊浦] 폐사 및 무사지[牟佐寺;武佐寺]유적, 아키고[安吉郷]의 쿠라하시베[倉橋部] 폐사 및 유키노지[雪野寺]유적, 니시나리고[西生郷]의 미야이[宮井] 폐사, 히무카시나리고[東生郷]의 카바타[綺田] 폐사와 이시도우지[石塔寺] 등이 차례로 위치한다. 그리고 히노가와 하류의 북쪽에는 서쪽으로 나란히 흐르는 시라토리가와[白鳥川]가 있으며, 그 북쪽 주변에 후나키고[船木郷]의 후나키 폐사, 하천 남쪽에 카모[加茂] 폐사 등의 유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의 불교 사찰로서, 발굴조사를 통해 연꽃무늬 수막새 등의 7세기 후엽 또는 하쿠호우[白鳳]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21) 大橋信彌, 1998, 「蒲生郡の渡來氏族とその文化」, 『紀要』11, 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105쪽.

22) 大橋信彌, 1998, 위의 논문, 1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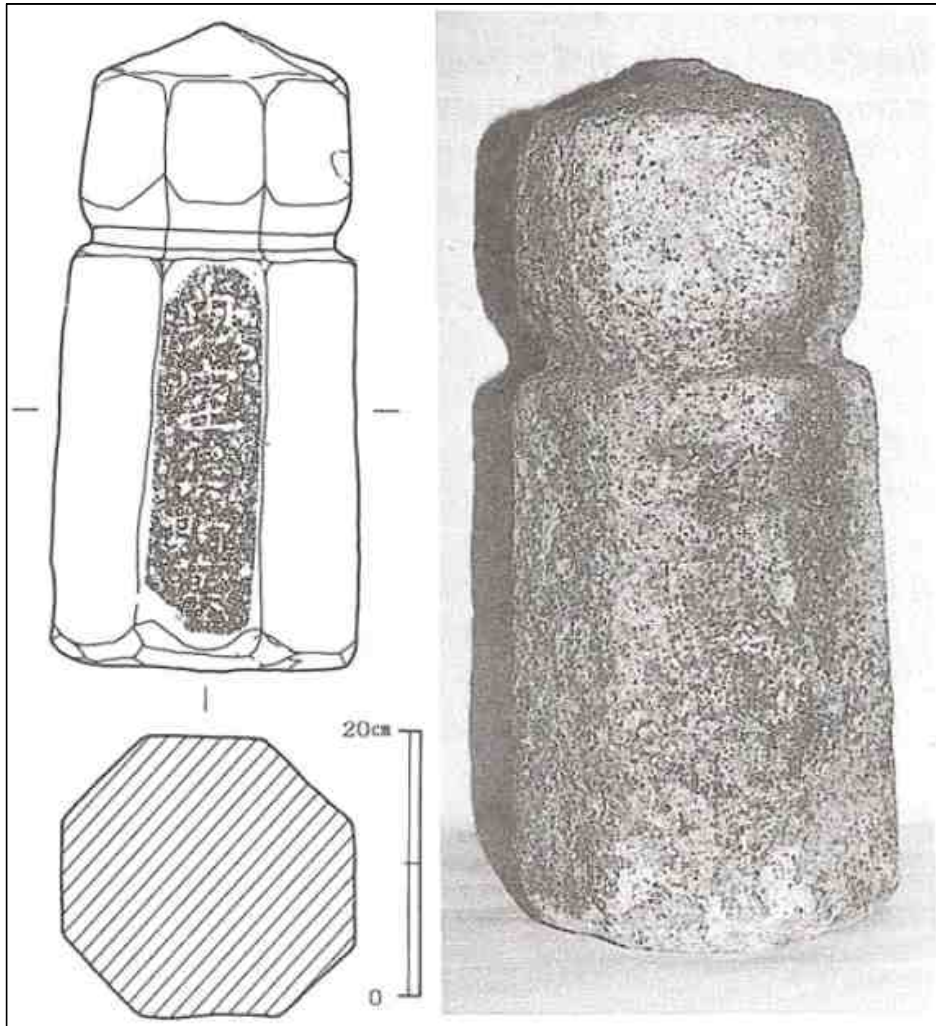


<시가현의 주요 사찰유적 및 귀실신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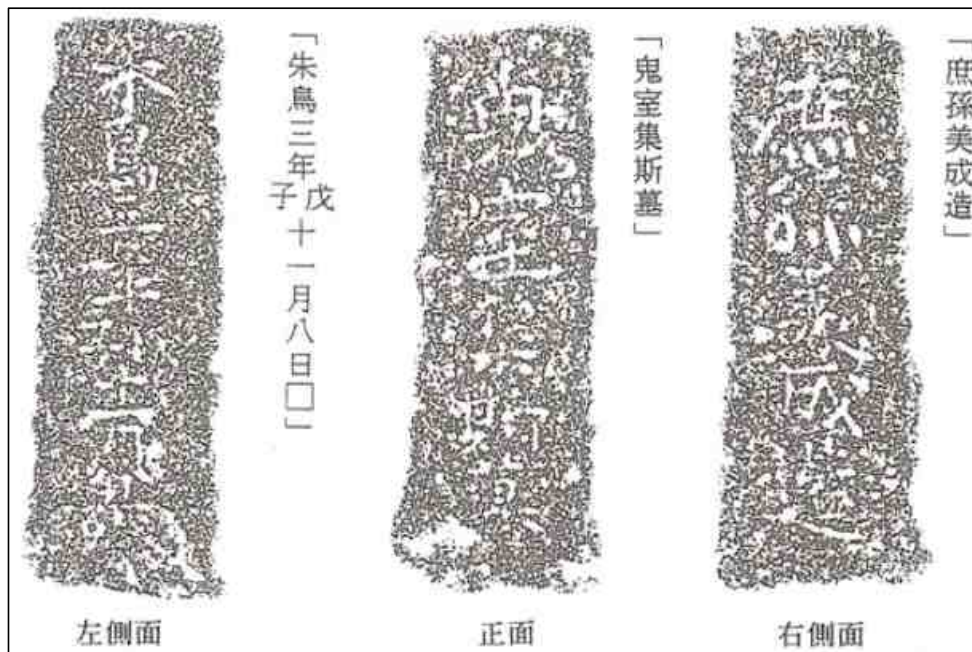
3. 귀실집사의 무덤[鬼室集斯墓]

시가현 히노쵸[日野町] 코노[小野]마을에 있는 키시츠[鬼室]신사는 본래 후도도[不動堂]라는 불당이였다가 근대 이후 니시노미야[西宮]신사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귀실집사묘(鬼室集斯墓)'라고 새겨진 팔각 돌기둥이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자 1955년 11월에 이름을 키시츠신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신사에는 1805년경 경내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높이 48.8cm, 밑바닥 폭 20.8cm 크기의 팔각 돌기둥이 보관되어 있는데,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13.3cm 내려간 지점부터 4.4cm 폭의 홈이 빙 둘러 파여 있고, 그 위쪽은 팔각이 많이 뭉개져 있어 언뜻 보면 마치 보주(寶珠)처럼 보이기도 한다. 돌기둥은 신사 부근 서남쪽에 위치한 표고 약 340m의 이시코야마[石子山]에서 가져온 흑운모 화강암으로 밝혀졌는데, 이시코야마 북쪽 산중턱에는 이시키리바[石切場]라고 불리는 채석장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예부터 화강암 산출지였다고 한다.²³⁾

23) 日永伊久男, 1994, 「鬼室集斯墓碑について」, 『滋賀文化財だより』204, 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4쪽.



<귀실집사묘 팔각 돌기둥>



<귀실집사묘 팔각 돌기둥의 명문 탁본>

돌기둥의 8면 중 3면에는 모두 합쳐 22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정면에는 「鬼室集斯墓」, 왼쪽 옆면에는 「朱鳥三年戊子十一月八日△」, 오른쪽 옆면에는 「庶孫美成造」이라고 적혀 있다. 주조(朱鳥)는 686년 7월부터 텐무(天武)천황이 사용한 연호이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텐무천황이 죽고 황후인 지토(持統)천황이 즉위했으므로 『일본서기』에는 원년만 있고 2년 이후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만엽집(萬葉集)』 등에는 주조(朱鳥) 4년부터 8년까지, 그리고 주조 10년이라는 기년도 기사에 적혀 있으므로 지토천황이 주조 연호를 계속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조 3년은 서기 688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왼쪽 옆면의 마지막 글자(△)는 읽을 수 없지만, 문맥상 ‘몰(歿)’ 또는 ‘운(殞)’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둘 다 ‘죽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돌기둥에 새겨진 글자 뜻을 종합하면 “688년(무자년) 11월 8일에 귀실집사가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으며, 돌기둥은 귀실집사의 서손인 미성이 세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돌기둥을 발견한 사람은 가모우군(히노쵸)의 니쇼지(仁正寺)에 설치되어 있었던 니쇼지번(藩)의 전의(典醫) 니시나리 치카타다(西生懷忠)였다. 현재 와세다대학 도서관에는 니시나리가 1806년(병인년) 2월에 지은 「鬼室集斯墓詩并序」 족자의 내용과 형태를 1846년(병오년) 6월에 기록한 종이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다. 이에 돌기둥 발견 직후부터 묘지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돌기둥은 11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묘지명의 작성법도 10세기 이후의 기법이지만, 늦어도 14세기 이전에는 돌기둥 묘표석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신사 인근에 귀실집사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츠지(辻)씨의 집성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²⁴⁾

4. 석탑사(石塔寺)

시가현 히가시오우미시 이시도쵸(石塔町)에 위치한 이시도지(石塔寺)는 천태종 계열 불교 사찰이다. 이곳에는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오우미지역에 48개의 절을 지으려 했을 때 48번째로 지어서 소원을 성취한 절이라는 전설이 있다. 히노가와(히노가)의 중상류쪽 지류인 사쿠라가와(佐久良川) 주변에 형성된 계곡평야를 건너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져 사쿠라가와와 나란히 서쪽으로 흘러내린 낮은 구릉(해발 217.3)의 남쪽 기슭에 사찰 시설이 있고, 구릉의 능선상에 3층 석탑이 서 있다. 3층 석탑 주위에는 수백 또는 수천 기의 미니어처 모양 부도형 작은 석탑들과 석불상이 곳곳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헤이안(平安)시대의 1003년경 당나라에 유학한 승려 적조(寂照)법사가 오대산의 승려로부터 ‘옛날 인도의 아육왕(阿育王)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살포한 84,000개의 사리탑 중 2개가 일본에 날아왔는데, 1기는 비와코 물속에 가라앉고 1기는 오우미국의 와타라이야마(渡來山) 흙속에 묻혔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3년 뒤, 반

24) 胡口靖夫, 1996, 『近江朝と渡来人-百濟鬼室氏を中心として』, 雄山閣, 55~58쪽.

슈[播州] 아카시[明石]번에 사는 승려 의관(義觀)이 이 편지를 읽고 천황에게 보고하니, 천황이 사리탑을 찾으라고 전국에 명령하였다. 이에 사냥꾼 노다니 미츠모리[野谷光盛]가 이시도지 뒷산에서 큰 무덤을 발견하고 보고한 뒤 천황의 칙사와 함께 파보니 아육왕탑이 있었다. 천황이 매우 기뻐서 가람을 새로 크게 짓고는 아쇼카오잔[阿育王山] 이시도지[石塔寺]라고 이름 붙였으며 원찰로 삼았다. 그리고 가마쿠라[鎌倉]시대(1185~1333)부터 남북조시대(1336~1392)에 걸쳐 부근 마을 사람들이 작은 석탑을 3층 석탑 주위에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송나라를 당나라라고 하는 등 역사적 오류가 많은 것이지만, 석탑의 신묘한 법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석탑사의 3층석탑과 소석탑들>



<석탑사의 소석탑들>



<석탑사의 소석탑들과 석불상>

3층 석탑의 높이는 약 7.6m로서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돌의 재질은 화강암인데, 이는 일본의 석탑이 가공하기 쉬운 응회암을 흔히 사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1층 탑신은 세로로 길게 다듬은 돌 2개를 나란히 붙여서 만들었으며 옥개석은 층급 받침이 없어 납작한 듯하면서도 처마의 모를 죽여 둥글둥글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2층과 3층의 옥신석도 세로로 길면서도 크기가 1층에 비해 현격히 작아져서 언뜻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옥개석 너비의 비율을 조금만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씬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부여 장하리 3층 석탑을 본딴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⁵⁾ 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백제의 귀화인들이 불사를 창건하고 모국의 양식에 따라 가람의 중심이 되는 탑으로서 나라시대 전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²⁶⁾ 그리고 석탑사 3층 석탑이 단층기단인 데다 1층 옥신석이 높고 2·3층 옥신석의 체감이 한국(백제) 석탑의 체감과 같다는 점, 1층 옥개석이 광대하고 2·3층 옥개석의 체감이 뚜렷해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나타내는 방식이 일본 석탑과 전혀 다르다는 점, 한국 석탑과 마찬가지로 옥신석과 옥개석을 별개의 돌로 조성한 점, 전체적인 구성이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과 비슷한 점 등을 근거로 백제 유민이 석탑을 세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²⁷⁾ 그런데 부여 장하리 3층 석탑은 백제·통일신라기가 아니라 고려시대 석탑이므로 석탑사의 3층 석탑도 그에 맞춰 편년을 조정해야 하는데, 1015년경 ‘石塔別所’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대략 10세기 또는 11세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⁸⁾

돌로 만든 상륜부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다만, 원반을 겹쳐놓은 듯한 원통형 상륜석 위에 옥개석을 닮은 네모난 돌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그것이 묘하게도 1.2.3층의 옥개석과 일정한 체감률을 보인다. 그래서 원래는 5층 석탑이었으나 4.5층의 옥신석과 옥개석을 잃어버린 뒤 3층으로 재구성했다고 보기도 한다.

5. 가모우군 백제관련 유적의 의미

- 옛 가모우지역에서 귀실집사(鬼室集斯), 여자신(餘自信) 등 백제 유민을 대표하는 인물 관련 유적이 발견된 바 없음.
- 『일본서기』 등에도 귀실집사 등이 가모노코호리에 정착한 이후의 활동 기록은 전혀 없음.
- 이른바 귀실집사의 무덤, 석탑사의 3층 석탑 등은 7세기 후반~8세기 초엽의 유적으로

25) 川勝政太郎, 1957, 『日本石材工藝史』, 綜藝舎.

26) 若杉慧, 1970, 『日本の石塔』, 木耳社.

27) 정영호, 1992, 「백제의 석탑과 그 전파」,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학교박물관.

28) 曾和宗雄, 1981, 「近江·石塔寺層塔考」, 『韓國文化』20, 自由社, 26~31쪽.; 野村隆, 1985, 「近江石塔寺三重石塔の造立年代」, 『史跡と美術』55-8, 史跡美術同友會.; 히시다 테즈오, 2013, 「백촌강 이후 일본의 불교사원에 보이는 백제 유민의 영향」, 『동양미술사학』2, 동양미술사학회, 57쪽.

보기 어려움.

- 옛 가모우지역에는 7세기 후반~8세기초에 해당하는 사찰 유적이 히노가와유역에 다수 분포함.
- 히노가와유역 사찰들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백제문화와의 상관성 있음.
- 671년 12월 3일, 텐지[天智]천황이 46세의 나이로 오우미노미야[近江宮]에서 죽었다.²⁹⁾ 텐지천황은 친백제 성향이 농후하였고 귀실집사를 비롯한 백제 유민을 오우미의 가모우 지역에 정착하게 한 인물이다.
- 672년, 텐지천황의 아들인 오토모[大友]황자 진영과 텐지천황의 아우인 오아마[大海人]황자 진영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는데(壬申의 亂), 오우미지역을 근거로 한 오토모황자 진영이 패배하고, 야마토지역의 오아마황자가 텐무천황으로 집권하였다. 672년 8월, 상황을 모두 정리한 텐무천황은 오우미[近江]의 군신 중 중죄인 8명과 우대신을 극형에 처하고 좌대신 소가노오미[蘇我臣] 등을 유배 보냈다.³⁰⁾ 이때 가모우지역의 귀실집사 등의 행적은 기록에 없지만, 아마도 내전 초기에 세력이 컸던 오우미의 오토모황자 진영에 속했을 것이다.
- 귀실집사의 무덤 표석이 후대에 제작된 점, 석탑사의 3층 석탑이 후대에 조영된 점 등은 7세기 후반 일본 왕실의 내분과 정세 변화 속에서 백제 유민들이 한동안 은인자중(隱忍自重)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9) 十二月癸亥朔乙丑 天皇崩于近江宮. (『일본서기』 권27 天智紀 10년 12월)

30) 八月庚申朔甲申 命高市皇子宣近江群臣犯狀 則重罪八人坐極刑 仍斬右大臣中臣連金於淺井田根 是日 左大臣蘇我臣赤兄 大納言巨勢臣比等及子孫并中臣連金之子 蘇我臣果安之子悉配流 以餘悉赦之. (『일본서기』 권 28 天武紀 元年 8월)

참고문헌

- 권오영, 2023, 「일본 아스카(飛鳥)시대 묘제와 장제에 나타난 한반도계 이주민의 영향」, 『인문논총』80-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권오영, 2018, 「고고자료를 이용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 『중앙고고연구』 25, 중앙문화재연구원.
- 권오영, 2017, 「백제와 倭의 교섭에 관련된 최근 자료와 새로운 해석」, 『한국사론』6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권오영, 2008, 「壁柱建物에 나타난 백제계 이주민의 일본 畿内지역 정착」, 『한국고대사연구』49, 한국고대사학회.
- 박천수, 2023,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 박천수, 2012, 『일본 속 고대 한국문화-近畿지방』, 동북아역사재단.
- 박천수, 2011, 『일본 속의 고대 한국문화』, 진인진.
- 中久保辰夫, 2021, 「近畿지역의 고대 백제계(韓系) 이주민의 연구」, 『백제연구』7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신이슬, 2021, 「5세기 일본 近畿지역 한식계토기 출토 유적과 백제계 이주민들의 성격」, 『백제연구』7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최영주, 2020, 「일본 긴키지역의 생산유적으로 본 백제계 도래인의 정착양상」,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 鈴木靖民, 2016, 『古代日本の東アジア交流史』, 勉誠出版.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한일문화재논집Ⅱ』.
- 坂靖, 2010, 「고고자료로 본 백제와 일본-생산공인의 교류-」, 『충청학과 충청문화』1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송완범, 2010, 「일본 율령국가와 백제유민의 연구」, 『고대 동아시아 재편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회.
- 박윤선, 2012, 「도일 백제유민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83, 한국역사연구회.
- 이병호, 2013, 「일본의 도래계 사원과 백제 유민의 동향1-大阪·大津·東國·吉備의 고고학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53, 고려사학회.
- 이병호, 2013, 「일본의 도래계 사원과 백제 유민의 동향1-飛鳥, 기타 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39, 한국고대학회.
- 노성환, 2014, 「시마네의 한국계 신사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문학』65, 일본어문학회.
- 서정석, 2013, 「백제산성이 일본 조선식산성에 끼친 영향-大野城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67, 호서사학회.
- 김선민, 2007, 「일본고대국가와 백제왕씨」, 『일본역사연구』26, 일본사학회.
- 송완범, 2007, 「奈良시대의 백제왕씨사회와 문화적 특성」, 『일본언어문화』10, 일본언어문화학

회.

大坪秀敏, 2008, 『百濟王氏と古代日本』, 雄山閣.

榊原聖子, 1995, 「歸化人の研究 - 特に百濟王氏を中心として-」, 『皇學館論叢』28-3, 皇學館大學人文學會.

八木充, 2008, 「百濟滅亡前後の戦亂と古代山城」, 『일본역사』722, 일본역사학회.

山下剛司, 2014, 「百濟王氏存續の要因」, 『佛教大學總合研究所紀要』21, 佛教大學總合研究所.

河野通明, 2010, 「民具から見た百濟・高句麗難民の動向」, 『商經論叢』45-4, 神奈川大學經濟學會.

「7세기 후반 백제 유민의 일본열도 정착지 가모노코호리[蒲生郡]」에 대한 토론문

권오영(서울대학교)

김기섭 선생님의 논문은 일본의 오오미(현재의 시가현일대)에 이주 정착한 백제 유민에 관한 문헌적 검토와 함께 고분, 석탑 등에 대한 정리를 한 글이다. 백제 유민, 혹은 백제계 이주민의 일본열도 이주 정착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며, 지역적으로 오사카와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오오미일대에 대한 김기섭선생님의 논문은 백제 유민 디아스코라 연구에서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한다. 토론자도 김선생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평소 궁금하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한다.

1. 타이고즈카고분 등 횡혈식석실묘가 백제계이며 그 내부에서 출토된 병이나 소형의 취사구 역시 백제계임을 지적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다만 일본의 고분시대 후기 군집분의 피장자가 과연 단일한 성격, 정체성, 계통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면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석탑사의 경우 그 축조연대를 10-11세기로 볼 경우 고려의 백제계 석탑과 무난하게 연결될 수 있으나 일본에서 7세기 이후 그 중간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석탑이 이 시기에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가 평소에 궁금하였다.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실집사 묘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4. 시가현의 백제 유민 혹은 백제계 이주민과 관련하여서는 벽주건물, 온돌, 사원 등이 많이 다루어졌고 이 글에서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논지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오츠쿄(大津京), 텐치(天智)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이상의 작은 질문을 몇가지 던져보았지만 앞으로 시가지역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 이 글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7세기 백제 대외관계 연구

-백제 부흥운동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이효원(공주대학교)

- I. 머리말
- II. 7세기 초 백제 대외관계와 왜의 다자외교 추진
- III. 7세기 중엽 동아시아 분쟁 관계 격화
- IV. 백제의 멸망과 왜의 백제부흥운동 지원
- V. 맺음말

I. 머리말

7세기 동아시아 세계는 남북조 분열을 평정한 수와 당이라는 통일제국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 대륙 내의 혼란을 수습한 수와 당은 주변으로 그 세력을 뻗어가며 기존의 다원적인 세계가 아닌 하나의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반도에서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것은 고구려이지만, 백제나 신라 또한 변화한 국제 환경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이루고, 외부로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도모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되는 것이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이다.

왜의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백제와의 관계이다. 특히 왜는 4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백제 일변도 외교를 펼쳤다고 표현될 정도로 백제와의 관계에 집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6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고구려와 접촉하고, 7세기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다자외교를 추진하며 수나 당과도 직접 접촉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특히 645년 대화개신 이후 개신정권 시기에 신라와의 외교관계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왜의 대외 외교 방향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자왕 13년(653) 『삼국사기』에서 220여년 만에 확인되는 대외관계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후 왜가 백제·고구려와 함께 연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제명천황은 곧장 이를 지원할 준비에 직접 나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명이 급사하지만 뒤를 이은 천지도 지체하지 않고 백제로 지원을 보내는 모습이다. 6~7세기 이후 다자외교를 추진했던 왜가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7세기 국제 관계의 변화 속 백제와 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교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눠 백제의 대외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7세기 초 백제 대외관계와 왜의 다자외교 추진

7세기 백제 대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백제와 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양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백제와 중국대륙의 관계나 대고구려·대신라 관련 모습, 그리고 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변화 모두를 살펴보는 가운데 백제와 왜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7세기 국제 정세 이해에 핵심이 되는 문제들은 이미 6세기 후반부터 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 백제는 물론 고구려·신라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점과 일련의 전투에 대한 결과로 성왕이 전사했다는 것이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뒤 국가적 위기 속에 왕위에 오른 위덕왕(556~597)은 즉위 시기 또한 격변의 시대에 해당했다. 북조의 통일에 이어 중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위덕왕의 즉위와 통치가 진행된다. 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삼국사기』 위덕왕기의 기사는 대부분 대외관계 기사이다¹⁾. 이 시기 『삼국사기』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서기』를 통해 백제와 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내용은 대부분 문화적인 측면, 특히 불교 관련 주제로 집중한다²⁾. 고대의 종교가 단순히 문화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불교 관련 문화 교류가 단순한 문화 교류의 영향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주제가 7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 백제-왜 간의 교류가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특히 백제가 불교와 같은 선진문화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³⁾.

- 1) 『삼국사기』 백제본기 위덕왕대 기사는 총 27건이고, 위덕왕의 즉위 및 죽음에 대한 기사와 5건의 천문 기사를 제외한 20건이 대외관계(중국관계) 기사에 해당한다.
- 2) 위덕왕 대의 대외관계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우선 성왕대에 이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과는 정치·군사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살펴본 연구가 있다(박윤선, 2007,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3-94쪽). 대외관계 문화교류 기사를 단순히 문화교류가 아닌 불교를 통한 정치적인 변화를 도모했다고 살펴본 견해도 있다(김수태, 2004, 「백제 위덕왕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2). 앞의 두 연구가 양국의 필요에 의해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반면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며 양국의 교류에 신라의 방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왜의 사신 파견에 의해서만 제외 교류가 이뤄졌다고 살펴본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런 신라의 방해 때문에 불교 관계 문물의 수입만 가능했다고 파악하는 모습이다(김은숙, 1994, 「6세기 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성립과정연구」,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15).
- 3) 위덕왕 대에 파견된 승려는 문화의 전달자로 백제의 사신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며 조공사와 마찬가지로 백제와 왜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라 보는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 특히 승려들의 장기 체류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질(質)'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한다(장미애, 2021, 「6~7세기 백제의 대외교섭에서 사신의 파견과 역할」, 『역사학연구』82, 37-38쪽.) 국가 주도의 선진문화 전파라는 점이나 고대 종교의 정치사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위덕왕대의 왜와의 불교 문화교류 또한 단순히 문화교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1차원적

이런 배경 속에서 7세기 백제 대외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이 시기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수의 건국과 관련하여 백제의 7세기 초까지의 대수 관계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A-1. 왕은 수나라가 요동(遼東)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군의 길잡이[軍道]가 되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왕년에 고구려가 조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에게 명하여 죄목을 들어 엄하게 나무라게[討罪] 하였는 하였는데, 고원(高元, 영양왕)과 그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죄를 청하기에 짐이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수는] 우리 사신을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고구려가 자못 그 사실을 알아채고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침략하였다(『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45년 9월조)4).

A-2. 8년 봄 3월에 한솔(扞率) 연문진(燕文進)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또 좌평(佐平) 왕효린(王孝隣)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고구려를 칠 것을 요청하였다. 양제(煬帝)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움직임을 엿보게 하였다(『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5 무왕 8년 3월조)5).

A-3. 수나라 양제가 장차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니, 왕이 국지모(國智牟)를 보내어 행군 군기(軍期)를 요청하였다. 양제가 기뻐서 후하게 상을 더해주고 상서기부랑(尙書起部郎) 석률(席律)을 보내 와서 왕과 함께 서로 모의하게 하였다(『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5 무왕 12년 2월조)6).

A-4. 대업(大業) 3년(무왕8, 607)에 장(璋)이 사자(使者) 연문진(燕文進)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그해에 또 사자 왕효린(王孝隣)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면서 고구려의 토벌을 청하였다. 양제(煬帝)는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장은 안으로는 고구려와 통화 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수서』동이열전 백제전)7).

으로 보이는 문화교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대에 있어서 불교와 승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제 양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할만하다(新川登龜男, 1994,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 『名著刊行會』; 田村圓澄, 1980, 「古代朝鮮佛教と日本佛教」, 『吉川弘文館』; 나행주, 2020, 「7세기 고대일본의 건수사 건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사총』99, 22-23쪽 참고).

- 4) 王聞隋興遼東之役，遣使奉表，請爲軍道。帝下詔曰，“往歲高句麗不供職貢，無人臣禮，故命將討之，高元君臣恐懼，畏服歸罪，朕已赦之，不可致伐。”厚我使者而還之。高句麗頗知其事，以兵侵掠國境。
- 5) 八年，春三月，遣扞率燕文進，入隋朝貢。又遣佐平王孝隣，入貢兼請討高句麗。煬帝許之，令覘高句麗動靜。
- 6) 隋煬帝將征高句麗，王使國智牟入請軍期，帝悅厚加賞錫，遣尙書起部郎席律，來與王相謀。
- 7) 大業三年(607)，璋遣使者燕文進註 162朝貢。其年，又遣使者王孝隣入獻，請討高麗。煬帝許之，令覘高麗動靜。然璋內與高麗通和，挾詐以窺中國。

581년(위덕왕 28) 수가 건국하자 위덕왕은 삼국 중 가장 빠르게 사신을 파견한다⁸⁾. 이후에도 백제는 대수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589년(위덕왕 36) 수가 진(陳)을 평정하고 통일 제국을 이룩하자 축하 사신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백제가 대수외교에 적극적이었던 원인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⁹⁾.

진을 멸망시키며 중국대륙을 통일한 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세계까지 본인들의 통치질서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수가 진을 멸망시키자 곧장 무기를 수리하고 군량을 모으는 등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¹⁰⁾. 수 또한 곧장 고구려에 새서(璽書)를 보내 고구려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598년 고구려와 수 사이 전쟁이 발발하는데 A-1의 기사는 이때 백제가 수의 고구려 정벌에 있어서 군도(軍道)가 되기를 청하는 모습이다. 이때 결과로 고구려가 복종하고 죄를 청하여서 이미 용서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백제가 이미 수의 고구려 공격이 끝난 이후 군도를 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가 군도를 청한 것을 알게 된 고구려의 공격까지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를 두고 백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¹¹⁾. 하지만 기존에 백제나 남북조와 고구려의 관계 속에서 보인 외교적 민첩함을 생각한다면 백제가 실제 려-수 전쟁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보다는 수를 부추겨 고구려를 긴장상태에 두려고 했다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¹²⁾.

598년(위덕왕 45) 수에게 고구려 정벌의 군도를 청했던 위덕왕이 같은 해 12월 죽고 혜왕과 법왕을 지나 무왕이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수나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모습은 무왕 때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A-2을 보면 이때도 백제는 수에게 조공하며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는데, 고구려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로 2달 뒤 백제를 공격하는 모습이다¹³⁾. 그리고 A-3에서도 백제는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니 군기(軍期)를 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과 또한 유사한 모습인데 백제는 A-1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와 함께 고구려 정벌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때 백제는 수에게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면서도 고구려를 공격하기 보다는 신라 공격에 열중인 모습을 보인다¹⁴⁾. 이런 백제의 모습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을 A-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제의 대수외교 관련 모습을 백제가 수와 고구려 사이 양단책을 펼쳤다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¹⁵⁾. A-4의 기사를 토대로 당시 백제 대외정책이 대수 일변도의 모습이 아니

8) 고구려는 581년 12월, 신라는 594년 사신을 파견하는 모습이다.

9) 노중국, 1981,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28, 90쪽.

10) 三十二年, 王聞陳亡大懼, 理兵積穀, 爲拒守之策(『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7 평원왕 32년조).

11) 박민경, 2016,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53, 37쪽.

12) 박윤선, 2006,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 현실』 61, 99-100쪽

13) 夏五月, 高句麗來攻松山城, 不下, 移襲石頭城, 虜男女三千而歸(『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5 무왕 8년 5월 조).

14) 무왕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602년 신라 아막산성을 공격한다. 이후로 무왕은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한편 수에 사신을 보내는데 이때는 고구려 공격을 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무왕 대에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기사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607년(무왕 8) 수에게 사신을 보낸 뒤 고구려가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는 모습만 보인다. 백제가 고구려 공격을 모의하는 모습은 611년(무왕 12) 그려지기는 하지만 612년(무왕 13) 양단책을 썼다하며 실제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고구려와도 일정한 관계성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¹⁶⁾. 하지만 고구려는 친수 정책을 보이는 백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만약 백제가 고구려와 당시 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수가 이것을 알고도 611년(무왕12) 백제와 군기를 도모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 시기 백제는 삼국의 판에 수를 끌어들이며 삼국의 역관계에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¹⁷⁾. 즉 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고구려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국 관계에서 고구려를 분리하고 백제 자신은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삼국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7세기에 접어들며 삼국 간의 대립과 항쟁이 점점 치열해져가는 가운데 백제는 대수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7세기 왜의 대외관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6세기 말부터 포착되는 왜의 대외관계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백제를 통해서만 선진문화를 제공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6세기 후반부터 왜는 고구려를 통해서도 선진문화를 제공받고 있는 모습¹⁸⁾이 확인되는데 소아마자의 스승인 혜편¹⁹⁾, 성덕태자의 스승인 혜자²⁰⁾가 그 예이

-
- 15) 백제의 수-고구려 양단책은 겉으로는 수를 돕는다고 하면서 고구려와 통화하였다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사료를 신뢰하여 백제가 고구려와 수사이에서 양면외교 정책을 구사했다는 긍정론(노중국, 1981,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28 ; 김선옥, 1984, 「백제 隋唐關係 小考」, 『백제연구』15, 118-119쪽 ; 김주성, 2005,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고구려연구』20, 196-198쪽)과, 연화설이 허구라는 측면에서의 부정론(이호영, 1982, 「麗濟 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9·10 ; 박윤선, 2007,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3쪽 ; 박민경, 2016,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53, 38-39쪽), 그리고 부정론의 연장선상에서 고구려 원정 실패를 수군의 향도였던 백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결과론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46, 45-49쪽)가 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확인된다. 수대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새롭게 시도되었던 백제와의 동맹 노력이 있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607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고 이후 의자왕대에 들어와 643년 무렵에 백제와 고구려가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김수태, 2004,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24, 29-32쪽). 또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모습을 토대로 고구려가 왜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고구려-백제-왜를 잇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신라에 대한 압박 작전을 펴고자 하였으나, 백제의 향도 자청으로 그 의도가 빛나가고 말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26, 19-25쪽).
- 16) 노중국, 1981,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28, 92-93쪽 ;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148쪽
- 17) 박윤선, 2022, 「의자왕 대 백제의 국제관계」, 『신편 사비백제사』2, 논형, 202쪽.
- 18) 범흥사 건축에 백제는 물론 고구려 불교의 영향이 많이 확인되는 것과 관련해 위덕왕기 백제와 고구려 관계와 관련하여 554년 이후 충돌이나 교섭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왜의 요청을 계기로 위덕왕이 고구려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6쪽).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혜총 등의 활동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불교인들의 왕래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어 참고할만하다. 국가적 목적을 위한 국가의 파견이 아니라, 불교라는 선진문물의 전수가 이뤄진 개인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한 것이다(박윤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림』55, 68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문화 교류를 정치적 상황으로 연결하는 것은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단계에서는 문화적인 교류로만 우선 살펴보려고 한다.
- 19) 소아마자는 고구려 승려 혜편을 스승으로 삼았고 그에게서 득도한 세 비구니를 공경해 봉양했다. 또 미륵상을 안치해 불전을 경영했으며 제회도 크게 열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서기 본문이다.
是歲 蘇我馬子宿禰請其佛像二軀 乃遣鞍部村主司馬達等 池邊直水田 使於四方訪覓修行者 於是唯於播磨國得僧還俗者 名高麗惠便 大臣乃以爲師 令度司馬達等女嶋 曰善信 尼[年十一歲]又度善信尼弟子二人 其一漢人夜菩之女 豐女 名曰禪藏尼 其二錦織壺之女 石女 名曰惠善尼[壺此云都符]馬子獨依佛法 崇敬三尼 乃以三尼付水田直與達等令供衣食 經營佛殿於宅東方 安置彌勒石像 屈請三尼大會設齋 此時達等得佛舍利於齋食上 卽 以舍利獻於馬子宿禰 馬子宿禰試以舍利置鐵質中 振鐵錘打 其質與錘悉被摧壞 而舍利 不可摧毀 又投舍利於水 舍利隨心所願浮沈於水 由是馬子宿禰 池邊水田 司馬達等 深信佛法修行不懈 馬子宿禰亦於石川宅脩治佛殿 佛法之初自而作(『일본서기』권21 민달 13년조)
- 20) 五月戊午朔丁卯 高麗僧惠慈歸化 則皇太子師之(『일본서기』권22 추고 3년조)

다. 이는 왜에게 있어서 선진문물 수입처의 다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600년에는 1차 견수사를 파견한다²¹⁾. 이는 478년 대송외교를 끝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지 120년 만에 이뤄진 중국과의 통교인데 이때 왜수관계에 있어 고구려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²²⁾. 그럼 고구려는 왜 이때 왜와의 관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를 신라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거나²³⁾ 고구려의 대수외교 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⁴⁾. 고구려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구려의 행동이 왜에게는 선진문물 수입 창구를 늘릴만한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시기 왜와 신라의 외교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왜와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추고천황 때 반복되서 확인되는 임나와 관련된 신라 정벌 기사였다. 신라 정벌 기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신라와 왜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왔다²⁵⁾. 하지만 610년 이후 신라는 왜에 적극적으로 사신을 보내며²⁶⁾ 이후 대왜관계 변화에 대한 초석을 쌓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진입하는 당시의 왜는 기존 백제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 고구려·신라나 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모습이다. 608년 이것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국서탈취사건이다. 이는 왜의 2차 견수사 파견에서 시작한다. 607년 왜는 2차 견수사를 파견하며 학생과 학문승을 파견한다²⁷⁾. 그리고 왜의 사신에

21) 견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600년 설과 607년 설이 있으나, 603년에 실시되는 일본 최초의 관위제 시행의 대외적 계기를 중국과의 국교재개 즉 견수사 파견을 통한 대수외교와의 관련성을 주목한다면 역시 600년 단계에서 수에 대한 최초의 견사가 있었다고 이해된다(나행주, 2020,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 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사총』99, 3쪽).

22) 이성시, 1998, 「高句麗と日隋外交」; 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44쪽.

23) 기존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한강 유역과 동북 방면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며 신라가 고구려의 불안요소가 되었다고 파악한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42쪽).

24) 전통적으로 중국왕조가 지향하는 바는 주변제국의 왕이나 수장들이 중국황제의 책봉체제 속에 포섭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 황제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이었다. 즉 조공이나 책봉관계는 황제권의 강화에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수에 새로운 책봉국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소와의 정치적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44쪽). 하지만 왜는 수의 책봉 체계는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다. 또 왜의 선진문물의 창구를 중국 대륙으로 확대해줌으로써 왜와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박민경, 2016, 「백제 무왕대의 대왜관계」, 『한일관계사연구』53, 40쪽).

25) 임나로 상정되는 가야는 이미 멸망한 상황으로 임나를 전제로 한 추고기의 임나 관련 신라 정벌 기사는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 속에서 신라 정벌의 이유로 임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확인된다(김현구 등,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48-50쪽). 또 추고천황 601년에 확인되는 신라 정벌 논의에 대해 사건의 전개가 조작의 혐의가 짙고 설화적 성격이 강해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지만 앞서 송준천황 때의 신라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북구주에 대한 경비 태세가 강조되는 기사를 연결지어 보기도 한다. 즉 송준천황때와 마찬가지로 내목황자의 축사 파견 또한 신라 정벌이 아니라 신라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북구주의 대외군사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보는 것이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7쪽).

26) 이 시기 신라에서는 관등을 지닌 이가 대사로써 공적으로 파견되어 왜에 불교 문물을 전수했던 것에 반해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문물이 처음 전수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왕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즉 당시 불교 등 문물 교류에 있어서 신라는 국가적 성격의 파견이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국가 주체 외의 문화적 성격의 교류로 파악한 것이다(박윤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림』55, 68-75쪽).

27) 이는 왜의 견수사 파견의 목적이 중국 대륙에서 직접 불교·유교·정치제도와 같은 선진 문화를 수용하려는 정치문화사절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나행주, 2020,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 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사총』99, 4쪽).

대해 수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608년 배세청(裴世清)을 왜에 사신으로 보낸다. 견수사로 파견되었던 소야신매자(小野臣妹子)와 배세청이 왜로 돌아갈 때 백제를 통하는 길을 이용하는데 이때 백제가 수의 국서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이다.

A-5. 6월 임인 초하루 병진 사신들이 난파진(難波津)에 정박하였다. 이 날 장식 배 30척으로 사신들을 강 입구에서 맞이하여 새로 지은 관에 모셨다. 이에 중신궁지련오마려(中臣宮地連烏摩呂: 나카토미노미야도코로노무라지오마로)·대하내직강수(大河內直糠手: 오호시카우치노아타히아라테)·선사왕평(船史王平: 후네노후비토오우헤이)을 장객(掌客)으로 삼았다. 그러자 매자신(妹子臣)이, “(제가) 돌아올 때에 당나라 황제가 서찰을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를 지나올 때에 백제인이 조사하여 빼앗았으므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군신들이 의논하여, “무릇 사신이란 비록 죽을지라도 소임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이 사신은 어찌 그렇게 태만하여 대국의 서찰을 잃어버렸는가”라 하고, 유배형에 처하였다. 그 때 천황이 칙을 내려, “매자(妹子)는 비록 서찰을 잃어버린 죄가 있으나, 경솔하게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 대국의 사신들도 이를 듣고 또한 좋지 않다고 하므로, 죄를 용서하여 처벌하지 않았다(『일본서기』권22 추고 16년조)²⁸⁾.

이 사건이 바로 7세기 초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 중 하나인 ‘국서탈취사건’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시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져 집중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⁹⁾. 우선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사건을 벌인 대상이 백제라는 점에서 백제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사건 이해에 대한 선명도를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백제의 입장에서 당시 왜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기존에 백제 일변도의 외교 모습을 보이던 왜가 백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조짐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국서탈취사건인 것이다. 여기에서 백제가 어떤 대상을 견제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28) 六月壬寅朔丙辰 客等泊于難波津 是日 以飾船卅艘 迎客等于江口 安置新館 於是 以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 爰妹子臣奏之曰 臣參還之時 唐帝以書授臣 然經過百濟國之日 百濟人探以掠取 是以不得上 於是 群臣議之曰 夫使人雖死之 不失旨 是使矣何怠之 失大國之書哉 則坐流刑 時天皇勅之曰 妹子雖有失書之罪 輒不可罪 其大國客等聞之 亦不良 乃赦之 不坐也.

29) 국서탈취사건을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해 우선 국서탈취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살펴본 견해가 있다. 국서를 가지고 오던 일본 사신이 중국 황제의 반서(返書) 내용을 꺼려서 도중에 백제에게 빼앗긴 것으로 가탁(假託)했다는 것이다(板本太郎 외 校注, 1965, 『日本書紀』, 岩波書店, 190쪽). 또 이것이 왜의 입장이 이전과 다르게 일방적인 백제 우호책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살펴본 견해가 있다(정효운, 1997, 「7세기 중엽의 백제와 왜」, 『백제연구』27, 220쪽). 더 자세하게는 성왕의 죽음 이후 왜에서 친백제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왜가 백제 외에 다면외교를 전개하게 된 것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217-218쪽; 박현숙, 2018, 「백제 사비시기 대외외교와 사신 파견의 양상」, 『신라사학보』44, 135쪽).

방향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우선 왜와 수가 직접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국서탈취사건을 벌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³⁰⁾. 또한 왜의 대고구려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³¹⁾.

그럼 이런 백제의 행동에 대한 왜의 반응은 어땠을까. 왜는 이 사건에 대해 백제에 항의를 한다거나 국서를 탈취당한 담당자를 처벌하는 등의 응당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왜의 반응을 백제의 국서탈취 행위 이면의 뜻을 왜가 이해하고 항의나 처벌을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친백제 노선에서 벗어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하기도 한다³²⁾. 그리고 백제가 아닌 수에 대한 반응으로 수 황제의 국서를 탈취 당한 화를 피하기 위해 무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³³⁾. 당시 담당자였던 소야신매자를 처벌하면 백제의 행위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당 사건이 수에게 알려질 수 있고, 결국 견수사 파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배층 차원에서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서탈취사건은 왜의 다자외교 추진에 따른 백제의 견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왜는 이 사건을 키워 백제나 수와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국서탈취사건 이후로도 왜와 백제가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도 견수사를 파견할 때 백제를 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³⁴⁾. 이 시기 이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의 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가 멸망하고 당이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패자가 된 이후에는 당으로 승려나 학생을 파견할 때 기존의 백제가 아닌 신라를 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관계의 영향일까 623년(추고천황 31)의 임나 관련 신라 정벌 기사는 앞서 확인되는 신라 정벌 기사와 다르게 이해하고는 한다. 이때 단순히 신라 정벌에 대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신라 정벌을 둘러싸고 왜 조정 내에서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추고조의 임나 관련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통해 왜 조정 내에 신라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이는 추고기 초반과는 다른 모습임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해 7월에 신라가 불상이나 사리와 같은 불구(佛俱)를 바치는 것이나 학문승이 신라를 통해 입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623년 신라 정벌 논의 기사를 단순히 신라를 적대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³⁵⁾.

30)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149-151쪽 ; 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46, 67쪽.

31)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外交-이른바 國書 문제에 관한一試論」,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이우성교수정년기념논총』, 76-77쪽 ; 1998, 『古代東아시아의 民族と國家』, 岩波書店, 백제가 왜의 친고구려 정책에 경고의 뜻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왜에 도착한 배세청이 국서를 낭독하는 장면을 통해 백제가 탈취한 것은 공식적인 국서가 아닌 수양제가 왜에 별도로 보낸 사찰일 것이라고 본 연구가 있다(박민경, 2016,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53, 44쪽).

32) 板本太郎 외 校注, 1965, 『日本書紀』, 岩波書店, 190쪽.

33) 김현구, 1985,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310쪽.

34) 국서탈취사건 이후 7년간 백제와 왜의 관계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국서탈취사건에 대한 결과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참고 된다(박민경, 2016, 「백제 무왕대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53, 43-45쪽).

35) 임나 관련 기사를 1간지 거슬러 올라간 540년과 563년의 상황으로 재해석 해야한다고 본 견해가 있다. 더

이 시기 왜가 다자외교를 추진하며 백제와 왜의 대외관계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보인다. 7세기 전반에 대해 왜가 일방적인 친백제 정책을 취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왜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諸國과 대외관계를 맺어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³⁶⁾. 새로운 창구가 추가되며 국익에 따른 다자외교를 전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백제와 왜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³⁷⁾. 다만 양국의 외교관계에 있어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7세기 중엽 동아시아 분쟁 관계의 격화

수가 멸망하고 이어 당이 건국하자 무왕은 621년(무왕 22) 10월에 처음 사신을 파견하며 대당외교를 시작한다. 아래 기사를 통해 무왕 대의 대당외교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B-1. 가을 8월에 왕의 조카 복신(福信)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태종이 신라와 대대로 원수가 되어 서로 자주 침략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왕이 대대로 군장이 되어 동쪽에 있는 번국을 위무하고 있다. 바다 모퉁이가 멀고 멀며 바람과 파도가 험하지만 충성이 지극하여 조공이 서로 잇따르고, 더욱이 그대의 아름다운 꾀를 생각하니 매우 기쁘고 위로가 된다. 짐은 삼가 총명을 받들어 강토에 군림하고 정도를 넓히려고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며,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과 바람과 비가 미치는 곳마다 천성을 이루어 모두가 평안하게 하려고 한다. 신라 왕 김진평(金眞平) 짐의 번국 신하요, 왕의 이웃 나라인데, 매번 들으니 군사를 보내 정토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군사를 믿고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라는 바에 매우 어긋난다. 짐이 이미 왕의 조카 복신과 고구려, 신라 사신을 만나 조칙을 갖추어 화해하도록 하니 모두 화목하게 지내게 하였다. 왕은 모름지기 지난날의 원한을 잊고 짐의 본뜻을 헤아려서 이웃나라와의 정을 함께 돈독히 하고 즉시 싸움을 멈추라.” 왕은 이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사례하였는데, 비록 겉으로는 명령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서로 원수짐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 5 무왕 28년 8월조)³⁸⁾.

불어 7세기 전반에 확인되는 신라에 대외관계 관련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이 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견해 또한 참고된다(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220-221쪽).

36) 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221쪽.

37) 622년 성덕대자의 죽음 이후 왜 조정 내의 친백제 세력의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는 의견이 있어 참고된다(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153쪽).

38) 秋八月, 遣王姪福信, 入唐朝貢. 太宗謂, 與新羅世讎數, 相侵伐, 賜王璽書曰, “王世爲君長, 撫有東蕃. 海隅遐曠, 風濤艱阻, 忠款之至, 職貢相尋, 尚想嘉猷, 甚以欣慰. 朕祇承寵命, 君臨區宇, 思弘正道, 愛育黎元, 舟

무왕은 당의 건국 이후 사신 파견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늦었지만 처음 사신을 파견한 이래로는 꾸준히 조공을 보내는 모습이다³⁹⁾. 이에 당태종은 B-1에서 보이듯 백제가 외교 관계를 시작한 이후 거리가 멀고 파도가 험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이 끊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이를 무왕 대 백제가 대당 외교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⁰⁾. 이런 무왕대 백제의 대당 외교관계 모습은 삼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삼국은 모두 당이 건국했을 당시에는 관계를 이어오다가 고구려는 당태종이 즉위하는 이후로, 신라는 선덕여왕이 즉위한 이후로 매우 적은 대당교류 모습을 보여준다⁴¹⁾. 반면 백제는 꾸준히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B-1에서 확인되듯이 외교책임자로 왕족을 파견하는 모습이다. 그럼 백제가 이렇듯 대당외교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백제는 대수외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수대와 마찬가지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대당외교가 활발해지는 무왕 후반기에 신라에 대한 공격이 잦아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무왕은 대당외교를 통해 대신라 공격에 대한 당의 묵인 내지 협조를 얻으려 한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⁴³⁾.

이 시기 그럼 백제의 대외관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는 629년(무왕 30) 서명천황이 즉위한다. 서명천황은 친백제적이라 평가받는 천황이지만 그 외교관계는 앞선 6세기 말부터 시작된 다자외교의 모습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리고 백제는 서명천황이 즉

車所通，風雨所及，期之遂性，咸使乂安。新羅王金眞平，朕之蕃臣，王之鄰國，每聞遣師征討不息。阻兵安忍，殊乖所望。朕已對王姪福信及高句麗·新羅使人，具勅通和，咸許輯睦。王必須忘彼前怨，識朕拳懷，共篤鄰情，即停兵革。”王因遣使，奉表陳謝。雖外稱順命，內實相仇如故。

39) 618년 당이 건국하자 고구려는 619년 2월, 신라는 621년 7월에 사신을 보낸다.

40) 당태종은 641년 무왕이 죽자 애도식을 거행하고 조서를 내리는데 이때 ‘고인이 된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 부여장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멀리서 정사를 받고, 보배를 바치며 글월을 받들어 처음과 같이 한결같았는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41) 당이 631년 광주사마(廣州司馬) 장손사(長孫師)를 보내 수 전사들의 해골을 묻은 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긴장 관계로 돌입한다. 이는 이전에는 사신을 꾸준히 보내지만 당이 장손사를 보내 경관을 허문 이후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할 수 있다. 신라 또한 진평왕 이후 선덕여왕이 즉위하자 당은 선덕여왕에 대한 책봉을 늦게 함은 물론 643년(의자왕 3)에 와서는 여왕 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이다(金壽泰, 1991, 「百濟의 滅亡과 唐」, 『百濟研究』 22, 153쪽).

42) 대수외교에서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대당외교에서는 신라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 신라의 한강유역 장악이 고착화되어가자 백제와 고구려의 직접적인 군사 출동 위험성이 사라지며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삼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626년에 명광개를 현상하고 고구려의 조공 방해를 호소한 것을 백제가 고구려 상대로 모의하거나 견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모습이다(박민경, 2016, 「百濟 武王代의 對倭關係」, 『韓日關係史研究』 53, 48-51쪽).

43) 김수태, 1991, 「백제의 멸망과 당」, 『百濟研究』 22, 157쪽. 이와 관련해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문화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노중국, 1988, 「무왕 및 의자왕대의 정치개혁」, 『백제정치사연구』, 209쪽).

44) 서명천황은 즉위 후 백제전 옆을 궁터로 삼고 궁궐과 절을 지었다. 그리고 죽을 때 거처했던 궁의 이름은 백제궁이었고 빈궁을 백제대빈이라 했다. 이런 일련의 백제 관련 장제의 이름을 통해 서명천황의 친백제적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명기 왜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친백제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살펴본 연구가 있다. 추고기에 국서탈취사건이 있는 후에도 백제를 통해 견수사를 보내는 왜이지만, 당 건국 이후로는 신라를 통해 왜로 귀국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를 신라 측에서 꾸준히 왜와의 외교에 적극성을 보이고, 왜 또한 대외관계에 변화를 추구한 결과로 파악한다(박윤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람』 55, 75-80쪽).

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31년(무왕 32) 왕자 풍장을 왜로 파견하는 모습이다.

B-2. (3년, 631) 3월 경신 초하루 백제왕 의자(義慈)가 왕자 풍장(豐章)을 들여 보내어 볼모로 삼았다(『일본서기』권23 서명 3년조)⁴⁵⁾.

위의 기사는 백제 왕자 풍장이 볼모로 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의 기사는 두 가지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풍장의 파견 성격에 대해 볼모, 즉 ‘質’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631년은 아직 무왕이 재위하고 있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왕 의자>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다⁴⁶⁾.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이루어진 특수 외교 사절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다뤄진 수많은 논쟁이 이뤄졌다⁴⁸⁾. 우선 해당 기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장과 의자왕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풍장의 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백제왕 의자’라는 표현의 이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21년 소개된 자료인 조인본과 부여씨의 합장 묘지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묘지에서 조인본 부인의 내용을 담는 부분의 ‘부인은 부여씨인데, 대방왕 의자의 손이고, 대방태자 풍의 딸이다.’⁴⁹⁾ 라는 내용을 볼 때 부여풍은 의자왕의 아들임을

45) 三月庚申朔 百濟王義慈入王子豐璋爲質.

46) 백제왕을 의자로 표기한 배후를 선광과 그 자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재석, 2018, 「백제부흥전쟁과 부여 풍장·왜국」, 『동아시아적 관점의 백제부흥전쟁과 주류성 -2018 한국고대회 추계학술대회』, 95쪽).

47)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질’을 결코 복속의 상징물이나 정치적 볼모로 질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질을 도입하는 목적에는 질의 파견에 동반해 증여되는 소위 뇌물의 내용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나행주, 200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質」 -왜국의 「質」導入·受容의 의미」,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35쪽). 백제의 ‘질 외교’와 관련해 파견된 인물들의 면면이 태자 혹은 왕위 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과 장기체재 했다는 점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들은 장기체재를 통해 왜 안에 친백제파를 형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사(大使)의 성격을 가지며 백제 왕권의 대행자로 대외외교를 수행했다. 질 외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제공이 이뤄졌을 것인데 이때 왜에서 제공한 것은 군사력과 군사물자로 확인된다. 이는 왜와 고구려·신라 관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모습이라 참고된다(延敏洙, 2001, 「古代 韓日 外交史 -三國과 倭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27, 237-240-249쪽). 추가적으로 이 외교관계를 명칭하는 호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 외교’의 일본서기 내의 의미를 부정하면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왕족 외교’는 『일본서기』 내에서 동일하게 ‘질’의 파견이라고 설명되는 신라의 질까지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질’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수 외교 사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48) 풍장과 관련된 논의는 교기와 동일인물로 보는지 다른 인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크게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교기와 동일인물로 보는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속일본기』에서 풍장과 함께 입조했다고 나오는 선광의 연령을 추적해 풍장의 입조 연대를 10년 정도 내려야한다고 보며 교기와 같은 인물로 파악한 연구(西本昌弘, 1985,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107)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이를 따르며 631년조의 내용은 기년상의 모순이 있고 실제로는 642년에 파견된 교기와 동일인물로서 파견 시기 또한 642년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10-11쪽 ;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23-24쪽) ‘백제왕 章’은 추기된 것이고 이 당시 백제 왕족이 파견되었다는 견해(胡口靖夫)도 참고된다. 풍장과 교기를 다른 인물로 파악한 연구로는 무왕의 아들인 풍장과 의자왕의 아들인 교기가 각 시기에 보내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鄭孝雲, 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85-94쪽) 이라 유사하며 무왕의 아들 풍장과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동명이인으로 파악한 견해(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풍장은 무왕의 아들이며 교기는 풍장의 아들로 파악한 견해(南廷昊, 2014, 「『日本書紀』에 보이는 豊璋과 翹岐 關聯 記事의 再檢討」, 『百濟研究』60, 137-138쪽)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해당 기사를 통해서 풍장의 가계를 우선 살펴보고 바로 뒤 황극기에 나오는 교기 기사에서 풍장과 교기의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다.

49) 장병진, 2022, 「백제 부여풍 후손 행적에 관한 새 자료 -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역사와 현실』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 의자왕이 본인의 아들인 풍장을 왜에 파견했다는 기사가 무왕 재위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기사의 기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⁵⁰⁾, 두 번째는 632년(무왕 33) 의자왕이 태자로 책봉되는 것과 관련해 무왕 재위기 후반에는 의자왕이 무왕을 대신하여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⁵¹⁾. 우선 풍장 파견 기사에서는 풍장이 의자왕의 아들인 것 까지를 명확히 해두며 642년 확인되는 교기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B-3. (원년 봄 정월)을유 백제에 사신으로 갔던 대인(大仁) 아담련비라부(阿曇連比羅夫: 아즈미노무라지히라부)가 축자(筑紫: 츠크시)로부터 역마를 타고 달려와 “백제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사(弔問使)를 받들어 보냈는데, 저는 조문사를 따라 함께 축자국(筑紫國: 츠크시노쿠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례식에 봉사(奉仕)하고자 하여 혼자서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매우 어지럽습니다”라고 하였다. 2월 정해 초하루 무자 아담산배련비라부(阿曇山背連比羅夫: 아즈미노야마시로노무라지히라부), 초벽길사반금(草壁吉士磐金: 쿠사카베노키시이하카네), 왜한서직현(倭漢書直縣: 야마토노아야노후미노아타이아가타)을 백제 조문사에게 보내 소식을 물었다. 조문사가 대답하기를 “백제국왕이 저희들에게 ‘새상(塞上)은 항상 나쁜 짓을 하므로 돌아오는 사신에 딸려 보내주기를 청하더라도 조정에서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백제 조문사의 겸인 등이 “지난 해 11월 대좌평지적(大佐平智積)이 죽었습니다. 또 백제 사신이 곤륜(崑崙)의 사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금년 정월에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제왕자아(弟王子兒) 교기(翹岐)와 그 누이동생의 딸 4명, 내좌평기미(內佐平岐味) 그리고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름 4월 병술 초하루 계사 대사(大使) 교기(翹岐)가 그의 종자(從者)를 데리고 조정에 배알하였다. 을미 소아대신(蘇我大臣)이

123, 421-422쪽 인용.

50) 풍장과 교기를 동일한 인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서명기 3년(631)은 기년상의 모순이고 실제로는 황극 원년(642)에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西本昌弘, 1985,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107).

51) B-1의 ‘백제왕의자’는 오류이지만 『구당서』태종본기 정관 11년 12월조(637; 무왕38)에도 백제왕이 태자 융(隆)을 보내 내조(來朝)했음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무왕 말기 의자가 무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삼국사기』백제본기 무왕 35년 이후 유흥과 연회 기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 무왕이 정치적 일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B-2의 내용 또한 무왕 대신 국정을 운영하던 의자가 자신의 아들을 왜에 파견한 것으로 본다(박주선, 2020, 「豊璋·翹岐의 동일인물설 검토」, 『사학연구』140, 12-13쪽) 무왕이 대왕으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해 무왕 말기에 이미 의자가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국정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했다는 연구가 있다(姜鍾元, 2011, 「百濟 武王의 太子 冊封과 王權의 變動」, 『百濟研究』54, 160쪽). 하지만 풍장이 왜로 파견된 것은 631년교 의자는 1년이 지난 632년에 태자가 되며, 이는 앞서 살펴본 무왕 35년 이전의 일이다. 또한 앞서 무왕 즉위기에 의자가 국정을 위임받았을 것이라 살펴본 연구에서는 B-2의 기사를 근거로 무왕 33년을 전후한 시점에 의자가 국정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B-2의 기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자가 태자가 되기도 이전에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다시 B-2를 활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B-2의 내용에서 풍장이 의자왕의 아들인 정도만을 밝히고, 이후 교기 관련 기사에서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방가(畝傍家)에서 백제 교기 등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말 1필과 철정(鐵鋌) 20개를 주었다. 오직 새상(塞上)은 부르지 않았다.(『日本書紀』새권24 황극 원년 정월·2월·4월조)⁵²⁾.

B-4. (여름 4월) 경자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에서 역마를 달려 아뢰기를 “백제 국왕의 아들 교기(翹岐)와 아우 왕자가 조사(調使)와 함께 왔습니다”라고 하였다(『일본서기』권24 황극 2년 3월조)⁵³⁾.

B-3의 내용을 보면 황극 원년(642) 정월 29일 백제로 파견되었던 아담련비라부가 백제의 조문사와 함께 축자에 도착, 이후 봉사(奉仕)를 위해 먼저 조정에 도착한 아담련비라부가 백제 대란의 내용을 전한다. 그리고 3일 후 왜는 아담련비라부 등을 백제 조사에게 보내 소식을 묻는다. 이때 새상의 악행과 641년 11월 대좌평 지적의 죽음 소식, 백제 사신이 곤륜 사신을 바다에 던졌다는 사건, 642년 국주모가 죽고 백제 왕의 아들인 교기 등 40여 명이 섬에 유배되었다는 사실 등을 전한다. 그리고 B-4에서 643년 4월 교기가 아우 왕자와 함께 함께 파견되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황극천황이 즉위하고 다른 때보다 한반도 관련 기사가 많이 확인되는데 이 중 同事重出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들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기의 도왜 기사도 B-3에서는 642년으로 나오지만 B-4에서는 643년의 일로 소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⁵⁴⁾. 물론 교기가 도왜한 것이 642년인지 643년의 일인지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풍장과 교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풍장은 앞서 의자왕의 아들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 풍장과 교기를 동일인물로 본다면 의자왕은 백제대란의 결과로 본인의 아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더불어 풍장과 교기가 각각 파견 기사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이나 각자 뚜렷한 활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풍장과 교기는 각기 다른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왜한 뒤에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럼 풍장과 교기가 다른 인물이라 할 때 교기의 파견 성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52) (元年春正月) 乙酉 百濟使人大仁阿曇連比羅夫 從筑紫國 乘驛馬來言 百濟國 聞天皇崩 奉遣甲使 臣隨甲使 共到筑紫 而臣望仕於葬 故先獨來也 然其國者 今大亂矣 二月丁亥朔戊子 遣阿曇山背連比夫·草壁吉士 磐金·倭漢書直縣 遣百濟甲使所 問彼消息 甲使報言 百濟國主謂臣言 塞上恒作惡之 請付還使 天朝不許 百濟甲使 僉人等言 去年十一月 大佐平 智積卒 又百濟使人 擲崑崙使於海裏 今年正月 國主母薨 又弟王子兒翹岐及其 母妹女子四人 內佐平 岐味 有高名之人冊餘 被放於嶋 … 夏四月丙戌朔癸巳 大使翹岐 將其從者拜朝 乙未 蘇我大臣 於畝傍家 喚百濟翹岐等 親對語話 仍賜良馬一匹·鐵廿鋌 唯不喚塞上

53) (夏四月) 庚子 筑紫大宰 馳驛奏曰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 共調使來

54) 고구려의 연개소문 쿠데타 관련 기사를 통해 교기 관련 기사를 643년으로 파악한다는 견해(김현구 등,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127쪽), 백제 대란은 무왕에서 의자왕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641년 3월 이후였을 것이며, 대란으로 인해 축출된 세력들이 왜에 도착해 활동하기까지는 조문사 파견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므로 643년으로 파악한 견해(박운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림』55, 85쪽)황극기의 기사를 살펴볼 때 모든 기사를 연월일까지 맞춰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라의 하등극사(賀登極使) 겸 조상사(弔喪使) 파견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가운데 백제조사(百濟弔使)의 파견을 황극 원년(642)으로 살펴본 견해(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223-224쪽) 등이 있다.

까⁵⁵⁾. B-2에서도 나오듯 교기는 풍장에 비해 도왜 관련 기사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를 보면 백제대란의 결과로 교기는 섬으로 추방되는데 여기서 섬은 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추방되었다는 교기는 같은 해 바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대사(大使)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교기 또한 단순히 추방된 것이 아니라 ‘특수 외교 사절’의 일환으로 파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⁵⁶⁾. 즉 백제대란으로 백제 내부 정권을 정리한 의자왕이 교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로 파견함으로써 특수 외교 사절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풍장과 교기의 도왜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기 파견 기사가 확인되는 642-643년 여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백제는 641년 3월 무왕이 사망하고 의자왕이 즉위한다. 이어 왜에서도 641년 10월 서명천황이 사망하고 황극천황이 즉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642년에는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의자왕은 즉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는데, 특히 642년 8월에는 대야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 백제의 경우 의자왕의 즉위 이후 일어난 백제 대란의 결과로 대고구려 정책이 변화한다고 살펴본 연구가 있어 참고 된다⁵⁷⁾. 고구려 연개소문의 쿠데타 또한 그 결과로 대당·대신라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된다고 파악된다⁵⁸⁾.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백제는 기존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왜에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풍장과 교기의 파견인 것이다. 그리고 특수 외교 사절을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왜와의 교류로 내부의 안정을 도모한 의자왕은 이후 대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55) 풍장과 교기의 정치적 세력이 달랐다고 본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소아씨 세력 정권 시절에는 교기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풍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개신정권 세력, 즉 반소아씨 정권 시절에는 풍장의 활발함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반소아씨세력과 풍장세력, 소아씨 세력과 교기세력이 각각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착된 관계라고 파악한 것이다(金善民, 2000, 『日本書紀』에 보이는 豐璋과 翹岐, 『日本歷史研究』11, 36-38쪽). 해당 연구에서는 교기를 정쟁에서 실각하며 망명한 반의자왕 정치세력이었다고 살펴본다. 하지만 의자왕이 파견한 풍장은 친신라 정책을 펼치는 개신정권과 연결되고, 반의자왕 정치세력인 교기는 친백제 세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소아씨와 연결된다고 살펴보고 있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56) 교기의 파견이 백제대란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이때 아담산배런비랑부 등을 보내 소식을 묻고 있는 것은 백제대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도 있지만 이때 도왜한 외교사절단이 자격이 있는 사절단인지 판단하고자 함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 대좌평 지적이 사신으로 파견된 이유는 교기 일행에 대한 왜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기 등 백제대란으로 추방된 이들이 왜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만약 왜에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국과 단절해 정치적 재기를 다시 노릴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하는 모습이다(南廷昊, 2014, 『日本書紀』에 보이는 豐璋과 翹岐 關聯 記事의 再檢討, 『百濟研究』60, 140-143쪽). 교기의 도왜와 관련해 그가 백제대란의 결과로 추방당했으면서도 백제에서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기가 추방당했음에도 친백제적인 활동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백제대란의 결과로 추방당한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택’씨가 죽임을 당하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활약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기가 소아씨로부터 환대를 받는 모습이나 소아씨 관련 지역에서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교기 일행이 소아씨와 연결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 소아씨는 대표적인 친백제계 세력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7)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95-96쪽 ; 鄭孝雲, 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94쪽. 위와 동일하게 의자왕 시기 백제대란과 관련해 살펴보면 이 것이 대고구려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국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대고구려 정책이었던 것이다(정재운, 2009,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學報』37, 54쪽).

58)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94-95쪽,

황극천황의 즉위와 관련해 소아씨(蘇我氏)가 일련의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고려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교류의 매개에는 소아씨가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645년 6월 12일 을사정변이 일어나며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소아씨가 제거되고 대화개신을 수행하는 개신정권이 탄생하며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소아씨가 제거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한(韓)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⁵⁹⁾이나 이후 대외관계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을사정변의 발발 원인에 대외관계 사항이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신라와의 관계이다⁶¹⁾. 왜는 646년 9월 국박사 고향현리를 신라로 파견하고 이때 임나의 조를 그만 두게 한다. 그리고 고향현리를 따라 647년 김춘추가 도왜하자 이를 질로 삼고 649년 5월에는 춘추에 이어 김다수를 질로 삼는다⁶²⁾. 이렇듯 대화 연간에는 대백제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친신라·친당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⁶³⁾. 하지만 이런 모습은 백치 연간이 되어 반전된다.

우선 백치 연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을사정변 이후 대화개신이 펼쳐진 뒤 개신정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에 을사정변과 대화개신을 주도한 인물로 중대형황자를 주목했다. 그렇다면 중대형황자는 본인의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퇴위시키고 효덕천황의 사후 다시 제명천황으로 즉위시킨 것이다. 결국 을사정변의 결과로 천황 위에 오른 것은 경황자, 효덕천황이었다⁶⁴⁾. 중대형황자는 적어도 초기 개신정권을 주도한 인물은 아니었을

59) 삼한진조(三韓進調)의 장소에서 소아입록 제거 계획을 시행하는 것, 소아입록이 죽은 뒤 고인대형이 본인의 궁으로 들어가 “한인(韓人)이 안작신을 죽였다.”라고 하며 그 세주로 한정(韓政) 때문에 주살되었다라고 언급한 부분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백제와 신라의 대외 군사외교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친백제노선을 취한 소아씨가 제거되는 것을 본다면 이것에 친신라계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본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473-474쪽).

60) 을사정변과 대화개신은 기존 소아씨가 주도하던 친백제 정책에서 당·신라와의 삼국연합 체제로 전환한데 의의가 있다고 살펴본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김현구 등,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132-133쪽).

61) 대화개신의 중심인물들은 이전부터 신라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확인된다(金鉉球, 1989, 「고대 한(신라), 일관계의 일고찰 -대화개신과 신라, 일본, 당 삼국간의 협력체제 성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23, 314쪽).

62) 신라의 임나의 조 폐지와 질 파견에 대하여 우선 서술표현은 『일본서기』에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춘추가 질로 파견된 이후 당으로 파견되어 신라와 일본, 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백제의 ‘질’과 동일하게 단순한 인질로서 파악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8세기 일본은 신라를 번국으로 위치시키는 율령법을 제정하고, 역사적으로 조공국임을 증명하는 『일본서기』를 편찬했다. 이런 대외관념에서 김춘추는 훌륭한 소재가 되었을 것이고, 김춘추를 인질로 위치시킴으로써 일본 천황이 신라왕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모습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50-51쪽).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신라가 김춘추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관계 관련 노력을 보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김춘추 이후에 파견되는 김다수나 미무의 예시를 통해 백제 ‘질’로 표현되는 특수 목적 외교 사절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백제는 왕족이 파견되는 것에 비해 신라는 왕족이 아닌 관인이 파견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파견 시기 또한 백제에 비하면 몹시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서기』에 표현되고 있는 ‘질’이 백제와 신라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서술되었는지 왜의 의도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서기』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질’ 외교를 일관적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사절’로 이를 우선 이해하고자 한다.

63)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제와 왜의 관계가 적대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화 연간 대외외교 정책과는 별개로 백제와의 친연관계는 유지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때 왕족외교, 즉 앞서 살펴본 특수 외교 사절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477-478쪽).

64) 이는 중대형황자가 을사정변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와 『가전(家伝)』에 의하면 을사정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진경자련으로 경황자가 아닌 중대형 황자와 을사정변을 일으킨 것은 경황자의 ‘기량부족(器量不足)’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천황으로 추대되는 것은 중대형 황

것이다⁶⁵⁾ 649년 3월 24일에 소아신일향(蘇我臣日向)이 중대형황자에게 소아창산전마려(蘇我倉山田國麻)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전후하여 개신정권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 죽거나 관직을 잃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 중대형황자는 비로소 개신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갔을 것이고 이후 확인되는 것이 백치 연간이다. 아래는 백치 원년기사이다.

B-5. 2월 경오 초하루 무인 혈호국사(穴戶國司) 초벽련추경(草壁連醜經: 쿠사카베노무라지시코부)이 흰 꿩을 바치며, “국조 수(首)의 동족(同族) 지(贄: 니에)가 정월 9일에 마산(麻山: 워노야마)에서 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것을 백제군(百濟君)에게 물으니, 백제군이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1년(68)에 흰 꿩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라고 하였다(『일본서기』권24 황극 6년(백치 원년) 2월조)⁶⁶⁾.

백치 원년(650년, 의자왕 10) 2월 조정에 흰 꿩이 헌상되자 백제군 풍장에게 제일 먼저 그 의미를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⁶⁷⁾. 그리고 이것이 길조임을 알게 되자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백치라 개원하고 선언의례를 진행하는데 이때 왜의 조정대신과 더불어 풍장, 새성, 충승 등 백제 왕족이 참여 한다⁶⁸⁾. 앞서 살펴본 백치 원년의 기사는 물론 이후 백치 연간에 백제는 매해 왜에 사신을 보낸다. 특히 기존의 제왜관계 기사가 『일본서기』에서만 포착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삼국사기』백제본기 의자왕 13년(653년) 8월 왜국(倭國) 통호 기사⁶⁹⁾가 보여 주목할 만 하다. 또한 650년 백제선 건조 명령, 651년 당복을 착용하고 내왜

자가 아니라 경황자이다. 하지만 앞서 『가전(家伝)』에서 확인되는 경황자의 ‘기량부족’ 관련 기사는 중신겸자련의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황극천황은 처음에 천황 위에서 물러나며 중대형 황자에게 양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중신겸자련에게 논의했다고 여겨진다. 이때 중신겸자련은 중대형 황자의 나이를 이유로 들어, 고인대형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며 중대형 황자의 등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인다. 즉 중신겸자련은 중대형 황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처음부터 경황자를 개신정권의 기둥으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金鉉球, 1985, 『大和政権の対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394-397쪽 ; 2016, 『동아시아 세계와 백촌강 싸움』, 65-69쪽).

65) 김현구, 2016, 『동아시아 세계와 백촌강 싸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67쪽

66) 二月庚午朔戊寅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曰 國造首之同族贄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 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67) 중대형황자가 개신정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백치 연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백치의 의미를 묻는 것에 풍장이 활약하고 있음은 매우 뜻 깊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앞서 57번의 각주에서 교기와 풍장이 왜에서 연결되는 정치세력이 달랐을 것이라 살펴본 견해에 주목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의자왕이 보낸 풍장이 친신라적인 정책을 펼친 개신정권과 연결된다는 점이나 반의자왕 세력이라 판단하는 교기세력이 친백제계라 판단되는 소아씨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었다. 58번의 각주처럼 교기가 백제대란의 결과로 백제 중앙에서 축출 당하지만 왜에 특수 외교 사절로 파견된다고 이해한다면 교기가 친백제적인 소아씨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백치 원년의 기사들을 통해 풍장세력은 중대형황자와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하는 바이다.

68) 풍장과 풍장의 아우인 새성(새상)의 백제 본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상에게 대한 백제 국왕의 나쁜 평판이 확인되고 있어, 백치 연간의 기사가 의자왕대를 대표하는 대왜관계 기사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박윤선, 2022, 「의자왕 대 백제의 국제관계」, 『신편 사비백제사』3, 논형, 45-46쪽).

69) 당시 왜는 백제나 신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외교 정책을 유지해나갔던 것으로 본다(박윤선, 2007,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왜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6쪽). 왜왕권이 신라·당 노선과 고구려·백제 노선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한 신라 사신의 입경을 막고 축자에 머무르게 하며 신라 정벌을 이야기하는 모습 등이 이 시기 확인된다. 물론 이 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653년 5월에 파견된 2차 견당사⁷⁰⁾와 이들이 귀국하기도 전인 654년 2월 파견된 3차 견당사⁷¹⁾와 관련된 모습이다⁷²⁾. 하지만 앞서 대화 연간에서 친신라·친당 중심의 대외관계를 펼치면서도 백제와 친연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고 해서 왜 또한 이들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 한 곳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중이면 반대쪽의 관계는 끊어버리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형황자를 중심으로 한 백제 연간에 왜는 다시금 친백제적 대외관계 노선 중심으로 회복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라와 당과의 교류도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백제 연간의 왜는 다시금 친백제적인 대외외교 노선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그리고 백제 연간에서 대화 연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천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황극천황은 중대형황자의 천도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에 본인이 천도했던 난파궁을 지키다가 죽게 된다. 655년 제명천황이 즉위하자 7월 백제는 150명의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리고 다음해인 656년 8월 고구려가 81명의 대규모 사신단을 보낸다. 백제와 고구려는 왜에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기 이전인 655년 정월 신라의 북쪽 경계 33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공동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그리고 655년 2월 당고종은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 소정방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한다. 효덕천황이 죽고 제명천황과 중대형황자의 정권이 세워진 왜왕권의 입장에서 당의 ‘신라를 위한 대백제 출병’ 명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강요였다. 오히려 제명천황은 즉위한 뒤 곧장 백제·고구려와 연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왜는 대화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⁷³⁾, 658년 4월부터 660년 3월

대한정책』, 『신라문화』24, 15쪽).

70) 2차 견당사의 파견 목적과 정치·외교목적의 사절로 당과 직접 교섭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다는 견해(關晃, 1962, 「大化改新」, 『岩波講座日本歴史』2, 岩波書店, 222-223쪽), 이와 유사하게 당의 대백제 강경자세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山尾幸久, 앞의 책, 405-406쪽), 당의 목적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견해(上田正昭, 1997, 「東アジアと海上の道」, 『明石書店』, 123쪽), 신진 문화 습득 및 학문승 파견에 목적을 둔 문화사절로 이해하는 견해(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動亂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32-133쪽) 등이 있다.

71) 3차 견당사의 파견 목적과 관련해 651년 당고종에서 최후통첩을 받은 뒤 652년 이래로 대당관계가 단절된 백제의 요청으로 3차 견당사파 파견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나행주, 2013, 「왜의 제3차 견당사와 백제·신라」, 『百濟研究』58, 41-42쪽). 견당사의 파견에 신라를 통하는 길을 이용하고 귀국길에 신라송사가 함께 왜에 파견되는 모습에 더불어 백제 기록도 함께 확인되는 것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왜가 신라의 기록에 더해 간략하게 기록을 한 모습을 통해 삼국 가운데 신라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왜와 신라의 관계가 밀접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더해 왜와 신라의 관계에서 신라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나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박윤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림』55, 92쪽).

72) 2차 견당사가 귀국하기도 전에 3차 견당사를 파견한 이유와 관련해 653년경 천도 문제를 둘러싸고 효덕천황과 중대형황자와의 갈등이 생긴 이후 중대형황자가 승리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654년에 다시금 견당하는 파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산미행구, 406쪽) 또 高田首根麻呂 등의 조난으로 다시 견당사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왜가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조난은 처음 겪는 일이었고, 653년에 파견된 견당사의 일면을 보면 왜의 유력 씨족 출신이 많이 확인된다. 왜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견당사를 파견했다고 보는 것이다(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34-35쪽).

73) 是歲, 於飛鳥 岡本, 更定宮地. 時,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爲張紺幕於此宮地, 而饗焉. 遂起宮室. 天

까지 하이와 숙신을 공격하며 후방을 도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⁷⁴⁾.

IV. 백제의 멸망과 왜의 백제부흥운동 지원

당태종 이래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당은 해결의 실마리를 백제 공격을 통해 찾고자 했다. 고구려의 후방을 담당하고 있던 백제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와 연합하던 국가 간의 관계를 끊고 고립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당은 660년 서해를 곧장 건너는 당시로서는 위험한 항로를 이용해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 백제를 공격하는 작전을 시행한다. 이 작전의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663년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하며 백제는 멸망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 고지를 배경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격변을 왜가 알게 된 것은 660년 9월이다⁷⁵⁾. 그리고 바로 다음달 좌평 귀실복신이 좌평 지적 등을 사신으로 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백제 부흥운동 세력 측에서는 당의 포로를 바치며 군대와 풍장을 요청한다. 그리고 제명천황은 백제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몸소 부흥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왜의 부흥운동 지원에 대한 의지는 천지천황 때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체 왜는 어떤 이유로 이미 멸망한 백제를 지원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 방향 속에서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논지가 ‘소제국주의’라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이는 ‘임나의 조’와 같은 잘못된 역사적 사실과 왜가 백제를 구원한다는 인식에서 발호한 것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왜의 부흥운동 지원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백제와 왜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왜가 백제 부흥운동 지원에 나서는 모습 속에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제명천황의 치세에 드러나는 적극적인 부흥운동 지원 모습에서 나타나는 지역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皇乃遷。號曰後飛鳥 岡本宮。於田身嶺。冠以周垣[田身山名。此云太務。]。復於嶺上兩槻樹邊起觀。號爲兩槻宮。亦曰天宮。時好興事。迺使水工穿渠。自香山西。至石上山。以舟二百隻。載石上山石。順流控引。於宮東山。累石爲垣。時人謗曰。狂心渠。損費功夫。三萬餘矣。費損造垣功夫。七萬餘矣。宮材爛矣。山椒埋矣。又。謗曰。作石山丘。隨作自破[若據未成之時。作此謗乎。]。又作吉野宮。西海使佐伯連繩[關位階級。]。小山下難波吉士國勝等。自百濟還。獻鸚鵡一隻。災岡本宮。(『일본서기』권26 제명천황 2년(656) 시세조)

74) 하이와 숙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제명천황 대에 확인되는 북정(北征)의 목적은 고구려와 통하는 북방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긴박한 국제정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연민수 등, 2013, 『역주 일본서기3』, 동북아역사재단, 284쪽 각주98).

75) 왜가 고구려 사신에 의해 당이 백제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660년 정월 알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山尾幸久, 1967, 「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229, 42쪽). 이때 고구려 사신은 당의 원정에 대한 군사외교로 생각하는 연구가 있다. 더불어 고구려 사신이 660년 5월 난파관(難波館)에 도착하고 이어진 법회를 국토수호의 일환으로 본다. 이때 이 법회는 백제의 위기를 왜의 위기로 느꼈기 때문에 개최한 것으로, 백제의 멸망 소식이 왜에 전달된 직후 왜 본토를 방어하는 전위기지로 생각되는 서북반(西北半)-북부구주(北部九州)-에서 방어와 관련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백제 멸망을 왜의 위기로 직접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延敏洙, 「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 전투까지-」, 『日本歴史研究』6, 41-43쪽).

C-1. 12월 정묘 초하루 경인 천황이 난파궁(難波宮: 나니와노미야)에 행차하였다. 천황은 복신(福信)이 청한 뜻에 따라 은혜롭게 축자(筑紫: 츠크시)에 행차하여 구원군을 보낼 것을 생각하고, 처음 이 곳에 와서 여러 군기(軍器)를 갖추었다. 이 해 백제를 위해 장차 신라를 정벌하려고 준하국(駿河國: 스루가노쿠니)에 배를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배를) 다 만든 후 속마교(續麻郊: 오미노)에 끌어왔을 때, 그 밤중에 까닭 없이 배의 머리와 꼬리가 흔들렸다. 뭇사람들이 마침내 패할 것을 알았다. 과야국(科野國: 시나노노쿠니)에서 “파리떼가 서쪽으로 향해 巨坂(거판: 오호사카)을 날라서 지나갔는데, 크기가 10아름쯤이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군이 패배할 징조임을 알았다. 동요가 있었는데 ……(『일본서기』권26 제명 6년 12월조).

C-2. 갑진 어선(御船)이 대백해(大伯海: 오오쿠노우미)에 이르렀다. 경술 어선이 이에(伊豫: 이요) 숙전진(熟田津: 니키타츠)의 석탕행궁(石湯行宮: 이와유노카리미야)에 머물렀다 [숙전진은 우리나라에서는 備枳柁豆(にきたつ)라 한다] (『일본서기』권26 제명 7년 1월조).

C-3. 3월 병신 초하루 경신 어선이 돌아와 나대진(娜大津: 나노오오츠)에 이르렀다. 반뢰행궁(磐瀨行宮: 이하세노카리미야)에 머물렀다. 천황이 이 곳의 이름을 바꾸어 장진(長津: 나가츠)이라 했다(『일본서기』권26 제명 7년 3월조).

C-4. 여름 4월 백제의 복신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그 왕자 규해(紇解)를 맞아가기를 청했다 [주석에 도현(道顯)의『일본세기(日本世記)』에서는 “백제의 복신이 글을 올려 그 임금 규해를 동조(東朝: 일본)에 구했다”고 하였다. 흑본에는 “4월에 천황이 조창궁(朝倉宮: 아사쿠라노미야)으로 옮겼다”고 했다](『일본서기』권26 제명 7년 4월조).

제명천황은 660년 12월 본격적으로 부흥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12월 난파궁을 시작으로 661년 4월 조창궁에 이르는 여정은 제명천황은 물론 중대형황자도 함께하는 여정이었다. 이 여정을 살펴보면 C-1 난파진(難波津: 나니와츠)를 출발해 C-2 대백해를 거쳐 이에(伊豫國)의 숙전진으로 이동, C-3의 나대진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 경로는 조창궁에 이르는 최선의 경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국(四國: 시코쿠)에 있는 이에국의 숙전진은 기존의 경로 상에 벗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제명천황이 최선의 경로를 두고 위의 C1~4 기사에서 확인되는 지역들을 경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중국풍토기(備中國風土記)’를 보면 중대형황자가 대백해와 숙전진 사이에 있는 비중국(備中國: 빗추쿠니) 하도군(下道郡: 시모츠미치군) 이마향(邇磨鄉: 니마노사토) 부근에서 군사를 모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예의 숙전진에 들른 것도 군사를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⁷⁶⁾. 더불어 제명천황의 경로 상에 드러나는 지역이나 부흥운동 기사 속에서 확인되는 장군들의 출신지역이 기내 서쪽에서 9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결국 제명천황이 경유한 지역은 부흥운동 지원을 위한 군사장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⁷⁷⁾. 그리고 출신지가 소개된 장군의 수 중 절반이 확인되는 구주(九州: 큐슈)지역은 특히 주목되는 지역이다.

구주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으로 한반도에서 왜의 중앙으로 이어지는 통로로써 왜의 대외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⁷⁸⁾. 특히 7세기 이전 왜의 대외창구가 백제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구주지역과 백제지역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국지역 또한 백제와 왜의 교류 속에서 기항지 등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⁹⁾. 왜병의 구조가 호족연합군의 모습이었다면 지휘계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호족군이 부흥운동 지원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집권적 율령국가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왜의 지역 지배의 모습의 일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에 더해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백제에 대한 친연성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왜군의 출병 목적 문제이다. 아래는 백제 멸망 이후 확인되는 출병 기사에서 확인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다.

C-5. 조를 내려 “군대를 빌고 구원을 청하는 것을 옛날에 들었다. 위험에 빠진 것을 도와주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은 항상 법도에 나타나 있다. 백제국(百濟國)이 곤궁에 빠져 와서 우리나라에 귀의하며 ‘본국에 화란이 있으나, 의지하여 알릴 곳이 없다. 창을 베고 자며 쓸개를 핥는다.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멀리서 와 표를 올려 아뢰니 뜻을 빼앗기 어렵다. 장군들에게 나누어 명하여 여러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라. 구름처럼 모이고 번개처럼 움직여 함께 사탁(沙喙)에 모여, 악한 무리들을 베고 저 위급한 나라를 도우라. 마땅히 有司들은 함께 참여하여 예를 갖추어 출발시켜 보내라”고 운운 하였다(『일본서기』권26 제명 6년 10월조)⁸⁰⁾.

76) 伊豫를 비롯해 四國의 군대가 백촌강 전투에 동원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김현구 등,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190-191쪽).

77) 더불어 군대의 구성이 왜군의 백촌강 전투 패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모습이다(나행주, 2023, 「‘백촌강 전쟁’의 파병 원인과 패인에 대한 검토」, 『韓日關係史研究』82, 23-25쪽).

78) 나행주, 2023, 「‘백촌강 전쟁’의 파병 원인과 패인에 대한 검토」, 『韓日關係史研究』82, 25-26쪽

79) 백제권과 왜의 교섭과 관련해 瀬戸内海 경로를 따라 전개되는 유적과 고분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북부큐슈지역과 키비, 하리마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瀬戸内海 연안 각지에도 분포하는 모습이다. 이때 시고쿠 지역에도 사례가 확인된다(高田實太 저·김도영 역, 2016, 「일본열도의 백제관련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루트와 백제 영산강 유역-」, 『百濟學報』16, 30쪽·42-43쪽·44-45쪽의 지도)

80) 詔曰, 乞師請救, 聞之古昔. 扶危繼絕, 著自恆典. 百濟國, 窮來歸我, 以本邦喪亂, 靡依靡告. 枕戈嘗膽, 必存拯救. 遠來表啓, 志有難奪. 可分命將軍, 百道俱前. 雲會雷動, 俱集沙喙. 翦其鯨鯢, 紓彼倒懸. 宜有司, 具爲與之, 以禮發遣, 云云(送王子豐璋及妻子, 與其叔父忠勝等. 其正發遣之時, 見于七年. 或本云, 天皇, 立豐璋爲

C-6. 7년 봄 정월 정유삭 임인, 어선이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 비로소 바닷길로 나아갔다(『日本書紀』卷26 齊明 7年 1월조)⁸¹⁾.

C-7. 8월 전장군(前將軍) 대화하(大花下) 아담비라부련(阿曇比羅夫連: 아즈미노 히라부노무라지), 소화하(小花下) 하변백지신(河邊百枝臣: 가하헤노모모에 노오미) 등과 후장군(後將軍) 대화하(大花下) 아배인전비라부신(阿倍引田比羅夫臣: 아헤노히케타노히라부노오미), 대산상(大山上) 물부련웅(物部連熊: 모노노메노무라지쿠마), 대산상(大山上) 수군대석(守君大石: 모리노키미오 호이하) 등으로 하여금 백제를 구원하게 했다. 그리고 무기와 5곡을 보냈다[어떤 책에는 이 끝부분에 이어서 “따로 대산하(大山下) 협정련빈랑(狹井連擲檣: 사위노무라지아지마사), 소산하(小山下) 진조전래진(秦造田來津: 하다노미야츠코카쿠츠)으로 하여금 를 지키게 했다”고 하였다](『일본서기』권 27 천지 즉위전기 8월조).

C-8. 이 해 …… 또 일본에서 고려(高麗)를 구하러 간 군의 장수들이 백제 가파리(加巴利)의 해안에 배를 대고 불을 피웠다. 재가 변해 구멍이 되어 작은 소리가 났는데 화살이 날며 우는 소리와 같았다. 어떤 사람이 “고려·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고 하였다(『일본서기』권27 천지 즉위전기 시세조).

C-9. 이 달에 당인과 신라인이 고려를 정벌했다. 고려가 우리나라에 구원을 청했으므로 군장을 보내 소류성(疏留城)에 응거하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으므로, 신라가 서쪽 진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일본서기』권27 천지 원년 3월조).

위의 기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왜의 출병 목적은 3개이다.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고구려를 구하기 위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이다. 애초에 병력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복신의 요청이 있었고, 명확하게 위급한 백제를 구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어 실제 왜병의 목적은 백제 지원에 있었다고 비교적 간편히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고구려 구원과 신라의 정벌은 어떤 이유로 제시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구원의 대상은 백제와 고구려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고구려 구원과 관련하여 이를 백제의 멸망 이후 고구려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일례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⁸²⁾. 이와 연결

王, 立塞上爲輔, 而以禮發遣焉.]

81) 七年 春正月丁酉朔丙寅, 御船西征, 始就于海路.

82) 김현구, 2003, 「白江戰爭과 그 역사적 의의」, 『百濟文化』32, 130쪽.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데 천지천황이 부흥운동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 고구려의 군사적 실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 연구도 참고 된다⁸³⁾. 이는 결국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고구려-왜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⁸⁴⁾. 또 『일본서기』 규해 기사에 주목해 백제 부흥운동 지원에 있어 고구려계와 함께 살펴본 연구가 있다. 규해 기사는 661년 4월⁸⁵⁾과 663년 5월⁸⁶⁾ 2차례 확인되는데 모두 고구려 관계 기사 속에 등장한다. 661년 4월의 기사는 복신이 규해의 복귀를 660년 10월에 이어 다시 청하는 내용이다. 이때 세주로 도현의 일본세기 내용이 나오는데 도현이 고구려 승려라는 점에서 고구려 관계 기사로 생각해볼 수 있다. 662년 5월은 견상군(犬上君)이 고구려와 군사 사항을 논의하고 석성에서 규해를 만난다는 내용이다. 두 기사는 모두 고구려계 기사, 특히 『일본세기』 기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⁸⁷⁾. 그리고 도현으로 대표되는 고구려계는 고구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백제 구원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이 고구려 침공을 위해 백제를 우선 멸망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의 구원은 고구려 구원의 전제로서 필히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⁸⁸⁾.

왜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둘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백제를 매개로 각각 원조를 해준 것이라 이해하기도 한다⁸⁹⁾. 하지만 일본서기 기사 속에서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해 고구려가 언급되는 부분이나 출병의 목적으로 백제 구원과 함께 고구려 구원이 제시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그리고 왜와의 연결점은 찾을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라 정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라 정벌·서쪽 정벌(西征)은 C-1을 보면 백제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다. 그리고 C-1과 이어지는 관점에서 C-6의 제명천황이 탄 배가 서정을 위해 바닷길로 나갔다는 기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신라 정벌이 실제 왜에서 가진 인식이었을까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왜가 실제로 주적을 신라로 설정했다고 살펴본 견해가 있다. 이때 신라군에 대한 인식은 추고천황 대의 신라전이나 제명천황 즉위 초 에미시 정도, 숙신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⁹⁰⁾. 그리고 동일하게 신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이것이 당을 공격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에 따른 것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연이어 고구려에 대한 공

83) 김은숙, 1996,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15, 152쪽.

84) 661년 9월의 호송군이 풍장의 호송 외에 고구려에 대한 원조활동의 임무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연구도 참고된다(鄭孝雲 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174-175쪽).

85) 본문의 C-4 내용 참고

86) 여름 5월 계축 초하루 견상군(犬上君)[이름은 빠져 있다]이 달려가 군사에 관한 일을 고려에 알리고 돌아왔다. 석성(石城)에서 규해(紇解)를 보았는데 규해가 복신의 죄를 말했다(『日本書紀』卷27 天智 2년 5월조).

87) 『일본서기』 부흥운동 관련 출병 관련 기사나 규해 관련 기사와 관련해 그 출처를 살펴보는 자세한 내용은 (新川登龜男, 2003, 「白江戰爭과 古代 동아시아」,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서경문화사, 335-342쪽)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본고에서는 우선 부흥운동 관련 기사와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88) 新川登龜男, 2003, 「白江戰爭과 古代 동아시아」,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서경문화사, 339-341쪽.

89) 盧重國, 1995, 「百濟 滅亡後 復興軍의 復興戰爭 研究」, 『歷史의 再照明』, 도서출판소화, 236쪽.

90) 왜가 백제 부흥운동 지원에 나서며 주적을 당군이 아닌 신라군으로 설정했고 이때 신라군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다. 결국 이는 당시 왜가 국제 정세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결국 부흥운동 지원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파악하는 모습이다(나행주, 2023, 「‘백촌강 전쟁’의 파병 원인과 패인에 대한 검토」, 『韓日關係史研究』82, 32-34쪽).

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때 고구려를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당과의 전투를 상정한 다는 것인데, 부흥운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당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 고구려와 백제 지원은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문제는 만약 백제 부흥이 실패하고 고구려까지 멸망하게 된다면 왜가 직접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적을 당으로 설정하면 지배층이나 백성의 동의 또한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정벌의 대상을 신라로 설정했다고 보는 것이다⁹¹⁾. 앞선 두 견해와는 다르게 실제로 왜가 신라 정벌을 계획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백제 멸망 이후 왜가 군사를 모으는 것은 복신의 요청에 의한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후 663년 2월까지 부흥운동 세력에게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자 왜왕 권은 대백제 출병의 동기를 상실한다. 이에 천지천황은 내부 권력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신라 정벌을 위한 출병을 명령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 663년 2월 전장군(前將軍) 상모야군치자(上毛野君稚子: 카미츠케노노키미와카코) 등이 신라의 사비기노강(沙鼻岐奴江) 인근의 두 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이다⁹²⁾.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라 정벌은 백제 구원과 연결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흥운동 전개에 있어서 전쟁이 단순히 한 시점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660년부터 약 4년 간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병의 논리는 이후 자국의 이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나 고구려의 지원과 별개로 왜가 신라 정벌에 나섰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첫 번째, 부흥운동의 전개 시점이 아직 나당이 고구려 공략을 진행하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당시 왜는 아직 당의 위협을 받고 있던 와중으로 위기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내부 권력의 정비를 위해 외부로 군대를 출병한다고 보기에 당시 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백제 부흥운동이 과연 663년 2월까지 성세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661년 9월 웅진도를 둘러싼 웅산성·우술성 전투의 결과로 부흥운동 세력은 패배하며 신라에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경로는 물론 웅진도까지 통하게 된다. 하지만 부흥운동 세력은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내사지성이나 진현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또한 662년 7월과 8월에 거쳐 신라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는 등 당시 부흥운동 세력은 열세에 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성으로 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백제 부흥운동세력의 지원을 위해 나섰다 왜병이 단독적으로 신라 정벌을 목적으로 신라를 공격했다고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663년 2월의 사비기노강 2성 함락 또한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신라 정벌은 백제 정벌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텐데 660년 정월 고구려의 사신 이도왜한 뒤에 법회를 여는 모습을 본다면 왜가 백제 부흥운동이나 고구려 지원과 관련한 당과의 충돌 위험성을 몰랐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⁹³⁾. 결국 신라 정벌의 인식은 내부적으로 출병을 설득하기 위해 내세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서기』 편찬

91) 김현구, 2016, 『동아시아 세계와 백촌강 싸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95-99쪽.

92) 鄭孝雲 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197-199쪽.

93) 78번 각주 내용 참고

당시 사관의 개념이 개입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⁹⁴⁾. 앞서 출범 목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왜는 이전 시기에 체결된 백제-고구려와 연결되는 연합 관계 속에서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앞서 7세기 초부터 백제 부흥운동 지원 모습에 이르기까지 백제와 왜는 물론 당시의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을 통해 왜가 백제-고구려와 이어지는 연합을 형성한 이유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직접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6세기 후반 이래로 왜는 다자외교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친백제 세력은 왜 내에 잔존해 계속해서 활약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을사정변으로 효덕천황이 즉위하며 친신라·친당 중심 외교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도 풍장이 귀국하지 않고 왜에 체류했음은 주목된다⁹⁵⁾. 또 7세기 이후 다자외교로 선진문물의 수입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근간이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수입이나 생산조직은 여전히 백제가 중심이었다. 즉 백제계는 이미 왜의 사회 저변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⁹⁶⁾.

다자외교를 살펴볼 때 왜가 신라와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백제와의 교류가 끊겼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는 왜와의 관계가 아닌 신라-백제의 적대적 관계에 집중한 것이라 생각한다. 왜는 다른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국의 필요에 따라 교류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지 연간 이후에도 신라나 당과 교류를 끊지 않으려 노력했던 모습이나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신라를 계속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재개하는 모습을 통해 왜의 교류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선진문물의 수입과 관련된 교류의 모습은 연합 관계를 형성했던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자 변하게 된다. 이후 왜는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신라와 당과의 교류 관계를 끊고 연합의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명과 천지로 이어지는 정권의 당위성 문제이다. 을사정변으로 효덕천황이 왕위에 오른 뒤 황극천황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이후 효덕천황이 죽자 황극천

94) 도현의 『일본세기』 기록에 『일본서기』 제명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를 전복시켰다’라는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신라 비판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도현으로 상징되는 고구려계의 집단 감정과 의사가 왜의 중앙정권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新川登龜男, 2004, 『白江戰爭과 古代동아시아』,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서경, 349-351쪽).

95) 왜가 지원을 결정하는 것에는 백제 측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주목되는 것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백제 왕족외교이다. 백제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왜에 왕족을 파견해 군사외교를 추진했고, 장기 체재를 통해 왜왕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이 시기에도 왜에 체류하고 있던 백제 왕족들이 확인되며 이들은 장기간 체재하며 왜 조정 내의 친백제적인 흐름을 유도해 나갔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속에 형성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486쪽).

96)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482-483쪽.

황은 다시 제명천황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인 중대형황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앞서 중대형황자와 관련해 백치 연간을 주목해 살펴본 바 있었다. 이때 핵심은 개신정권을 나눠 살펴보았을 때 대화 연간의 핵심세력은 효덕천황과 중신겸자련이고 백치 연간이 되어서 중대형황자가 비로소 정권을 잡고 활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중대형황자는 어떤 문제로 효덕천황과 대립했던 것일까. 먼저 일어난 의자왕 대의 백제대란과 연개소문의 정변이 참고 된다. 물론 역사적 사건이 단일의 이유로 벌어지지 않는 것이나 공통적으로 외교 관계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백제와 고구려에서 정변이 있는 뒤 파견된 특수 외교 사절의 모습이나 백치 연호 선포 당시 풍장 등 백제 인물들의 활약, 이후 재개되는 백제 교류 기사를 참고한다면 중대형황자의 쿠데타의 명분 중 하나를 대외관계 노선의 변화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⁹⁷⁾. 그리고 정권을 잡는데 세운 명분을 제명천황과 천지천황은 이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백제 부흥운동 지원에 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는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백제는 왜에게 오랜 기간 선진문물을 전파하는 창구가 되어주며 폭넓은 영역은 물론 다양한 지역과 관련해서도 친연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리고 이런 친연관계 속에서 풍장·교기과 같은 특수 외교 사절의 활약을 통해 왜 정권 내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신정권에서 중대형황자가 정권을 잡게 되는 모습이며, 이후에도 왜 정권 내에서 활약하며 부흥운동 지원에 의지를 보냈을 것이다. 물론 왜의 부흥운동 지원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촌강 전투나 백촌강 전투 패전 이후 왜로 넘어온 백제의 유민들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며 부족한 논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97) 물론 중대형황자의 쿠데타 명분, 즉 효덕천황과 분열되는 모습 속에서 대외관계 노선 변화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후계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관계 노선 변화 또한 중요한 대립 문제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살펴보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鍾元, 2011, 「百濟 武王의 太子 冊封과 王權의 變動」, 『百濟研究』54
- 高田貫太 著·김도영 역, 2016, 「일본열도의 백제관련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루트와 백제 영산강 유역-」, 『百濟學報』16
- 金善民, 2000, 「『日本書紀』에 보이는 豊璋과 翹岐」, 『日本歷史研究』11
- 金壽泰, 1991, 「百濟의 滅亡과 唐」, 『百濟研究』22
- 김수태, 2004,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24
- 김영하, 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38
- 김은숙, 1996,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日本學』15
-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 金鉉球, 1989, 「고대 한(신라), 일관계의 일고찰 -대화개신과 신라, 일본, 당 삼국간의 협력 체제 성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23
- 김현구 등, 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 김현구, 2003, 「白江戰爭과 그 역사적 의의」, 『百濟文化』23
- 김현구, 2016, 『동아시아 세계와 백촌강 싸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후련, 2004,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고대일본의 자타인식」, 『역사문화연구』21
- 나행주, 200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質」-왜국의 「質」導入·受容의 의미」,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나행주, 2011, 「왜국의 對한반도 정책」, 『韓日關係史研究』40
- 나행주, 2013, 「왜의 제3차 견당사와 백제·신라」, 『百濟研究』58
- 나행주, 2017, 「한반도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 『한일관계사연구』56
- 나행주, 2020,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 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입당승 입송승 이해를 위한 서장-」, 『史叢』99
- 나행주, 2023, 「‘백촌강 전쟁’의 파병 원인과 패인에 대한 검토」, 『韓日關係史研究』82
- 南廷昊, 2014, 「『日本書紀』에 보이는 豊璋과 翹岐 關聯 記事의 再檢討」, 『百濟研究』60
-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 노중국, 1988, 「무왕 및 의자왕대의 정치개혁」, 『백제정치사연구』
-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 盧重國, 1995, 「百濟 滅亡後 復興軍의 復興戰爭 研究」, 『歷史의 再照明』, 도서출판소화
- 노중국, 2022, 「신라로 기울어진 당과 백제의 대응」, 『신편 사비백제사』3, 논형
- 박민경, 2015, 『6~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경, 2016, 「百濟 武王代の 對倭關係」, 『韓日關係史研究』53
- 박윤선, 2007,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선, 2016, 「7세기 『일본서기』 삼국관계 기사의 분석과 백제와 왜의 관계」, 『사림』55
- 박윤선, 2022, 「중국 통일 제국의 등장과 백제의 국제 관계 변화」, 『신편 사비백제사』2, 논
형
- 박윤선, 2022, 「의자왕 대 백제의 국제관계」, 『신편 사비백제사』3, 논형
- 박주선, 2015, 「백제 의자왕대의 신라 고립책과 대외관계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를 중심
으로-」, 『한국사론』61
- 박주선, 2020, 「豊璋·翹岐의 동일인물설 검토」, 『사학연구』140
- 박현숙, 2018, 「백제 사비시기 대외외교와 사신 파견의 양상」, 『신라사학보』44
- 山尾幸久, 1992, 「7世紀 中葉의 東아시아」, 『百濟研究』23
- 서영교, 2018, 「백촌강전투 이전 왜국의 견당사」, 『영남학』67
- 新川登龜男, 2004, 「白江戰爭과 古代동아시아」,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서경
- 양기석, 2012,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충청학과충청문화』15
- 延敏洙, 1997, 「개신정권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전투까지-」,
『日本歴史研究』6
- 延敏洙, 2001, 「古代 韓日 外交史 -三國과 倭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27
-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 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24
- 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26
- 연민수, 2011, 「신라의 대외외교와 김춘추」, 『신라문화』37
- 연민수 등, 2013, 『역주 일본서기3』, 동북아역사재단
- 연민수, 2017, 「개신정권의 성립과 동아시아 외교」, 『日本歴史研究』6
- 오택현, 2022, 「논어 목간을 통해 본 동아시아 논어 전파」, 『민족문화』60
- 이유진, 2019, 「7세기 일본의 동아시아정책과 대응」, 『신라사학보』45
- 이재석, 2003, 「백제 부흥운동과 야마토 정권」, 『史叢』57
- 이재석, 2007, 「7세기 왜국의 대외 위기감과 출병의 논리」, 『일본역사연구』26
- 李在碩, 2013, 「7世紀 後半 百濟復興運動의 두 路線과 倭國의 選擇」, 『百濟研究』57
- 이재석, 2020, 「왜국(일본)에서 본 백제·고구려의 멸망」, 『역사비평』130
- 이주현, 2005, 「7세기 백제·왜 외교관계 연구」, 『백산학보』73
- 장미애, 2021, 「6~7세기 백제의 대외교섭에서 사신의 파견과 역할」, 『역사학연구』82
- 장병준, 2022,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 -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 『역사와 현실』123
- 장병준, 2024, 「부여풍은 백제 의자왕의 태자인가?」, 『百濟學報』48
- 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46

- 정동준, 2018, 「7세기 중반 백제·신라의 대외정책 비교」, 『신라사학보』42
- 정재윤, 2009,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の 政治的 動向」, 『韓國史學報』37
- 鄭孝雲, 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 學研文化社
- 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 佐藤信, 2004, 「白江戰爭과 倭」,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서경
- 츠치다 준코, 2011, 「일본 출토 백제(계)토기」, 『百濟研究』54

「7세기 백제 대외관계 연구 -백제 부흥운동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에 대한 토론문

박윤선(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본 발표문은 백제가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가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원인을 파견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왜가 백제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유를 찾아 가는 방법으로 2,3장에서 왜의 국제관계상 백제와의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4장에서는 백제멸망 당시 왜의 국내 출병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백제와 왜의 관계가 7세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나 결국 여전히 친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제명과 천지기에 출병 목적 기록이 백제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일본학계의 지배적인 논지인 ‘소제국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발표자의 책임을 같음하고자 한다.

1. 제목과 내용의 일치

본 발표문의 제목은 <7세기 백제 대외관계 연구-백제 부흥운동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이다. 백제를 중심으로, 백제의 입장에서 왜와의 관계가 서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표문은 왜가 중심이 되어 왜의 입장으로 시종일관 서술되고 있다. 물론 이는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측의 사료가 전무하여 전적으로 <<일본서기>>에 의존해야 하는 근본적 제약에서 기인한 현상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제목이 ‘백제의 대외관계’라면 백제의 입장에서 왜와의 관계를 서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글의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장제목 역시 적절한가하는 의문이 있다. 2장의 제목은 ‘7세기 초 백제 대외관계와 왜의 다자외교 추진’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백제의 대외관계를 천착하고 있지 않다. 백제 입장의 서술은 수나라와의 관계뿐이고, 왜의 입장에서 왜와 다른 나라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백제가 그 대상의 하나가 되어 있다. 3장의 제목은 ‘7세기 중엽과 동아시아 분쟁 관계 격화’인데, ‘동아시아 분쟁 관계 격화’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입에 무왕대 대당외교가 사료인용과 함께 2단락 서술되고, 이후에는 서명부터 제명까지 왜의 국제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3장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동아시아 분쟁관계의 격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으로 장의 제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2. 시기구분의 기준

2장과 3장을 시기를 나누어 7세기초, 7세기 중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 시점이 언제이며,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3.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의 영향

8쪽에 백제의 국서탈취사건 관련 서술에서 ‘국서탈취사건은 왜의 다자외교 추진에 따른 백제의 견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왜는 이 사건을 키워 백제나 수와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국서탈취사건 이후로도 왜와 백제가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도 견수사를 파견할 때 백제를 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바로 이어서 신라가 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외교를 펼치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글의 맥락상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이 신라가 왜에 접근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9쪽에 ‘이 시기 왜가 다자외교를 추진하며 백제와 왜의 대외관계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보인다. 7세기 전반에 대해 왜가 일방적인 친백제 정책을 취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왜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諸國과 대외관계를 맺어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¹⁾. 새로운 창구가 추가되며 국익에 따른 다자외교를 전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백제와 왜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²⁾.’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전개상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다른 뉘앙스로 구별되어 서술한 것으로 읽었다. 두 번째 문장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지 궁금하다. 결국 국서탈취사건이 왜와 백제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변화의 계기로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4. 왜의 신라 정벌 논의

신라정벌논의에 대해 신라를 적대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6세기 중반으로 기년조정하는 견해를 각주로 표기하고 있다.(8-9쪽) 기년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신라정벌논의 기사를 7세기의 신라와 왜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시기 신라와 왜가 갈등없이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보는 입장인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7세기의 기사들은 기년조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년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신라 정벌 관련 기사들의 기년 조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5. ‘특수외교사절’의 용어

1) 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221쪽.

2) 622년 성덕대자의 죽음 이후 왜 조정 내의 친백제 세력의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는 의견이 있어 참고된다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국사관논총』52, 153쪽).

11쪽 <<일본서기>>의 ‘질’ 파견을 기존 ‘왕족외교’라 명명하는 것은 신라의 질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수외교사절’이라는 용어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왕족외교’에서 이 외교의 주체가 백제이므로 백제의 입장에서 왕족외교라는 명칭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신라의 질을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은 왜의 입장에서의 표현이 될 것이다. 또한 ‘특수외교사절’의 ‘특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막연한 표현이다. 용어는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특수외교사절’이 ‘왕족외교’보다 나은지 의문이다. 또한 고대에 왕족을 외교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질’과 관련하여 14쪽 교기는 ‘질’이 아니므로, 교기를 ‘특수외교사절’로 포함시키는 것은 ‘질’을 특수외교사절로 규정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6. 기타

12쪽 서명3년(631) 의자왕의 아들 풍장의 파견 기사에서 풍장은 의자왕의 아들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풍장 파견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교기는 642년 백제 조정에서 축출되어 섬으로 유배된 고명한 사람들 40여명 가운데 한 명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교기가 왜로 망명하여 백제조정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였을까? 나아가 교기의 존재를 근거로 백제가 왜에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회원가입 안내

[신한은행] 100-032-168110 (예금주: 한국고대사학회)

학생회원 3만원, 일반회원 4만원, 종신회원(개인) 80만원-분납 가능

문의: 총무간사 김정환(한양대 박사과정), jhjk8831@naver.com

학술대회장 찾아오시는 길

충주세계미술박물관 2층 다목적강당



저녁식사 장소 안내

감로정(043-857-7600)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266-3



이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